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남도 잡가 <보렴>의 기원과
20세기 판소리 창자의
<보렴> 수용 양상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한국음악학전공
이 은 비

남도 잡가 <보림>의 기원과
20세기 판소리 창자의
<보림> 수용 양상

지도교수 성 기 련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한국음악학 전공
이 은 비

이은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Anna Yates-Lu (인)

부위원장 김 우 진 (인)

위 원 성 기 련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남도 잡가 <보렴>의 사설을 분석하여 <보렴>의 기원과 노랫말의 특징을 밝히고, 사당패 소리였던 <보렴>이 창우집단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20세기 초 이후 판소리 창자들이 부르는 <보렴>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구명하였다.

제II장에서는 <보렴>의 사설 분석을 통하여 <보렴>의 사설이 삼남지역의 무가와 절 걸립패가 부르던 <고사소리> 등 다양한 축원적 기능을 하는 악곡들과 사설을 공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보렴>이 경서도 사당패소리 <관염불>에서 기원했다는 선행 연구의 견해와 달리 <보렴>의 사설은 20세기 이전부터 남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던 축원적 기능을 갖는 무가와 고사소리 사설 등이 어우러져 완성된 것이며,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유는 <보렴>이 남도 사당패들이 부르던 <관염불>에서 기원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제III장에서는 20세기 초 판소리 창자들이 <보렴>을 수용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전통사회에서 잡가로 취급되던 사당패소리 <관염불>을 판소리 창자들이 부르게 된 배경을 당대 공연 문화의 변동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속성을 추구한 남원협률사 소속 창자들이 1910년대부터 사당패의 <관염불>을 수용하여 <보렴>을 현행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갖는 곡으로 개작하여 부르기 시작했음을 알아내었다. 1920년대 이후에는 판소리 창자들이 남도잡가의 한 곡으로 <보렴>을 부르기 시작함에 따라 대중매체에 나타난 판소리 창자들의 <보렴>의 가창 양상을 유성기음반과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920년대까지 <보렴>의 악곡명과 갈래 명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930년대 이후에 <보렴>이라는 명칭으로 정착하여 남도 잡가의 첫 곡으로 부르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IV장에서는 20세기에 판소리 창자들에게 <보렴>이 수용된 이후 <보렴>의 음악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행 <보렴>과 마찬가지로 중모리~자진모리의 장단 틀을 갖춘 최초의 음원은 남원협률사에서 활동한 김정문에

게 소리를 학습한 이화중선과 그의 동생 이중선이 병창으로 1929년에 부른 <보렴>임을 알 수 있었다. 1930년대 이후 <보렴>은 남도 잡가의 첫 곡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여류 명창에 의해 불려졌다. 1960년대 이후의 <보렴>의 음원은 박초선·한농선 창 <보렴>과 안숙선 창 <보렴>을 통해 살펴 보았다. 20세기 후반기에 <보렴>은 남도 잡가화 되어 계면조화 현상에 따라 음원의 길이가 길어지고 다양한 시김새가 구사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어 : 보렴, 남도 사당패, 판염불, 민간협률사, 판소리 창자,
남도 잡가.

학 번 : 2021-26026

목 차

I. 서 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1) 사당패소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2) <보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6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0
II. 19세기 말 남도 사당패의 활동 양상과 <보림> 사설의 기원	14
1. 19세기 말 남도 사당패의 활동 양상	15
1) 남도 사당패의 활동 지역	15
2) 남도 사당패의 공연 양상	18
2. 남도 <판염불>을 계승한 <보림>의 사설	22
1) 경서도 <판염불>과 <보림>의 사설 비교	22
2) 남도 <판염불>에서 기원한 <보림>의 사설 분석	26
(1) 제1단락(상래소수)의 사설 내용	27
(2) 제2단락(동방화류)의 사설 내용	29
(3) 제3단락(동예는)의 사설 내용	32
(4) 제4단락(일쇄동방)의 사설 내용	33
(5) 제5단락(도장청정)의 사설 내용	34

Ⅲ. 20세기 초 판소리 창자의 <보림> 수용 배경과 <보림>의 남도 잡가화 과정	38
1. 19세기 말~20세기 초 공연 환경 변화와 남도 잡가의 유행	38
2. 1910년대 남원협률사 창자들의 남도 <판염불> 수용 배경	40
3. 대중매체에 나타난 <보림>의 남도 잡가화 과정	46
1) 유성기음반 자료 목록을 통해 본 판소리 창자의 <보림> 취입 양상...	46
2)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을 통해 본 <보림>의 방송 양상...	53
Ⅳ. <보림> 음원의 녹음 시기별 음악적 특징 분석 ·	59
1. 1920년대 <보림> 음반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	59
1) 이화중선·이중선이 취입한 <보림(1929)>	59
2)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이 취입한 <보림(1929)>	65
2. 1930년대의 여류 명창이 부른 <보림>의 음악적 특징 ...	69
1) 최계란·조소옥이 취입한 <보림(1936)>	69
2) 이난향·박도일이 취입한 <보림(1936)>	72
3. 1960년대 이후 녹음된 <보림>의 음악적 특징	76
1) 박초선·한농선이 취입한 <보림(1960년대)>	76
2) 안숙선이 취입한 <보림(1992)>	80
Ⅴ. 결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7
부록 1	100
부록 2	117
참고약보	119

표 목 차

[표 1] 분석 대상 음원 자료	11
[표 2] 본고에서 사용한 시김새 용어	12
[표 3] <보림> 사설의 단락 구분	26
[표 4] <보림> 제1단락(상래소수)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28
[표 5] <보림> 제2단락(동방화류)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30
[표 6] <보림> 제3단락(동에는)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32
[표 7] <보림> 제4단락(일쇄동방)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33
[표 8] <보림> 제5단락(도장청정)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35
[표 9] <보림> 제1단락~제5단락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36
[표 10] 유파별 <<홍보가>> 중 <중타령>과 <보림> 사설 비교 결과	43
[표 11] 1920년대 <보림>의 유성기음반 목록	47
[표 12] 1920년대 <보림>의 악곡 명칭 변화 과정	47
[표 13] 1930년대 <보림>의 유성기음반 목록	50
[표 14] 1927년 12월~1932년 10월 경성방송국의 <보림> 방송 양상	53
[표 15] 1933년 5월~1936년 12월 경성방송국의 <보림> 방송 양상	54

[표 16]	1937년 1월~1939년 11월 경성방송국의 〈보림〉 방송 양상	56
[표 17]	1940년 1월~1942년 12월 경성방송국의 〈보림〉 방송 양상	57
[표 18]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과 현행 〈보림〉의 사설	60
[표 19]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의 단락별 종지 선율	62
[표 20]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 창 〈보림〉의 사설	66
[표 21]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 창 〈보림〉의 단락별 종지 선율	67
[표 22]	최계란·조소옥 창 〈보림〉의 사설	69
[표 23]	최계란·조소옥 창 〈보림〉의 단락별 종지 선율	71
[표 24]	이난향·박도일 창 〈보림〉의 사설	73
[표 25]	이난향·박도일 창 〈보림〉의 단락별 종지 선율	74
[표 26]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의 사설	77
[표 27]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의 단락별 종지 선율	79
[표 28]	안숙선 창 〈보림〉의 사설	81
[표 29]	안숙선 창 〈보림〉의 단락별 종지 선율	82

자 료 목 차

〈자료 1〉 신재효본 《박홍보가》 중 〈박타령〉의 사당패 근거지	15
〈자료 2〉 신재효본 《변강쇠가》에 나타난 사당패 근거지	16
〈자료 3〉 신재효본 《박홍보가》 중 일부	18
〈자료 4〉 신재효본 《변강쇠가》 중 일부	19
〈자료 5〉 『계우사』에 등장하는 사당패 근거지와 사당패 놀음	20
〈자료 6〉 『계우사』에 등장하는 사당패와 명창 광대의 소릿값	21
〈자료 7〉 잡가집에 수록된 〈판염불〉의 사설	23
〈자료 8〉 〈보렴〉의 사설	23
〈자료 9〉 이보형의 사당패소리 관련 증언	25
〈자료 10〉 『독립신문』 1898년 10월 22일 기사	39
〈자료 11〉 『매일신보』 1914년 3월 14일 기사	39
〈자료 12〉 전인삼 대담 자료	42
〈자료 13〉 이해구의 1930년대 국악방송	56

지 도 목 차

〈지도 1〉 19세기 말 남도 사당패의 근거지	17
---------------------------------	----

악 보 목 차

〈악보 1〉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념〉 제24장단~제31장단 ..	63
〈악보 2〉 이화중선·이중선 창 〈타령〉	65
〈악보 3〉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 창 〈보념〉 제1장단~제8장단	68
〈악보 4〉 최계란·조소옥 창 〈보념〉 제1장단~제8장단	70
〈악보 5〉 최계란·조소옥 창 〈보념〉 제24장단~제26장단 .	72
〈악보 6〉 이난향·박도일 창 〈보념〉 제1장단~제8장단	73
〈악보 7〉 이난향·박도일 창 〈보념〉 제24장단~제38장단 .	75
〈악보 8〉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 제1장단~제8장단	80
〈악보 9〉 안숙선 창 〈보림〉 제1장단~제8장단	84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남도 잡가 <보렴>은 사당패의 소리 중에서도 축원적 성격이 강한 <관염불>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사당패는 조선 시대 대표적인 떠돌이 민간 예인 집단이고, 사당패가 부르는 노래를 사당패소리라고 한다. 사당패소리는 공연의 순서와 노래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염불>은 사당패가 회중들을 축원하기 위해 공연을 시작할 때 먼저 부르는 악곡에 해당한다.²⁾

20세기 초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사당패집단이 사라지면서, 사당패의 일부 공연 종목은 남사당패에 의해 전승되었고,³⁾ 사당패소리는 경기 명창인 박춘재에 의해 잡가화되어 <관염불>이라는 제목으로 20세기 초 광무대 등의 사설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그렇지만 20세기 초 광무대에서 부르던 소리를 기록한 잡가집의 목록이나 사설에는 남도 잡가 <보렴>이라는 제목의 악곡이나 <보렴>과 같은 내용의 사설은 보이지 않아서 의아하다. 한편 1920년대 이후 유성기음반 목록과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을 살펴보면 <보렴>이라는 제목의 악곡이 다수의 판소리 창자들에 의해 취입되거나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남도 잡가 <보렴>은 장사훈의 지적⁴⁾대로 사당패소리 <관염불>에서 기원하기는 하였으나, 경서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경서도 사당패소리에서 기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보렴>의 사설을 단락별로 분석하여 <보렴>의 사

1) 장사훈, 『국악개요』(정연사, 1961), 134쪽.

2) 이보형, 「남도 잡가 생성 변화와 음악특성 변화」, 『추계 국악학 전국대회 발표 논문집』(한국국악학회, 2006a), 84쪽.

3)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동문선, 1974).

4) 각주 1) 참조.

설이 어떤 선행 장르에서 기원하였으며, <보림>의 노랫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보림>이 1920년대부터 유성기음반과 경성방송국 방송목록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1930년대 이후 판소리 창자들이 부르는 남도 잡가의 대표적인 곡으로 자리 잡았는데, <보림>이 언제 판소리 창자들의 공연 레퍼토리로 수용되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20세기 초 공연문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당패소리이던 <판염불>을 20세기 초 판소리 명창이 수용하여 <보림>으로 부르게 되면서 초기에는 어떤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193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그 음악적 특징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겠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사당패소리이던 <판염불>이 삼남(三南) 지역을 활동 배경으로 했던 판소리 창자들에게 수용된 배경이 무엇이며, <보림>이 남도 잡가로 수용된 이후 판소리 창자들이 이 악곡을 가창한 양상, 그리고 20세기 초 이후 나타나는 <보림>의 음악적 변화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음악학계에서 이루어진 사당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사당패 소리를 주제로 한 연구와 <보림>에 관련한 연구로 나누어 검토해보겠다.

1) 사당패소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사당패소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서도 사당패소리에 대한 연구와 남도 사당패소리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서도 사당패소리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린은 1958년 『향토서울』에 기고한 글 「서울의 속가」⁵⁾에서 선소리는 <놀령>, <앞산타령>, <뒷산타령>, <도라지타령>, <자진방아타령>, <개고리타령> 등의 7곡 정도가 있으며, 선소리 산타령은 뚝섬패, 방아다리

5) 성경린, 「서울의 속가」, 『향토서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8).

패, 과천패 등의 불박이 집단이 부른다고 정리했다. 성경린은 평양의 허덕선과 금방울이 서울의 <구 놀령>을 바탕으로 서도 산타령 <신 놀령>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경기 산타령에서 서도 산타령이 유래했다고 최초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한만영도 「산타령에 관한 연구」⁶⁾에서 성경린과 마찬가지로 경기 산타령에서 서도 산타령이 유래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만영은 해당 연구를 통해 산타령패 소리가 갖는 음악적 특징은 불규칙한 리듬과 평조적 특성이라고 정리했다. 해당 연구에서 남도 잡가 <보림>과 <화초사거리>를 사당패소리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으며, 산타령패의 소리가 갖는 공통적인 음악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 것에 연구 의의가 있다.

조유미는 「놀량의 악곡 구조 연구」⁷⁾를 통해 경기입창에서 서도입창이 유래하였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경기 놀량>과 <서도 놀량> 모두 경토리로 부른다는 음악적 특징에 주목하여 <놀량>의 원곡을 <경기 놀량>이라고 보았다. 해당 연구는 <경기 놀량>에서 빠르게 노래하는 부분이 독립하여 확대된 곡이 현행 <서도 놀량>이라고 보았다. <경기 놀량>과 <서도 놀량>의 관계를 악곡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사당패와 산타령패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였는데, 이창배는 그의 저서 『한국가창대계』⁸⁾에서 산타령패와 사당패는 서로 다른 집단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산타령패는 산타령을 부르는 집단으로 사당패와 구분되어 존재했다는 것이다.⁹⁾ 해당 연구는 <놀량>이 사당패소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산타령패의 소리에서 기원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장휘주는 「사당패소리와 경기입창」¹⁰⁾을 통해 사당패소리에서 경기입창이 기원한 것인지 검토하였다. 장휘주는 <놀량>은 사당패소리와 유사하

6) 한만영, 「산타령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음악연구』(풍남, 1991).

7) 조유미, 「놀량의 악곡 구조 연구」, 『한국음악학』 제5호(한국고음악연구회, 1995).

8) 이창배, 『한국가창대계』(흥인문화사, 1976).

9) 이창배, 위의 책(1976), 317쪽.

10) 장휘주, 「사당패소리와 경기입창」, 『경기전통예술연구 시리즈 경기잡가』(경기도 국악당, 2006a).

지만 <놀랑> 뒤에 부르는 산타령계 악곡은 사당패소리와 관련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놀랑>과 산타령계 악곡을 구분하여 사당패소리와 의 연관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신현남은 『산타령 연구』¹¹⁾를 통해 사당패와 관련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0세기 초 잡가집에 기록된 사당패소리의 사설을 경기와 서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기 사당패소리와 서도 사당패소리의 사설을 면밀히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경기 사당패의 산타령은 서도 산타령의 사설을 차용했다고 설명하였다.¹²⁾ 해당 연구는 산타령의 사설을 경기 산타령에 해당하는 관음불계 악곡과 서도 산타령에 해당하는 놀랑계 악곡으로 구분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남도 사당패소리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경서도 사당패소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활발하게 논의된 것에 비해 남도 사당패소리는 경서도 사당패소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권도희는 「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¹³⁾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호남 지역의 근대음악사를 다루면서 남도 사당패의 활동에 주목했다. 그는 신재효의 판소리 6마당 사설집 중 《홍보가》와 『게우사』를 통해 19세기 말 활동한 남도 사당패의 활동지를 연구했다.¹⁴⁾ 해당 연구는 19세기 말 활동한 남도 사당패의 활동 지역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이 지역이 조창 등이 위치하는 경제적 중심지였음을 밝혀내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남도 사당패의 활동과 관련하여 남도 지역에서 남사당패와 관련한 향토민요를 발굴한 연구가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있다. 진희숙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을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인 진도 들노래 중 남사당패와 관련된 악곡들을 정리하였고, 들노래의 음악적 특징을 밝혔다.¹⁵⁾

11) 신현남, 『산타령 연구』(민속원, 2017).

12) 신현남, 위의 책(2017), 126쪽.

13) 권도희, 「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38집(한국국악학회, 2005).

14) 권도희의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에도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다양한 민간예인집단 중 사당패에 관한 내용이 소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반혜성은 「진도 마당놀이요에 관한 연구」¹⁶⁾에서 진도 마당놀이요 중 남사당패와의 관련성이 보이는 악곡을 대상으로 그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서, 남해 도서 지역에서 활동한 남사당패의 소리에 영향을 받은 토속민요를 연구한 그의 연구를 통해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남사당패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혜정은 「민요에 나타난 새로운 음악의 수용과 변용-한국 서남해 도서지역의 남사당노래를 중심으로」¹⁷⁾를 통해 남사당패소리가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서 향토민요로 전승된 음악 양상을 논의하였다. 해당 연구는 서남해 도서 지역의 남사당노래들이 수용 및 변용된 양상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손인애는 「사당패소리 방아타령 연구-서남해 도서 지역의 사당패소리를 중심으로」¹⁸⁾와 「토속민요 배꽃타령 계통 소리 연구」¹⁹⁾를 통해 전라도 서남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남사당의 노래가 향토민요에 수용되어 <배꽃타령>, <양산도>, <방아타령>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²⁰⁾를 통해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의 소리를 조사하여 사당패의 활동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진회숙, 반혜성, 김혜정, 손인애의 연구를 통해 사당패의 소리가 서해와 남해 도서 지역의 향토민요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사당패소리를 수용한 향토민요가 전라도 서, 남해 도서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경기 음악 문화권에서 활동한 사당패 외에 남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남도 사당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5) 진회숙, 「진도 들노래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6) 반혜성, 「진도 마당놀이요에 관한 연구-남사당패와의 관련성 여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7) 김혜정, 「민요에 나타난 새로운 음악의 수용과 변용-한국 서남해 도서지역의 남사당노래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29집(한국국악학회, 2001), 345~366쪽.

18) 손인애, 「사당패소리 방아타령 연구-서남해 도서 지역의 사당패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5집(한국민요학회, 2004).

19) 손인애, 「토속민요 배꽃타령 계통 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제17집(한국민요학회, 2005).

20)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 <보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남도 잡가 <보림>을 직접적인 연구 주제로 삼은 음악학계 선행연구는 <보림>의 기원에 관한 논의와 음악적인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보림>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림>이 사당패의 소리에서 기원했다고 처음 명시한 문헌은 장사훈의 『국악개요』이다.²¹⁾ 이 문헌에 의하면, <보림>의 가장 앞부분에 “한산 세모시 잔주름 곱게 잡아 입고 안성 청룡²²⁾으로 사당질 가세”라는 사설이 붙어 있었으나, 현재는 탈락했다고 한다. 해당 문헌은 <보림>이 사당패소리 중에서도 <관염불>에서 기원했음을 밝혔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보림>의 기원을 고려 시대까지 소급한 학자로는 박헌봉이 있다. 박헌봉은 『창악대강』에서 <보림>의 기원이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 시대에 창작된 가사로 추정된다고²³⁾ 밝힌바 있다. 그는 해당 연구에서 송신의 관념이 <보림>에 상당히 농후하게 들어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림>의 기원을 근대가 아닌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엄국현도 「보림의 양식과 삶의 자리 연구」에서 박헌봉과 마찬가지로 <보림>의 기원을 고려 시대로 보았다. 그는 <보림>이 팔관회로 대표되는 국가적 불교 행사나 고려 궁정의 잔치 자리에서 부르던 악장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림> 앞부분의 사설이 ‘송도지사’로써, 고려 가요 <동동>과 유사하게 한 해를 보내고 복을 기원하는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²⁴⁾

박헌봉과 엄국현의 연구는 <보림>의 축원적 성격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림>이 축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

21) 장사훈, 앞의 책(1961), 134쪽.

22) <보림>의 사설 앞에 붙어 있던 ‘안성 청룡’은 경기도 안성의 청룡사를 일컫는다. 안성 청룡사는 19세기 말 안성 청룡사를 근거지로 활동한 여성 모가비 바우덕이가 활동한 사당패의 근거지이다. 심우성, 『전통문화를 찾아서』(동문선, 2004), 47~48쪽.

23) 박헌봉, 『창악대강』(국악예술학교 출판부, 1966), 580쪽.

24) 엄국현, 「보림의 양식과 삶의 자리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47권(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만으로 <보림>의 기원을 고려 시대까지 소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보림> 사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천수경》의 경우, 18세기 말에 형성되어²⁵⁾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김종진은 「잡가의 종교성과 세속성」²⁶⁾에서 사당패의 <관염불>이 등장한 시기를 18세기나 19세기로 보았다. 그는 경서도 사당패의 <관염불>에 해당하는 <놀량>은 전반부에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불교 경전의 일부 구절을 공유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세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후반부 사설은 불교적 성격을 잃고 세속적으로 변모한 것이므로 <놀량>의 세속화는 사당패 집단의 성격 변화와도 일치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남도 잡가 <보림>은 <경기 놀량>과 달리 불교적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정리하였다. 사당패소리 <관염불>을 경서도와 남도로 나누어 세속화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이보형은 「보림 장단 리듬 통사구조 연구」에서 경기 사당패소리의 ‘축원 염불’²⁷⁾이 남도로 넘어간 후, 이것이 남도 사당패소리의 ‘축원 염불’에 해당하는 <보림>으로 전승되었다고 보았다.²⁸⁾ 본래 경기 사당패의 ‘축원 염불’에서 기원한 <보림>이 오늘날과 같은 음악적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는 19세기 말 전라남도 곡성에서 활동한 신방초의 개작 행위로 보았다.²⁹⁾ 이보형은 신방초가 <보림>을 개작한 경위로 협률사 활동을 제시하였으나 민간에서 협률사가 활동한 시기는 20세기 초이므로³⁰⁾ <보

25) 정각, 『천수경 연구』(운주사, 1996), 305쪽.

26) 김종진, 「잡가의 종교성과 세속성」, 『불교학보』 제57집(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27) 이보형에 따르면 사당패소리의 성격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보형은 사당패가 회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국가와 회중을 축원하기 위해 부르는 곡을 ‘축원 염불’이라 지칭했으며, 회중의 흥행과 흥미를 돋우기 위해 이어 부르는 시속 잡가로 된 ‘잡가 염불’이라 지칭했다. 이보형, 앞의 글(2006a), 84쪽.

28) 이보형은 「보림 장단 리듬 통사구조 연구」에서 “<보림>은 경기 사당패 축원 염불-남도 사당패소리 축원 염불-신방초-잡가광대-여류 판소리 명창으로 전승 집단이 변하면서 많이 변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이보형, 「보림 장단 리듬 통사구조 연구」, 『한국음반학』 제16호(한국고음반연구회, 2006b), 6쪽.

29) 이보형의 주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 사당패소리가 남도 사당패소리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화했을 것이고, 또 심방초가 화초사거리에 ‘화초 염불’을 추가할 때 보림 또한 손을 대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형, 위의 글(2006b), 5쪽.

럼>을 신방초가 개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김혜정도 경서도 입장인 <관염불>에서 <보림>이 비롯했다고 가정한 채 연구를 진행한바 있다. 김혜정은 「경기와 남도의 음악 문화적 접변 양상과 의미」³¹⁾에서 여러 가지 접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백점봉 일행이 부른 <보림>³²⁾을 예로 들었다. 해당 연구는 경서도 입장인 <관염불>에서 <보림>이 파생했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경기와 남도 음악의 접변 양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경서도 입장 <관염불>은 현재 탈락하여 전승되지 않으므로 <보림>의 음악 분석만으로는 경기와 남도의 음악적 접변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림>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려 시대 기원설, 경서도 <관염불> 기원설, 신방초 개작설이 존재하였으나 세 가지 가설 모두 정확하게 <보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보림>의 기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보림>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겠다. <보림>의 선율을 연구한 음악학계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윤량석은 「남도민요 보냄 가락의 이디엄」³³⁾에서 일찍이 <보림>의 선율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남도민요 중 <강강술래>, <농부가>, <산타령>과 <보림>의 선율을 비교하여 남도 잡가 <보림>의 구성 원리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한만영은 「산타령에 관한 연구」³⁴⁾에서 <보림>도 사당패의 음악에서 기원한 곡이므로 산타령 류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산타령 류의 음악적 특징은 3도의 선율 진행과 끝을 여며 올리는 상행 중지형이다. <보림>을 사당패소리에서 기원한 악곡으로 보고, 산타

30) 신방초가 살던 19세기 말까지 ‘협률’은 교방사의 개칭인 장악원의 음악 활동을 의미 함으로, 극장 무대의 공연 양식을 뜻하는 ‘협률사’라는 명칭과는 관련이 없다. 조영규, 『바로 잡는 협률사와 원각사』(민속원, 2008), 75쪽.

31) 김혜정, 「경기와 남도의 음악 문화적 접변 양상과 의미」, 『유성기음반으로 보는 경기 충청의 소리』(국립남도국악원, 2006), 28쪽.

32)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 합창단, <보림>, [Columbia 40053-A], 1929.

33) 윤량석, 「남도민요 보냄 가락의 이디엄」, 『동서문화』 제3권(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9).

34) 한만영, 앞의 글(1991).

령 류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음악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김삼진은 「보림과 예불문 고찰」³⁵⁾에서 <보림>의 사설이 대부분 불교의 예불문(禮佛文)과 공유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예불문과 <보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는 <보림>의 음악적 특징을 선율의 단락을 이루는 형식, 음계, 선율과 장단의 상관관계, 시작 음과 종지음, 연행 형태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김삼진은 해당 연구에서 ‘레(re)’음의 두드러진 사용이 예불문과 <보림>이 갖는 공통적인 음악적 특징이라고 정리하였다.

이용식은 「일제강점기 대중매체에 의한 남도 잡가의 공연 양상」³⁶⁾에서 일제강점기 남도 잡가의 고착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는 일제강점기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전라도 지역에서만 향유되던 남도 잡가가 대중문화로 성장했다고 보았다.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³⁷⁾과 유성기음반에 취입된 남도 잡가를 통해서 남도 잡가가 오늘날과 같이 고착화 된 과정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이상으로³⁸⁾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경서도 사당패소리의 전승 경위는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바 있으나, 남도 사당패의 활동 양상과 남도 사당패소리의 특징, 그리고 <보림>의 기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에서 기원한 <보림>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겠다.

35) 김삼진, 「보림과 예불문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24집(한국국악학회, 1996).

36) 이용식, 「일제강점기 대중매체에 의한 남도 잡가의 공연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26권(공연문화학회, 2013).

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민속원, 2000).

38) 이외에 <보림>을 주제로 음악교육학적 연구를 진행한 강한나의 연구도 있다. 그는 「남도 잡가 보림 지도 내용 연구」를 통해 남도 잡가 <보림>의 음악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한 지도 내용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 교육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보림>의 중모리장단 사설은 불교 기원문(祈願文)에 나오는 내용으로 불가가 대부분 메나리토리로 부르는 것과 달리 <보림>은 육자배기로 부른다는 점이 불가와 다르다고 보았다. 강한나, 「남도 잡가 보림 지도 내용 연구」(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림>의 기원과 판소리 창자들에 의해 <보림>이 남도 잡가로 정착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Ⅱ장에서 19세기 말 남도 지역에서 활동한 사당패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당패와 관련된 문헌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도 지역에서 향유된 <관염불>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남도 지역의 <관염불>을 계승한 <보림>의 사설을 분석해보겠다. 현행 <보림>은 사당패소리 중에서도 축원적 성격을 갖는 <관염불>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무(巫)의식으로 대표되는 타 장르의 축원 사설과 <보림>의 사설 공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20세기 초 판소리 창자의 <보림> 수용 배경과 판소리 창자의 <보림> 가창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소리 창자들은 20세기 초에 민간협률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1910년대 후반기 이후에는 유성기음반과 라디오 방송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활동하였다. 1910년대 판소리 창자들의 민간협률사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본래 사당패소리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보림>이 판소리 창자에게 수용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대 이후 대중매체의 기록을 통해 판소리 창자에게 <보림>이 수용된 이후의 <보림>의 가창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 남도 잡가화 된 <보림>의 시기별 음악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룬 <보림>의 음원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음원 자료

시기	창자	녹음	음반번호	비고
20세기 초	이화중선· 이중선	1929	Victor KJ 1340-A·B	(복각)SRCD-1158,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7 자매명창 이화중선·이중선, 서울음반, 1994.
	백점봉· 김중기 외 남녀 합창단	1929	Columbia 40053-A	(복각)SBCD-13911, 민속음악자료집 제4집 유성기음반으로 보는 경기충청의 소리 (부록 CD), 국립민속국악원, 2006.
여류 명창	최계란· 조소옥	1936	Million CM805	KAA 0000, 이보형 소장 자료.
	이난향· 박도일	1936	Taihei 8198-B	(복각)HKYCD-14, 이보형 소장 논문과 함께 듣는 유성기 음반 17 남도 민요 <보림>.
1960년대 이후	박초선· 한농선	1960년대	SEL-13-37	남도민요 제2집, 에이비씨레코드.
	안숙선	1992	Z-T100-15445	안숙선 남도민요, 예음.

본고에서 다룬 <보림>의 음원 자료 목록은 위와 같이 20세기 초에 취입된 음원, 여류 명창이 부른 음원, 1960년대 이후에 취입된 음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보림>의 초기 음원 중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1929)>은 현행 <보림>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갖춘 최초의 음원으로, <보림>의 초기 음원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점봉·김중기 외 남녀합창단이 부른 <보림(1929)>은 중중모리장단만 녹음되어 있고, 중모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은 녹음하지 않았다. 음악 분석에 있어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세기 초기에 취입된 <보림>의 유성기음반 음원은 중중모리장단을 기준으로 음원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30년대 여류 명창이 남도 잡가를 적극적으로 가창함에 따라 여류 명

창이 <보림>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여류 명창이 부른 <보림> 중 음원 확보가 가능한 최계란·조소옥 창 <보림(1936)>과 이난향·박도일이 부른 <보림(1936)>³⁹⁾의 음원을 채보 후 분석해보겠다. 해당 음원들은 현행 <보림>의 중모리장단 전 장단과 중중모리장단 일부가 취입되어 있다.

20세기 후반기의 <보림>의 음악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과 안숙선 창 <보림>의 음원을 채보한 후 음악 분석을 진행하겠다. 박초선·한농선의 <보림>은 1960년대 녹음된 음원 중에서 비교적 음반 정보가 명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안숙선은 20세기 후반기부터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보림>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위 [표 1]에 제시된 <보림> 음원 6종을 채보하였으며, 채보 시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중모리장단은 2소박 12박자로 기보하였으며, 중중모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은 3소박 4박자, 엇중모리장단은 2소박 6박자로 채보하였다. 둘째, 중간에 청이 떨어지는 경우는 곡의 전반적인 청을 기준으로 채보하였다. 셋째, 유성기음반의 음질 상태가 좋지 않아 가사의 채록이 불가능한 경우 가사는 ‘○○’으로 표시하였다. 넷째, 연구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실음으로 채보한 후 조옮김했다. 다섯째, 시김새 용어는 선행연구⁴⁰⁾의 용어를 참고하여 ‘~목’으로 통일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할 시김새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본고에서 사용한 시김새 용어

순서	시김새 용어	예시	창법
1	꺾는 목		계면조의 구성음 si를 꺾어내는 시김새로 (do') -si를 빠르게 꺾어 낸다.

39) <보림>은 <보림>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추정된다.

40) 최난경, 『동편제와 서편제 연구』(집문당, 2006), 117~164쪽; 박헌봉, 앞의 책(1966), 69~73쪽; 성기린, 『1930년대의 판소리 음악문화』(민속원, 2021), 263쪽.

2	떠는 목		요성으로 음을 떠는 경우다.
3	꾸며 꺾는 목		(mi') - (do') - si 또는 (re') - (do') - si처럼 한 음 위나 두 음 위에서 (do') - si로 꺾어 내려오는 하행선율이다.
4	뉘는 목		산조에서 퇴성처럼 음을 약간 흘려 낸다.
5	다리 놓는 목		선행 음에서 다음 음으로 연결하기 직전에 다리를 놓듯 다음 음이나 다음 음의 위 음을 짧은 시가로 먼저 쳐주는 목이다.
6	끊는 목		선율 중간이나 선율의 단락이 맺어지는 부분에서 소리의 끝부분을 잘라내듯이 툭 끊어서 내는 목이다.

이상 본고에서 사용할 시김새 용어는 꺾는 목, 떠는 목, 꾸며 꺾는 목, 뉘는 목, 다리 놓는 목, 끊는 목의 총 6개이다. 위 6개의 시김새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 대상 음원에서 나타나는 <보림>의 음악적 변화를 설명해보겠다.

II. 19세기 말 남도 사당패의 활동 양상과 <보림> 사설의 기원

「사당고」⁴¹⁾에는 사당패의 근거지로 경기도 안성군 청룡사, 황해도 은율군 구월산, 전라남도 강진군 정수사, 경상남도 남해군 화방사가 지목되어 있다. 해당 문헌을 통해 남도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 사당패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도 전라도라는 점에서⁴²⁾ 남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당패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형문화재조사전수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서도 사당패는 산타령류의 음악을 부르고, 삼남 지역의 사당패들은 <보림>과 <화초사거리> 등을 불렀다고 한다.⁴³⁾ 1915년까지 <화초사거리>를 <관염불>이라고 명명했다는 점도⁴⁴⁾ 남도 지역에는 경서도 사당패소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관염불>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남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불리던 <관염불>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19세기 말 남도 지역에서 활동한 사당패와 관련한 문헌을 검토해보겠다. <보림>은 남도 지역에서 향유되던 곡이기 때문에 남도 지역에서 부르던 <관염불>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보림>의 사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림>의 기원에 대하여 구명하여 보겠다.

41) 송석하, 「사당고」, 『조선민속』 제3호(조선민속학회, 1940), 110쪽.

42) 손인애, 앞의 글(2006), 202쪽.

43) 이보형, 「무형문화재조사전수실태조사(9)」, 『월간문화예술』 통권 100호(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

44) 1915년까지 <화초사거리>를 <관염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장사훈, 『국악대사전』(세광음악출판사, 1991), 844쪽, ‘화초사거리’ 항목 참조.

1. 19세기 말 남도 사당패의 활동 양상

19세기 문헌인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과 무속이 타령 사설 정작 본으로 알려진 『계우사』⁴⁵⁾에 남도 사당패의 활동 양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통해 남도 사당패의 활동 지역과 공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도 사당패의 활동 지역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 중 《박홍보가》에는 19세기 말 남도에서 활동하던 사당패의 근거지가 나열되어 있다. 아래 <자료 1>에는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 중 《박홍보가》 중 <박타령>이다. 해당 자료에는 전국에 유명한 사당패들의 근거지가 나열되었는데, 경기도 안성 청룡사 외에 남도 사당패의 근거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자료 1> 신재효본 《박홍보가》 중 <박타령>의 사당패 근거지
실근 실근 거짐 타니 사당의 법이란 게 그중에서 연계 사당이 앞서
는 법이었다.

쇼사 문안이오. 쇼사 등은 경기 안성 청룡사와 영남 하동 목골이며,
전라도로 의론하면 함열에 성불암, 창평에 아쥬암, 담양, 옥턴, 정읍,
동막, 함평에 월양산 여기저기 있습다가...”⁴⁶⁾

위 <자료 1>의 ‘연계 사당’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이 어린 애사당이 먼저 앞서는 사당패의 공연 형태가 확인된다. 이후 전라도에서 활발히 활

45) 『계우사』는 『원광대학교 박순호교수 소장본 한글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제1권에 수록된 소설이다. 박종철은 『계우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줄거리, 판소리 사설과의 서술상 유사성 등을 근거로 하여 『계우사』가 판소리 12바탕 중 「무속이타령」의 사설 정작본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무속이타령(왈자타령) 연구」, 『한국학보』 18권 3호 (일지사, 1992), 62~69쪽.

46) 신재효 저, 김태준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4: 흥부전/변강쇠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214쪽.

동하던 사당패 근거지를 나열하고 있다. 위 사실에 등장한 지역은 전라북도 함열(현 전라북도 익산시), 창평(현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담양(현 전라남도 담양군), 옥천(현 전라북도 순창군), 정읍(현 전라북도 정읍시), 동막(현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동막길), 함평(현 전라남도 함평군)으로, 사당패의 근거지는 남도 지역에 다수 포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 중 《박홍보가》 외에 《변강쇠가》에도 남도 사당패의 근거지가 여러 곳이 나열되어 있어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2> 신재효본 《변강쇠가》에 나타난 사당패 근거지
 이때 하동 목골, 창평 고살메, 함열 성불암, 담양, 옥천, 함평 월양산
 가리내패⁴⁷⁾가 창원, 마산포, 밀양 삼랑 그 근방들 가노라고 그 앞으로
 지나다가 움생원의 관을 보고 거사들이 절을 하여,
 “쇼소 문한하오, 쇼소 문안하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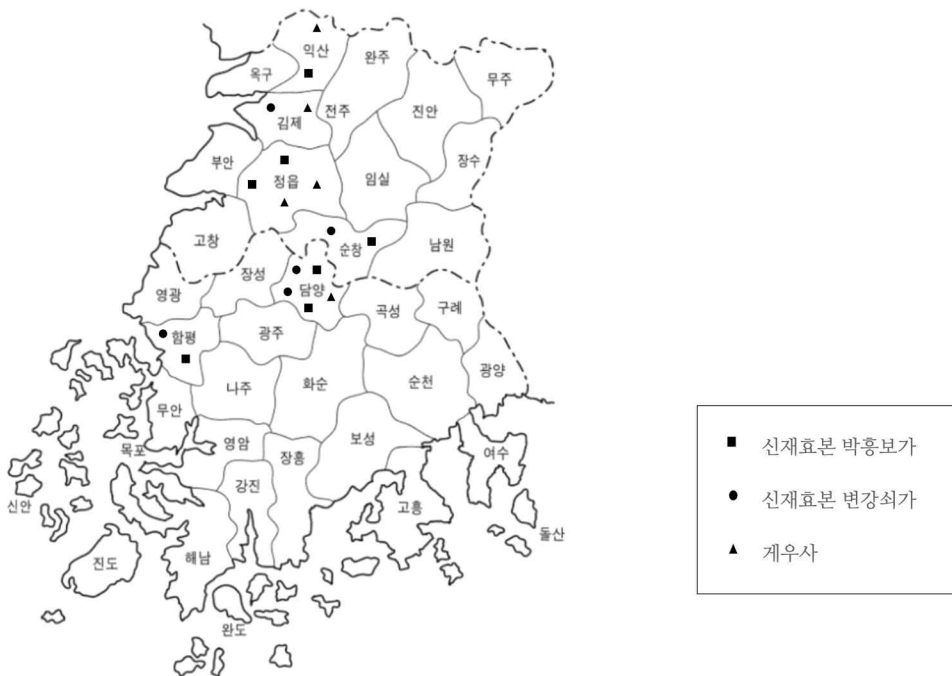
위 <자료 2>에서 인용된 대목은 변강쇠가 죽은 뒤 옹녀가 변강쇠의 장사를 지내려는 대목이다.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가리내패(일명 사당패)의 본거지로 하동 목골(현 전라북도 김제시), 창평 고살메(현 전라남도 담양군), 함열 성불암(현 전라북도 익산시), 담양(현 전라남도 담양군), 옥천(현 전라북도 순창군), 함평 월양산(현 전라남도 함평군)이 언급된다.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 중 《박홍보가》와 《변강쇠가》에서 지목된 사당패의 근거지는 대부분 일치하며, 전라도 일대에 유명한 사당패집단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0년경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우사』에도 남도 사당패의 근거지가 언급되어 있다. 『계우사』에 기록된 남도 사당패의 근거지는 정읍(현 전라북도 정읍시), 동막(현 전라북도 정읍시), 창평(현 전라남도 담양군), 하동 목골(현 전라북도 김제시), 함열 성불(현 전라북도 익산시)⁴⁹⁾이다.

47) 가리내패는 사당패를 일컫는 말로 ‘거리와 마을로 떠돌아다니는 연희패’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장희주, 「사당패 관련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 『공연문화연구』 제13권(한국공연문화학회, 2006b), 377쪽.

48) 신재효 저, 김태준 역주, 앞의 책(1995), 342쪽.

이로써 『계우사』에 언급된 남도 지역의 사당패 근거지는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중에서 《박홍보가》와 《변강쇠가》에서 언급된 사당패의 근거지와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19세기말 문헌 기록에 나타난 남도 사당패의 근거지를 하나의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 1> 19세기 말 남도 사당패의 근거지

위 <지도 1>을 통해 남도 사당패의 근거지는 담양, 순창, 정읍 등으로 대표됨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은 호남의 경제 및 행정 핵심 지역으로 밝혀진바 있다.⁴⁹⁾ 사당패가 서울에서 경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도 지역의 사당패도 조운과 관련하여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당패는 남도 잡가를 부른 것

49) 최혜진 교수, 『계우사, 이춘풍전』(지식을만드는지식, 2021), 52쪽.

50) 권도희, 앞의 글(2005), 14쪽.

으로 알려져 있다.⁵¹⁾ 이상 기록을 통해 19세기 말 경서도 사당패와 독립된 남도 사당패가 남도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활발히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호남의 경제 및 행정의 핵심지에서 적극적으로 공연 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2) 남도 사당패의 공연 양상

19세기 말 남도 지역에서 활동한 사당패의 공연 양상은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과 『계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 중 <박홍보가>에는 사당 거사들이 부르는 ‘염불’의 사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자료 3> 신재효본 <박홍보가> 중 일부

“나오던 중 상이로다, 너희들 장기대로

염불이나 잘하여라.”

사당의 거사 좋아라고, 거사들은 소고치고,

사당의 절차대로

연계사당이 먼저 나서, 발림을 곱게 하고,

“산천초목이 다 성림한데, 구경 가기 즐겁도다...”

...(중략)...

“이야, 잘 논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나?”

“초월이요”

“또 한 년 나서면서, 녹양방초 다 저문 날에 해는 엷디 더디 가며...”⁵²⁾

위 <자료 3>은 놀보가 박을 타는 장면이다. 놀보는 총 3번 툽질하는데, 첫 번째 통은 상전 통, 두 번째 통은 걸인 통이고, 세 번째 통이 사당 통이다. 세 번째 통에서 사당 거사가 나오자 놀보는 너희들(사당패) 장기대로 ‘염불’이나 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염불’이란 사당패소리의 총

51) 권도희, 앞의 글(2005), 15쪽.

52) 신재효 저, 김태준 역주, 앞의 책(1995), 214쪽.

칭을 뜻하는 단어다.⁵³⁾

남자 사당인 거사들은 소고를 친다고 묘사되어 있다. 거사들이 소고를 친 후, 사당의 절차대로 ‘연계사당’이 나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연계사당(영계사당)’은 나이 어린 애사당을 뜻하는 용어로 해석된다.⁵⁴⁾ 애사당은 발림을 곱게 하고 ‘산천초목이’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어 노래를 하는 사당의 이름이 ‘초월’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노래를 부르는 사당 여사당임을 알 수 있다. 즉, 나이 어린 여자 애사당이 먼저 서서 발림을 하고, ‘산천초목이’를 부르는 모습이 전통사회에서 전라도 지역의 사당패 공연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산천초목이’를 부를 때에는 서서 발림을 하고 소고를 치는데, 이러한 공연 양상은 현행 경서도 입창 <놀량>의 공연 형태와 유사하다.⁵⁵⁾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 중 《변강쇠가》에서도 사당패들이 ‘판놀음’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 4> 신재효본 《변강쇠가》 중 일부

판노름 차린 득기 가는 길 건너편에 일자로 느러 앉아 거사들은 소고치며 사당은 재차대로 연계사당 먼저 나서 발림을 곱게 하고.

“산천초목이 다 무성헌디 구경가기 즐겁도다. 어야이 장송은 낙낙, 기러기 펼 펼, 낙락장송이 아 떨어졌다. 어야어 성황당 궁벽 궁새야 이리가며 궁벽궁 저산으로 가며 궁벽궁 아무래도 네로구나.”⁵⁶⁾

위 <자료 4>의 사당패는 ‘판놀음’을 벌인다. 남자 사당인 거사들이 소고를 치고, 순서대로 여자 사당들 중 나이 어린 애사당이 먼저 발림을 한다고 묘사되어 있다. 사당패는 ‘판놀음’에 앞서 벽사와 축원의 기능을 갖는 노래를 부른 다음 유희적 성격의 노래를 부른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⁵⁷⁾ 당시 남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당패들도 축원적 기능을 갖는

53) 사당패소리를 <염불> 또는 <판염불>이라고 지칭했다.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30호 선소리 산타령(문화재관리국, 1966).

54) 신현남, 앞의 책(2017), 22쪽.

55) 신현남, 위의 책(2017), 28쪽.

56) 신재효 저, 김태준 역주, 앞의 책(1995), 343쪽.

<관염불>을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변강쇠가》에서는 축원적 성격을 갖는 <관염불>의 사설이 생략된 채 유희적인 성격을 갖는 ‘산천초목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확인된다.

‘산천초목이’는 앞서 살펴본 《박홍보가》의 인용문에 등장했던 사당패 소리 첫 구절과 동일하다. 19세기 후반기에는 현행 경서도 입창 <놀량>과 유사한 사설을 가진 악곡이 전국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⁵⁸⁾ 《변강쇠가》에 묘사된 사당패가 소고를 치며 서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경서도 사당패소리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현행 <경기 놀량>의 공연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산천초목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설이 현행 <경기 놀량>의 사설⁵⁹⁾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남도 지역에서 부르던 사당패소리 레퍼토리가 별도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계우사』에도 남도 사당패의 공연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계우사』에 등장하는 서울의 대방 왈자 김무숙은 평양의 선상 기생 의양을 만나고 혹하였다. 무숙이는 평양 기생 의양과 방탕하게 놀면서 뱃놀이를 하기 위해 삼남 지역의 일등 거사와 명창 집단을 부른다.

<자료 5> 『계우사』에 등장하는 사당패 근거지와 사당패 놀음
삼남의 제일 광대 심부름꾼을 급히 불러, 아무개 아무개 칠팔 명을 호사시켜 준비시키고, 좌우편 혼련도감의 포수 급히 불러 산대놀음 차릴 채비를 하고, 새 화복, 뱃놀이 때에 대령하라고 이천 낭씩 내어 준다. 정읍, 동막, 창평, 하동 목골, 함열 성불의 일등 거사, 명창, 사당 골라 빼어 이삼십 명을 하인 시켜 불러오고, 산대놀음 하는 때에 총융청에 악기 연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놀음할 날을 택하기를 칠월 십육일로 하였겠다.⁶⁰⁾

57) 이보형, 앞의 글(2006b), 5쪽.

58) 정현석이 진주 교방 문화를 기록한 문헌인 『교방가요(1872)』를 통해 19세기 말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도 사당패소리 <놀량>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끝부분에는 ‘잡요’ 항목에 <놀량>이 기록되어 있다. <놀량> 밑에 주석으로 ‘거리와 아이들과 종 녀석들까지도 이 노래를 잘 따라서 부를 줄 안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59) 현행 <경기 놀량>의 시작 부분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산천초목이요 속잎이 나니 구경 가자 에 좋구나 에에헤디여.”

위 <자료 5>에서 무숙이가 삼남의 제일 광대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일등 거사로 지목된 사당패가 남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당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자료를 통해 남도 지역의 사당패들은 일등 거사로 명명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력에 따라 차등이 매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도 사당패 중 일등 거사로 명명되는 일부 사당패는 서울까지 진출하여 명창들과 함께 공연 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계우사』에는 당시 서울에서 공연한 명창 광대와 사당패의 소릿값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주목된다. 아래 <자료 6>의 인용문은 『계우사』에서 무숙이가 한바탕 놀음을 한 뒤에 사당패와 명창 광대에게 소릿값을 내는 장면이다.

<자료 6> 『계우사』에 등장하는 사당패와 명창 광대의 소릿값
명창들의 소리 모두 듣고 십여 일 강산에서 싫증이 나게 놓고, 각기
값을 받을 적에, 좌우편 도감포수 각 천 냥씩 사례하고, 사당 거사
모두 불려 한 사람당 각 백 냥씩 치행 차려 다 보내고, 명창 광대
모두 불려 고생했다고 치하하고 한 사람당 칠백 냥씩 여장을 차려
다 보내고, 술과 안주 먹던 음식 허다한 음식 중에 산삼 정과 한 밥
이 좋다. 그 값인들 오죽하랴. 놀음에 들어간 돈을 셈해보니, 삼만
삼천 오백 냥이라.⁶¹⁾

명창 광대의 1인당 소릿값은 700냥, 사당패의 1인당 소릿값이 100냥으로 책정되었으며, 명창 광대의 소릿값이 사당패의 소릿값보다 일곱 배나 비쌌음을 알 수 있다. 판소리 창자는 사당패집단과 함께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서로 다른 공연 종목을 연행함에 따라 소릿값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던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판소리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 창우집단⁶²⁾ 출신의 창자들

60) 최혜진 교주, 앞의 책(2021), 52쪽.

61) 최혜진 교주, 앞의 책(2021), 54쪽.

62) 창우집단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보형, 「창우 집단의 광대소리 형성에 관한 고찰」(판

은 사당패와 마찬가지로 천민 신분이었으나 사당패와는 구분된 집단으로 존재했다.⁶³⁾ 사당패가 사찰을 근거지로 활동한 것과 달리 창우집단은 특수한 신분과 전문성을 전제로 장흥, 나주, 해남 등지에 창우조직을 별도로 형성(形成)하여⁶⁴⁾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즉, 19세기 말 일부 남도 사당패집단은 판소리 명창과 함께 공연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두 집단은 구분된 집단으로 별도의 공연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당패와 창우집단 출신 창자들의 소릿값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남도 <판염불>을 계승한 <보림>의 사설

사당패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회중을 축원하기 위해 <판염불>을 먼저 불렀는데, 남도 잡가 <보림>은 <판염불>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⁵⁾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잡가집에 <판염불>의 사설이 기록되어 있어 <보림>과의 연관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앞 절에서 19세기 말 경기 사당패와 구분되는 남도 사당패가 남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경기 사당패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악곡을 불렀음이 확인된바 남도 지역에서 부르던 <판염불>이 현행 <보림>으로 전승되었을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보림>의 사설을 분석해보겠다.

1) 경서도 <판염불>과 <보림>의 사설 비교

<보림>이 본래 사당패소리 중에서도 ‘축원’의 기능을 하는 <판염불>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잡가집에 기록된 <판염불>과 현행 <보림>의 관계가 주목된다. 잡가집에 기록된 <판염불> 중 축원적 성격을 갖고 있던 부분의 노래는 현재 탈락하여 전승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설 분석을 통해

소리학회 제42차 학술발표대회, 2003); 이보형, 「창우집단의 광대소리연구」, 『한국전통음악논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를 참조하였다.

63) 권도희, 앞의 글(2005), 13쪽.

64) 적송지성(赤松智城) 외, 『조선무속의 연구』(동문선, 1991), 272~281쪽.

65) 장사훈, 앞의 책(1961), 134쪽.

두 악곡의 관계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20세기 초 잡가집에 기록된 <판염불>과 현행 <보림>의 사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7> 잡가집에 수록된 <판염불>의 사설⁶⁶⁾

진군명산만장봉에청척삭출금부용 음도로음도로시법이라 나무어살바에동내
 라안산이라쥬산이라 좌우라도정용나무살바나무라도살바충청도라내포산에두
 루두루한랑님네 와계신데 막걸리여달동의걸녀스니 자시거나마거나 나무라
 도살바나무살바 일세동방에 절도령이세남방에득청통삼서방에부정토사세북
방에영안강 도령청정에무화례삼보철영에 강차지 아금지송에묘진언 나무라
 서살바나무살바
 산천초목이이여성님어나에구경가기에쫓코나 에에혜떡여네로구나나에에에혜야
 에혜떡여네혜에야 어어디이이이이얼네로구나말은네에야어이이놈말드러보라 노
 양버튼길로평양감영속드러간다 에에에혜이어네로구나아모려도네에로구나 락락
 장송느러진가지다떠러져 줄거리만남어지와자쥬홀시고어이놈말드러바라 청산괴
 영에올나황운을검쳐잡고에에이얼네구나 어린양자고흔소래눈의암암귀에쟁쟁 비
 나이다하나님전에님생겨달나지이다하고비나이다 락락장송느러진가지한마리는
 남게안고 또한마리들에안져체어다보며우름을올고내려구버보며우름을올다 해당
 화그늘속에비만미즌제비색기줄줄호늘거려거드러 거려셔노는사랑어화동동내사
 량이야 어화동동내간간이로구나

<자료 8> <보림>의 사설⁶⁷⁾

상래소수 공덕해요 회향삼처 실원만을 봉위 주상전하 수만세요 왕비전하
 수제년을 세자저하 수천추요 선왕선후 원왕생 제궁종실 각안령 문무백료
 진충량 도내방백 위익고 성주합하 증일품 국태민안 법륜전이라 나무천룡
 지신님네 동방화류 남방화류 서방화류 북방화류 오름이야 도름이야 천수천
 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법정진언의 음바라니 음바라요 대다라니 계청계수 관음보살 석가여
 래 문수보살 지장보살 음바라라니 음바라라요 음바라라니 음바라라요 앞도
 당산 뒤도주산 좌우천룡 수살맥이라 성황님네 나무천룡 지신님네 동에는
 청제지신 나무천룡 남에는 적제지신 나무천룡 서에는 백제지신 나무천룡

66) 정재호 편주, 「무쌍신구잡가」, 『한국속가전집2』(다운샘, 2014), 521쪽.

67) 성경린·장사훈, 『조선의 민요』(국제음악문화사, 1949), 249~251쪽.

북에는 흑제지신 나무천룡 중앙에는 황제지신 나무천룡 지신님네 아미 일
 쇠동방 결도장 이쇄남방 득청량 삼쇄서방 구정토로다 사쇄북방 영안강이
 로다 나무천룡 지신님네 도장청정 무애경 삼보천룡 강차지 아금지송 묘진언
 원사자비 밀가호 아석소조 제악업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나무아미타불

잡가집에 기록된 <관염불>과 <보림>의 사설이 일부 공유되어 경기 사
 당패소리 <관염불>에서 <보림>이 파생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⁶⁸⁾
 그러나 잡가집에 기록된 <관염불>과 현행 <보림>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
 재하던 악곡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잡가집에 기록된 <관염불>과 현행 <보림>이 공유하고 있는 사설
 은 《천수경》 중 <개경계>에 해당하는 8구이다. 《천수경》 중 <개경
 계>는 불교에서 불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암송하는 기본적인 계에 해당
 한다.⁶⁹⁾ 《천수경》은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계이고⁷⁰⁾
 무가에도 해당 사설이 빈번히 나타나는⁷¹⁾ 계이다. 따라서 잡가집에 기록

68) 이보형은 『무쌍신구잡가』에 기록된 <관염불>의 사설이 남도 사당패소리의 전통을 이
 은 남도 잡가 <보림>, <화초사거리>와 사설이 내용이 일부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경기사당패의 ‘축원 염불’이 남도 사당패의 ‘축원 염불’과 유사점이 있을 것으
 로 추측한 바 있으나, 경기 사당패의 ‘축원 염불’이 현재 탈락하여 구명은 불가능하
 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보형, 「조선말기 사찰 밖의 불교 음악개관」, 『한국전통음악
 학』 제6호(한국전통음악학회, 2005), 500쪽.

69) 현행 《천수경》은 천수다라니 앞뒤로 <정구업진언> 등의 진언과 <개경계>·<사방
 찬>·<도량찬>·<참회계>·<준제진언찬>·<여래십대발원문>·<발사홍서원>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교의식에 이 경이 보편적으로 독송되고 있다. 임
 니나, 「무가에서 천수경의 기능과 음악적 특징」, 『국악원논문집』 제32호(국립국악원,
 2015), 39~43쪽.

70) 《천수경》은 천 개의 손과 눈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
 으로, 《천수경》 류의 경전은 통일신라 당시 당나라에서 유학한 승려들이 귀국하면
 서 우리나라에 전래 되었다고 전한다. 통일신라시대 유학승에 의해 유입된 《천수경
 》 류의 경전 중에서 한국에 최초로 유입된 것은 671년 의상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으로 알려져 있다. 하태완, 「현행
 천수경의 오기에 대한 고찰」, 『동국사상』(동국대학교, 1986), 140쪽; 임니나, 「무가
 에서 『천수경』의 기능과 음악적 특징」, 『국악원논문집』 제32호(국립국악원, 2015),
 39~42쪽 재인용.

71) 임니나, 위의 글(2015), 39쪽.

동해안 오구곳에도 ‘관염불’이 사설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서정매, 「동해안
 오구곳 중 관염불에 나타난 불교음악의 영향 : 김장길의 소리를 중심으로」, 『공연문

된 <관염불>이 《천수경》 사설을 <보림>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림>이 경서도 사당패소리의 <관염불>과 관련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경서도 사당패소리의 <관염불>보다 <보림>에 불가의 요소가 많다. 불경의 양을 따지자면 경서도 <관염불>은 《천수경》 중 <개경계>만 포함하고 있지만, <보림>은 《천수경》의 <개경계>뿐만 아니라, <사방찬>과 <도량찬>, <참회계>도 포함하고 있다.⁷²⁾ <보림>이 잡가집에 수록된 <관염불>보다 《천수경》의 사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문의 양 또한 많다는 점⁷³⁾에서 잡가집에 기록된 경서도 사당패의 <관염불>에서 <보림>이 유래했다고 보기 힘들다.

셋째, 경서도 사당패소리 <관염불>은 유희적 성격을 갖는 ‘산천초목이’ 이하 사설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림>의 사설은 축원적 성격만 갖고 있다. 20세기 이후 경서도 사당패소리 <관염불> 중 축원적 성격을 갖는 부분은 탈락했고, 유희적 성격을 갖는 ‘산천초목이’ 이하의 사설 부분만 <놀량>이라는 곡으로 전승되고 있다. 반면 <보림>은 유희적 성격의 사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축원적 성격을 간직한 채 전승되었다.

요컨대 경서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당패의 <관염불>과 남도 지역의 사당패가 부르던 남도 <관염불>은 독립적으로 존재했으므로 20세기 초에 서로 다른 전승 양상을 갖게 됐다고 정리할 수 있다. 경서도 사당패소리와 남도 사당패소리가 서로 다른 전승 경로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는 이보형의 구술 자료가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9> 이보형의 사당패소리 관련 증언

전통사회에서는 공연 집단에서 재담을 하던 건데, 그런 재담 문화가 인제 깔려 있는 거지. 사당패소리가 광대소리로 넘어가 가지고 남쪽 지방의 그 입창이 되었잖아. 보림, 사거리, 화초 사거리 이런 거. 그리고 서울에서는 사당패소리가 마을 소리꾼들한테 넘어가서 선소리 산

화연구』 제34권(한국공연문화학회, 2017)이 있다.

72) 김삼진, 앞의 글(1996), 110~111쪽.

73) 김삼진, 위의 글(1996), 112쪽.

타령이 돼. 그런데 선소리 산타령이 되면서 소리만 간 것이 아니라 재
담도 갔을 거거든.⁷⁴⁾

신지대의 이보형 대담 (2009년 4월 9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이보형 자택)

위 <자료 9>에 의하면 남쪽 지방에서 활동하던 사당패의 소리는 광대소
리로 넘어간 후 남도입창 <보렴>, <화초사거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
다.⁷⁵⁾

즉, <보렴>은 경서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남
도 지역의 사당패가 독자적으로 부르던 <판염불> 중 축원적 성격을 가진
사설 부분이 <보렴>으로 전승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도 <판염불>에서 기원한 <보렴>의 사설 분석

남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보렴>과 <화초사거리>를 불렀음이 확인되
는바⁷⁶⁾, <보렴>의 사설 분석을 통해 <보렴>이 남도 지역의 선염불이나
남도 무가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⁷⁷⁾에서 <보렴>의 사설을 분석할 때 장단을 기준으로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설의 내용상 같은 주제를
노래한 경우에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할

74) 신지대, 「박춘재 재담소리의 작품세계」(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0쪽에서 재
인용.

75) 단, 이보형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보렴>은 전통사회의 창우집단이 광대소
리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 판소리 창자들이 민간협률사 활동을 시작
하면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Ⅲ장에서 면밀히 다루
어보겠다.

76) 남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보렴>을 불렀음을 시사해주는 이보형의 구술 자료를 인
용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대치의 장마당이나 마을의 큰 마당으로 다니며 소리
판을 벌이던 소리꾼들이 있었다. 소고를 치며 춤추고 노래하던 이 소리꾼들의 소리
는 고장마다 달랐는데, 전라도에서는 먼저 보렴이나 화초사거리와 같은 염불 소리를
부르고 나서, 육자배기, 흥타령, 개구리타령 따위의 짧은소리를 불렀고, 끝에는 새타
령이나 까투리타령 그밖에 시속으로 부르는 갖가지 소리를 때에 맞추어 불렀다.” 이
보형, 『브리테니커 팔도소리(전라도 소리)』(한국브리테니커, 1984), 9쪽.

77) 김삼진, 앞의 글(1996).

<보림> 사설78)의 단락 구분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보림> 사설의 단락 구분

단락 구분	사설
제1단락	상래소수 공덕해요 회향삼처 실원만을 봉위 주상전하 수만세요 왕비전하 수제년을 세자저하 수친추요 선왕선후 원왕생 제궁종실 각안령 문무백료 진충량 도내방백 위익고 성주합하 증일품 국태민 안 법률편이라 <u>나무천룡 지신님네</u>
제2단락	동방화류 남방화류 서방화류 북방화류야 오름이야 두름이야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 겁 난조우 법정진언의 옴바라니 옴바라요 대다라니 게척계수 관음보 살 석가여래 문수보살 지장보살 옴바라라니 옴바라라요 옴바라라니 옴바라라요 앞도당산 뒤도주산 좌우천룡 수살맥이라 성황님네 <u>나무 천룡 지신님네</u>
제3단락	동에는 청제지신 나무천룡 남에는 적제지신 나무천룡 서에는 백제지 신 나무천룡 북에는 흑제지신 나무천룡 중앙에는 황제지신 <u>나무천룡 지신님네</u>
제4단락	아미 일쇄동방 결도장 이쇄남방 득청량 삼쇄서방 구정토로다 사쇄 북방 영안강이로다 <u>나무천룡 지신님네</u>
제5단락	도장청정 무애경 삼보천룡 강차지 아금지송 묘진언 원사자비 밀가호 아석소조 제악업 중신구의 지소생이라 <u>나무아미타불</u>

위와 같이 <보림>의 사설을 다섯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경
우 매 단락의 끝에는 ‘나무천룡 지신님네’ 또는 ‘나무아미타불’의 종지어
구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1) 제1단락(상래소수)의 사설 내용

<보림> 제1단락의 사설은 『승가일용집(1869)』과 한만영의 『불교음악연
구』의 고사 염불 사설79)에서도 확인되는데, 불교의 대표적인 축원 사설
로 알려져 있다. <보림>의 제1단락에 등장하는 ‘나무천룡 지신님네’라는

78) 성경린·장사훈, 앞의 책(1949), 249~251쪽.

79) 한만영, 『불교음악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125쪽.

사설은 스님들이 축원할 때 부른다면 ‘나무아미타불’이 옳을 것이나 민간 신앙과 융화된 사당패나 걸립패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나무천룡 지신님네’라고 부른다고 볼 수 있다.⁸⁰⁾

[표 4] <보림> 제1단락(상래소수)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보림	상량문 ⁸¹⁾	절 걸립패의 고사 선염불 ⁸²⁾
상래소수 공덕해요 회향삼처 실원만 <u>봉위 주상전하</u> <u>수만세요</u> <u>왕비전하 수제년을</u> <u>세자저하 수천추요</u> 선왕선후 원왕생 제궁종실 문무백료 진충량 도내방백 위익고 성주합하 증일품 <u>국태민안 법륜전이라</u> 나무천룡 지신님네	<u>봉위 주상전하 수만세요</u> <u>왕비전하 수제년을</u> <u>세자저하 수천추요</u> <u>국태민안 법륜전</u>	<u>국태민안 법륜전</u> 화청 년례 년년이 돌아든다 이씨 한양 등극 시 삼각산 기봉하야 봉학이 주춤 생겼구나 봉 놀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 육조다리

사설을 분석해 본 결과 <보림>의 제1단락 사설은 불교의 축원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절의 상량문에도 일부 발견되며 절 걸립패가 부르는 <고사 선염불>과도 일치함을 알아내었다. 상량문은 전통사회에서 행해지는 건축 과정에서 행해지는 제의에 쓰이는데, 목조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최상부 부재인 마루도리를 올릴 때 사용하는 축원문이다.⁸³⁾ 건축

80) 김삼진, 앞의 글(1996), 109쪽.

81) 해당 상량문은 1618년에 중축된 법주사 대웅보전의 중수 상량문으로 삼전축원문의 대표성을 띤다고 판단하여 예시로 든 것이다. 해당 상량문의 출처는 문명대 외, 『조선시대 기록문화재 자료집I』(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2011), 350쪽이다.

82) 한만영, 앞의 책(1981), 125쪽.

83) 서치상,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5권(한국건축역사학회,

과정에서 마루도리를 올리면 구조체가 완성되고 동시에 성주신이 탄생한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한다.⁸⁴⁾ 절이 중축될 때 사용되는 상량문에는 대개 주상 전하, 왕비 전하, 세자 저하의 안녕을 비는 삼전축수문⁸⁵⁾이 포함되어 있으며, 삼전축수문은 18세기까지 불교에서 의례적으로 사용되던 축원문으로 알려져 있다.⁸⁶⁾ 이로써 현행 <보림>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림>의 제1단락과 사설이 일부 공유되고 있는 <고사 선염불>은 절 걸림패 계통의 고사소리로 알려져 있다.⁸⁷⁾ 불교에서는 사찰의 건립을 위해 민간인들을 고용하여 걸림패를 조직한 후 걸림패는 ‘건립’을 다니며 염불을 하고 재물을 거두었다고 한다.⁸⁸⁾ 조선 후기에 불교가 쇠퇴하자 사찰에서는 사찰 운영의 자금을 충당하고 더 많은 시주를 걷기 위해 기예에 출중한 창우집단으로 구성된 걸림패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⁹⁾

절 걸림패가 부르는 <고사 염불>은 <고사 선염불>과 <고사 뒷염불>이 있는데, 이 중 <고사 선염불>이 창우집단의 <고사소리>에서 나온 것이다.⁹⁰⁾ <보림>의 제1단락 사설이 절의 상량문과 절 걸림패의 <고사 선염불>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보림>의 사설은 불교뿐 아니라 창우집단과 관련된 무속 신앙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 58쪽.

84) 강영환, 『집의 사회사』(웅진출판, 1992).

85) 삼전축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主上殿下壽萬歲, 慈宮邸下壽萬歲, 王妃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萬歲.”

86) 강관식, 「용주사 <삼세불회도>의 축원문 해석과 제작시기 추정」, 『미술자료』 제9집(국립중앙박물관, 2019), 168~176쪽.

87) 손태도, 「광대 고사 소리에 대하여」, 『한국음악학』 제11호(한국고음악학회, 2001), 73쪽.

88) 손태도, 위의 글(2001), 73쪽.

89) 이보형, 위의 글(2005), 498쪽.

90) 이보형, 위의 글(2005), 500쪽.

(2) <보림> 제2단락(동방화류)의 사설 내용

다음으로 <보림>의 제2단락 사설을 분석해보겠다. <보림>의 제2단락 사설을 제시하면 이하 [표 5]와 같다.

[표 5] <보림> 제2단락(동방화류)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보림	전라북도 부안 오구 씻김굿 ⁹¹⁾	천수경 중 개경계 ⁹²⁾
<p>동방화류 남방화류 서방화류 북방화류 오름이야 도름이야 <u>천수천안 관자재보살</u> <u>광대원만 무애 대비심</u></p> <p><u>무상심심 미묘별</u> <u>백천만겹 난조우</u> <u>아금문견 득수지</u> <u>원해여래 진실의</u> 법정 진언의 옴바라니 옴바라요 <u>대다라니 계청계수</u> <u>관음보살</u> 석가여래 문수보살 지장보살 옴바라니 옴바라요 옴바라니 옴바라요 앞도 당산 뒤도 주산 좌우천룡 수살맥이라성황님네 나무천룡 지신님네</p>	<p>좋은 염불 받으시고 천수 염불 받으시면 천하가 감동하여 이 세상의 지은 죄는 영영이 씻는 염불이요 왕생극락하는 염불이요 <u>천수천안 관자재보살</u> <u>광대원만 무애대비심</u></p> <p><u>대다라니 계청계수</u> <u>관음대비주</u></p>	<p><u>무상심심 미묘별</u> <u>백천만겹 난조우</u> <u>아금문견 득수지</u> <u>원해여래 진실의</u></p>

김삼진과 한만영의 연구에⁹³⁾ 따르면 <보림>의 제2단락 사설은 불교에서 스님들이 나라를 위해 축원을 할 때 쓰이는 축원문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한다. <보림>의 제2단락 사설에는 불교 용어와 무속 신앙적인 용어가 혼합되어있다.

<보림>의 제2단락 사설 중 ‘무상심심 미묘법~진실의’는 불교 경전 《천수경》 중 <개경계>⁹⁴⁾와 일치하여 <보림>의 불가적 성격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천수경》은 무가 사설에 빈번히 구송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⁵⁾

주지하다시피 조선 말기 불교가 쇠퇴하자 사찰은 원활한 모금 활동을 위해 창우집단을 절 걸립패로 고용하여 시주를 모금했는데⁹⁶⁾, 절 걸립패는 모금을 위해 민가로 떠돌아다니며 《천수경》을 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⁷⁾ <보림>의 제2단락 사설이 《천수경》 중 <개경계>와 일치한다는 점은 <보림>이 단순히 불교와의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우집단과 관련된 무속 신앙의 축원 사설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림>의 사설에 등장하는 ‘나무천룡’, ‘당산’, ‘성주’, ‘주산’ 등의 단어 또한 무속 신앙과 관련된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옴바라니’는 불교에서 쓰이는 진언⁹⁸⁾이다. 이처럼 <보림>의 사설에는 불교적 요소뿐 아니라 무속 신앙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신앙에 사용되는 고사소리와

91)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출판무악(문화재관리국, 1970), 582~584쪽.

92) 박경신, 김구한, 김옥숙, 정아용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안영시의 제보, 조사일: 2010.02.26.

93) 김삼진, 앞의 글(1996), 109쪽.

한만영은 <보림>의 제2단락 사설의 내용을 동서남북의 부정을 가신다는 ‘벽사(僻邪)’의 노랫말로 보았다. 한만영, 앞의 글(1991), 138쪽.

94) 《천수경》의 서두는 <정구업진언>,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개경계>, <개법장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개경계>의 사설에 해당하는 ‘무상심심미묘법~진실의’의 사설이 <보림>의 제2단락에 나타난다.

95) 임이나, 앞의 글(2015).

96) 이보형, 앞의 글(2005), 498쪽.

97) 한만영, 앞의 책(1981), 125쪽.

98) 부처님의 덕이나 가르침을 간직한 비밀의 어구를 뜻해 범어 그대로 외우는 불교주문을 뜻한다. 불교성전편찬회, 『불교용어사전』(문예마당, 2007), ‘진언’ 항목 참조.

불가에 사용되는 진언 모두 오랜 기원을 갖는 의식 음악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림>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불려온 남도 <관염불>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림>의 사설은 축원을 위해 부르던 상량문, 무가나 고사소리에 사용되던 여러 사설이 조합되어 있으므로 잡가의 특징⁹⁹⁾을 갖는다.

(3) <보림> 제3단락(동에는)의 사설 내용

다음으로 <보림>의 제3단락 사설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하 [표 6]은 <보림>의 제3단락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6] <보림> 제3단락(동에는)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보림	진도씻김굿 조왕반 ¹⁰⁰⁾	맹인덕담경 ¹⁰¹⁾
동에는 청제지신 나무천룡	동에는 청제지신 나무천룡	동에는 청제지신 나무천룡
남에는 적제지신 나무천룡	남에는 적제지신 나무천룡	남에는 적제지신 나무천룡
서에는 백제지신 나무천룡	서에는 백제지신 나무천룡	서에는 백제지신 나무천룡
북에는 흑제지신 나무천룡	북에는 흑제지신 나무천룡	북에는 흑제지신 나무천룡
중앙에는 황제지신 나무천룡 지신님네	중앙에는 황제지신 나무천룡 지신님네	중앙에는 황제지신 오방제신 하감하사 소원성취 발원이요

<보림>의 제3단락 사설은 진도씻김굿, <맹인덕담경> 등 축원 의식에 사용되는 사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보림>의 제3단락의 사설은 불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림>의 기원이 되는 남도 사당패의 <관염

99) 김학성, 『잡가 사설 특성에 나타난 구비성과 기록성』(태학사, 1999), 322쪽.

100) 국립국악원, 「진도씻김굿」, 『한국음악』 제34집(국립국악원, 2003), 216쪽.

101) 박춘재 소리, <맹인덕담경>, 『무쌍신구잡가』(오성서관, 1915), 60쪽; 정재호 편주, 『한국속가전집2』(다운샘, 2014) 참조.

불>은 삼남 지역의 무가, <맹인덕담경>을 포함한 다양한 축원 의식에 사용되던 <고사소리>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 [표 6]의 진도씻김굿 <조왕반>의 ‘조왕’은 아궁이에 있는 화로나 불, 부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전국적으로 분포 양상을 보이며 가중팔신(家中八神) 중 성주신, 터주신과 함께 가장 큰 신이다.¹⁰²⁾ 창우집단 중 고사를 전문으로 하는 고사 광대가 고사를 지낼 때, 조왕반, 성주신, 터주신을 위한 고사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림>은 창우집단이 연행하던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단락의 사설은 20세기 초 잡가집에 경기 소리꾼 박춘재 구술로 전하는 <맹인덕담경>의 앞부분과도 일치한다. 박춘재는 맹인이 축원하는 모습이나 무당을 흥내 내는 재담을 주로 공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³⁾ <보림>의 제3단락 사설은 박춘재가 흥내 내는 <맹인덕담경>에 등장할 정도로 무의식의 대표성을 띠는 축원 사설임을 알 수 있다.

(4) <보림> 제4단락(일쇄동방)의 사설 내용

다음으로 <보림>의 제4단락을 분석해보겠다. <보림>의 제4단락의 사설이 타 장르 소리와 사설을 공유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7] <보림> 제4단락(일쇄동방)과 타 장르 소리의 사설 공유 양상

보림	《천수경》 중 <사방찬>	동해안 별신굿 중 삼한세존굿 ¹⁰⁴⁾	경상남도 울주군 무가 중 <성주풀이> ¹⁰⁵⁾	경상북도 봉화군 무가 중 <성주거리> ¹⁰⁶⁾
아미 일쇄동방 결도장 이쇄남방 득청량	일쇄동방 결도량 이쇄남방 득청량	일쇄동방 결도장 이쇄남방 득청량	일쇄동방 결도량 이쇄남방 득청량	일쇄동방 결도량 이쇄남방 득천장

102) 이능화 저,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창비, 2008).

103) 손태도, 「경기 명창 박춘재론」, 『한국음악학』 제7호(한국고음악연구회, 1997), 159쪽.

삼쇄서방 구정토로다 사쇄복방 영안강이로다 나무천룡 지신님네	삼쇄서방 구정토 사쇄복방 영안강	삼쇄서방 구정토로다 사쇄복방 영안강이로다 나무철용 지신님네	삼사서방 구정토 사쇄복방 영안강	삼쇄서방 구정토 사쇄복방 여한강
---	----------------------------	---	----------------------------	----------------------------

위 [표 7]에서 <보림> 제4단락 중 ‘일세동방결도장~사쇄복방연양강’은 《천수경》 중 <사방찬>에 해당한다.¹⁰⁷⁾ 또한 <보림>의 제4단락 사설은 동해안 별신굿 중 삼한 세존 굿의 사설과 일치하였다. 삼한 세존 굿은 소리 중에 아니리와 동작이 연출된다는 점에서 광대소리와 비슷해지는 과정에 있는 굿이라고 알려져 있다.¹⁰⁸⁾

다음으로 경상남도 울주군 절 걸립패들이 부르는 지신밟기 중 <성주풀이>의 사설과 <보림>의 사설이 일치함을 밝혀내었다. 지신밟기는 정월 초부터 대보름 전까지 마을 공간이나 가정을 돌며 고사를 지내고 풍물을 올리는 세시풍속으로¹⁰⁹⁾, 마을 굿에서 무당이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는 걸립 굿의 과정과 유사하다.

<보림>의 사설이 경상북도 봉화읍 무가 중 <성주거리>의 사설과도 일부 일치함을 알아내었다. 해당 곡은 경상남도 해안 지방에서 부녀자들이 중심으로 형성된 절 걸립패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전통을 가지고 불려오던 곡이라고 한다.¹¹⁰⁾

104) 이균옥, 『동해안 별신굿의 전승양상』(국립민속박물관, 2009), 498쪽.
 105) 임재해, 강금희, 김명자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성주거리>,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이춘옥의 제보, 1982.12.20.
 106) 류종목, 신창환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지신밟기> 경상남도 울주군 강동면, 김봉금의 제보, 1984.07.23.
 107) 김삼진, 앞의 글(1996), 110쪽.
 108) 이보형, 앞의 글(2003), 96쪽.
 109) 박기현, 「수영지신밟기의 연행적 특징과 명인들」, 『영남춤학회지』 제8권(영남춤학회, 2020), 105쪽.
 110) 해당 구술 자료에는 “해안 지방에서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된 걸립패를 간혹 볼 수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설에만 노는 것이 아니고 정월 보름과 추석 때에도 논다는데, 성주풀이→조왕풀이→장독간풀이→마굿간풀이→샘풀이→마당풀이 순으로 불렀다. 가사를 비교적 잘 기

(5) <보림> 제5단락(도장청정)의 사실 내용

마지막으로 제5단락을 분석해보겠다. <보림>의 제5단락 사실과 타 장르 소리의 사실 공유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8] <보림> 제5단락(도장청정)과 타 장르의 사실 공유 양상

보림	《천수경》 중 <도량찬>, <참회계>	동해안 별신굿 중 삼한세존굿 ¹¹¹⁾	경상남도 울주군 무가 중 <성주풀이> ¹¹²⁾	경상북도 봉화군 무가 중 <성주거리> ¹¹³⁾
도장청정	도량청정	도장청정	도장청정	도량청정
무애경	무하예	무애경	무하예	무하예
삼보천룡	삼보천룡	삼보천룡	삼보천룡	삼보천룡
강차지	강차지	강차지	강차지	강차지
아금지송	아금지송	아금지송	아금지송	아금지는
묘진언	묘진언	묘진언	묘진언	모재는
원사자비	원사자비	원사자비	원사자비	원사자비
밀가호	밀가호	밀가호	밀가노	밀가호
아석소조	아석소조	아석소조	아석소조	
제약업	제약업	제약업	제약업	
종신구의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종신구개	
지소생이라	종신구의 지소생	지소생이라	지소생	
나무아미타불	일체아금 개참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보림>의 제5단락 사실은 《천수경》 중 <도량찬>, <참회계> 사실이

억하고 있었다. 위 제보자는 걸립패의 상쇠였다.”라고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류종목, 신창환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지신밟기> 경상남도 울주군 강동면, 김봉금의 제보, 조사일: 1984.07.23.

111) 이균옥, 앞의 책(2009), 498쪽.

112) 임재해, 강금희, 김명자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성주거리>,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이춘옥의 제보, 1982.12.20.

113) 류종목, 신창환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지신밟기> 경상남도 울주군 강동면, 김봉금의 제보, 1984.07.23.

일치하고¹¹⁴⁾ 제4단락과 동일하게 무가 중 동해안 별신굿¹¹⁵⁾을 포함한 삼남 지역 무가의 사실과 일치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위 [표 8]에서 <보림>의 사실 중 ‘도장청정무애경~원사자비밀가호’는 《천수경》 중 <도량찬>이고, ‘아석소조~지소생’은 《천수경》 중 <참회계>에 해당한다.

<보림>의 제5단락 사실은 제4단락과 마찬가지로 삼한세존굿,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무가 중 <성주풀이>, 경상남도 울주군 강동면 지신밧기 중 <성주거리>의 사실과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보림>은 불경인 《천수경》의 영향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상량제에 사용하는 상량문, 절 걸림패의 <고사 선염불>, <맹인덕담경> 및 삼남 지역의 무가 등 다양한 축원의 기능을 갖는 고사소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절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보림>과 타 장르 소리의 사실 공유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보림> 제1단락~제5단락과 타 장르 소리의 사실 공유 양상

<보림>의 단락	사실 공유 양상
제1단락(상래소수)	상량문, 절 걸림패의 고사 선염불
제2단락(동방화류)	천수경 중 개경계, 전라북도 부안 오구 씻김굿
제3단락(동에는)	전라남도 진도씻김굿, 맹인덕담경
제4단락(일쇄동방)	천수경 중 사방찬, 동해안 별신굿, 경상남도 울주군 성주풀이, 경상북도 봉화군 성주거리
제5단락(도장청정)	천수경 중 도량찬, 참회계 동해안 별신굿, 경상남도 울주군 성주풀이, 경상북도 봉화군 성주거리

<보림>의 사실이 절 걸림패에 소속된 창우집단의 고사소리와 불교의 축

114) 김삼진, 앞의 글(1996), 111쪽.

115) 동해안 오구굿에는 ‘관염불’이 사실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서정매, 『동해안 오구굿 중 관염불에 나타난 불교음악의 영향 : 김장길의 소리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34권(한국공연문화학회, 2017)이 있다.

원 의식, 무가 중 어느 것에서 처음 파생되었는지 선후 관계를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보림>의 사설이 《천수경》, 절 걸립패 소속 창우집단의 <고사 선염불>, 삼남 지역의 무가 등 다양한 축원 의식과 관련한 악곡들과 사설을 공유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보림>의 사설은 경서도 사당패의 <관염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남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삼남 지역의 <관염불>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절에서 이루어진 <보림>의 사설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남도 사당패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삼남 지역에서 축원을 위해 부르던 <고사소리>를 수용하여 <관염불>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당패의 <관염불>에서 기원한 <보림>의 사설이 삼남 지역의 무의식 관련 사설과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림>은 20세기 이전부터 삼남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던 남도 사당패의 <관염불>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림> 사설의 잡가적 특성이다. 잡가의 사설은 유기적 긴밀성을 확보하기 힘든 반면, 당시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텍스트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¹¹⁶⁾ <보림>은 절 걸립패가 제 의식에 사용하던 고사소리, 삼남 지역의 무가 사설 등 다양한 축원 의식에 사용되는 사설들이 조합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보림> 사설의 특징은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사설들을 조합하여 여기저기서 엮어가는 방식으로 사설을 만들어나가는 잡가의 특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116) 김학성, 앞의 책(1999), 322쪽.

Ⅲ. 20세기 초 판소리 창자의 <보림> 수용 배경과 <보림>의 남도 잡가화 과정

19세기 후반 일등 거사로 명명되던 일부 남도 사당패의 경우 서울까지 와서 판소리 명창과 공연 활동을 펼쳤으나, 창우집단과 사당패집단의 소릿값은 구분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0세기 초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1910년대에는 판소리 음악문화가 침체됨에 따라 일부 통속성을 추구한 판소리 창자들은 민간협률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사당패소리이던 남도 잡가까지 수용하였다.¹¹⁷⁾ 특히 송만갑의 남원협률사 소속 판소리 창자들이 남도의 사당패소리 <판염불>을 수용하여 <보림>으로 개작한 정황이 있어 1910년대 송만갑의 남원협률사 소속 창자들의 공연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겠다.

1920년대부터는 판소리 창자들이 유성기음반에 현행 <보림>에 해당하는 곡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경성방송국 라디오 방송에서도 판소리 창자들이 남도 잡가의 한 곡으로 <보림>을 부른 사실이 확인된다. 대중매체의 기록을 통해 <보림>이 판소리 창자에게 남도 잡가의 한 곡으로 수용된 이후의 가창 양상을 살펴보겠다.

1. 19세기 말~20세기 초 공연 환경의 변화와 남도 잡가의 유행

1898년 10월 22일 자 『독립신문』 기사를 통해 19세기 말부터 사당패와 관련한 용어는 여사당패, 거사, 사당패, 남사당패 등의 용어로 혼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17) 성기련, 앞의 책(2021), 67~74쪽.

<자료 10> 『독립신문』 1898년 10월 22일 기사¹¹⁸⁾

중과 굿중패와 거수와 녀사당패와 남사당패와 초란이와 솟대장이패와 산디패와 풍각장이 패 등군패의 구결이며 또 모든 병신 걸인비의 동냥이며 또 무슴 잡동산이라 칭 하고.

위 <자료 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당패는 남녀 혼성집단의 성격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사당패는 남사당패와 여사당패로 분화되었으며 솟대쟁이패, 초란이패 등 조선 후기의 민간예인집단과 한 무대에서 공연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사당패는 판소리 명창들과 함께 서울의 사설 극장 무대에서 공연하기 시작했음이 확인된다. 이 시기 광무대, 연흥사, 장안사 등 사설 극장의 공연에서는 하나의 종목만 공연되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 사당패의 기예, 기생들의 노래 등 다양한 공연 종목들이 한 무대에서 연행되었다.¹¹⁹⁾

<자료 11> 『매일신보』 1914년 3월 14일 기사¹²⁰⁾

[연극과 활동] ▲광무대 친구개량 제비타령 산옥 옥엽의 명창 판소리 사랑가 보지 못하던 유명한 땅재주 웃음거리 장님노름 기타 ▲연흥사 문수성 일행의 신과 정극 남아 흥행 ▲장안사 박타령 처음 보는 사당패 네 층 무동 요술 한량무 재미있는 별감타령 기타

위 <자료 11>을 통해 판소리 명창이 토막소리로 된 <박타령>을 불렀고, 사당패는 네 층 무동 타기를 공연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 공연 장소가 실내 극장 무대로 바뀐에 따라 여러 갈래의 공연 종목이 나열식으로 공연되었다.¹²¹⁾ 판소리 창자들은 관객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특정 대목을 골라 이를 토막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사당패는 네 층 무동 타

118) 『독립신문(서재필)』, 1898년 10월 22일자 기사, 1면 2단.

119) 백현미, 『한국창극사연구』(태학사, 1997), 97~98쪽.

120) 김영희,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민속원, 2006), 196쪽에서 재인용.

121) 정충권, 「20세기 초 극장무대 전통공연물의 향유방식」, 『고전문학과 교육』 제38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114쪽.

기와 같은 구경거리가 강조된 기예 위주의 종목을 공연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극장에서는 최소한 네 종목 이상을 공연했으며, 각 종목은 서로 내용상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적절히 섞어 선보였다고 한다.¹²²⁾

이 시기 전라도 출신 창부 중 광대소리와 사당패소리를 계승한 창부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사설 극장에서 남도 산타령과 잡가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³⁾ 대표적으로 남도 잡가를 부른 창부들로는 김정문, 장판개, 조진영 등이 있다.¹²⁴⁾ 이들은 ‘잡가꾼’ 또는 ‘육자백이꾼’으로 불리며 소고를 들고 발림을 하며 남도 잡가를 공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⁵⁾ 김정문과 장판개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판소리 명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잡가꾼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판소리 창자들이 남도 잡가를 수용하였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¹²⁶⁾ 이처럼 20세기 초에 이르러 판소리 명창들은 전통사회에서 부르지 않던 남도 잡가까지 수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910년대 남원협률사 창자들의 남도 <판염불> 수용 배경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판소리 공연 활동이 침체됨에 따라 판소리 명창들은 당시까지도 판소리 문화가 융성했던 호남 지역으로 내려가 민간 협률사를 조직하고 공연 활동을 펼쳤다.¹²⁷⁾ 이 당시 만들어진 민간협률사와 같은 가설극장은 전통 연희를 관람할 기회가 없던 지방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며 대성황을 이루었다.¹²⁸⁾

122) 정충권, 「1900-1910년대 극장무대 전통공연물의 공연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제16권(판소리학회, 2006), 261쪽.

123) 권도희, 앞의 글(2003), 123쪽.

124) 성기련·이보형, 「한승호 명창 대담」, 『판소리 연구』 제16권(판소리학회, 2003), 382쪽.

125) 이보형, 「화초사거리 연구」, 『한국음반학』 제17호(한국고음반연구회, 2007), 6쪽; 성기련·이보형, 위의 글(2003), 391쪽.

126) 성기련, 앞의 책(2021), 73쪽.

127) 성기련, 위의 책(2021), 60쪽.

128) 이태화, 「20세기 초 협률사 관련 명칭과 그 개념」, 『판소리연구』 제24권(판소리학회, 2007).

1910년대 활동한 다양한 민간협률사 중에서도 남도 사당패소리 <판염 불>을 수용하여 남도 잡가 <보렴>으로 개작해 부른 민간협률사는 송만갑이 이끈 남원협률사로 추정된다. 송만갑(1865~1939)은 남원협률사를 이끈 장본인으로, 통속성을 추구해 신(新)동편제를 창시한 인물이다. 송만갑은 서울 중앙 무대인 관립 극장 협률사가 폐지되자 1910년대부터 지방 순회공연을 위하여 남원으로 내려가 민간협률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⁹⁾

송만갑은 동편제 명창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소리 제를 무시하고 통속성을 반영하여 자신만의 소리관을 구축한 것으로 유명하다. 송만갑의 소리는 동편제의 법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굿’ 소리, ‘염불’ 소리라는 혹평을 받은 유명한 일화가 있다.¹³⁰⁾ 송만갑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름지기 소리라는 것이 주단포목과 같은 것이어서 비단을 원하는 사람에게 비단을 주고, 무명을 바라는 사람에게 무명을 골라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¹³¹⁾고 대응했다.

민간협률사의 공연 형태는 일반 서민들이 약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감상을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관심에 따라 공연의 성패가 결정되고 명창의 인기도 결정되었다고 한다.¹³²⁾ 서민들은 화려한 시김새와 애원성을 강조한 통속적인 소리를 선호하였는데,¹³³⁾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순응한 송만갑은 서민적인 미의식에 맞는 소리를 추구한 것이다.¹³⁴⁾ 송만갑은 동편제 명창임에도 불구하고 서편제에서 선호하는 계면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소리 명창이었으나 남도 잡가 <육자배기>를 자주 불렀다고 한다.¹³⁵⁾

송만갑은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는데 김정문, 이화중선, 박녹주, 김소희

129) 성기련, 앞의 책(2021), 60~62쪽.

130) 정노식, 『조선창극사』(조선일보 출판부, 1940), 162쪽.

131) 여기서 비단은 양반들이 원하는 절제된 소리이고, 무명은 거친 면처럼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일반 서민들의 취향을 비유한 것이다. 정노식, 위의 책(1940), 184쪽.

132) 최동현, 『판소리 이야기』(작가, 2001), 137쪽.

133) 최동현, 위의 책(2001), 138쪽; 이보형, 「판소리 공연문화의 변동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 『한국학연구』(고려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5), 311쪽.

134) 최동현, 『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민속원, 2010), 94쪽.

135) 성기련, 위의 책(2021), 74쪽.

가 대표적이며¹³⁶⁾ 이들 모두 일제강점기에 <보림>을 부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화중선은 1929년에 오늘날의 음악적 특징을 갖춘 <보림>¹³⁷⁾을 유성기음반에 최초로 녹음했고 박녹주와 김소희는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보림>을 불렀다.

송만갑의 제자 중에서도 김정문(1887~1935)은 판소리 명창임에도 불구하고 잡가꾼으로 명명될 정도로 남도 잡가를 잘 불렀는데, 그가 남원협률사에서 활동한 사실은 한승호 명창의 구술 자료¹³⁸⁾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정문은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에서 출생하여 외숙인 유성준에게 처음 판소리를 배우다가 이후 송만갑의 고수로 들어가 송만갑의 소리를 익히게 되었다.¹³⁹⁾ 김정문의 시김새는 송만갑의 소리에 비해 훨씬 시김새가 다양하여 장식음이나 잔 기교가 많다고 밝혀진바 있다.¹⁴⁰⁾ 민간협률사 공연 활동 중 통속성을 강조한 김정문의 소리는 이동백의 소리보다¹⁴¹⁾ 더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 12> 전인삼 대담 자료

당시에는 이동백 선생이 최고 명창이라고 그랬는데, 김정문 선생이 세 번 째가 나와 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김정문 선생 소리가 끝나고 나서 삼창 사창을 받고 나갔는데, 이동백 선생이 나가니까 이동백 선생이 들어가고 김정문 선생 나오라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렇게 대단했었대요.¹⁴²⁾

당시 민간협률사의 공연 방식은 정형화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가야금이나 대금으로 기악곡을 연주하고, 춤을 한바탕 춘 후 창극을 한 마당하고

136) 최동현, 『판소리란 무엇인가』(에디터, 1994), 164쪽.

137) 이화중선·이중선, <보림(상,하)>, [Victor KJ1340-A,B], 1929, (복각)[SRCD-1124].

138) 성기련·이보형, 앞의 글(2003), 392쪽.

139) 박황, 『판소리 이백년사』(사사연, 2001), 185쪽.

140) 성기련, 앞의 책(2021), 207쪽.

141) 이동백은 김정문과 함께 송만갑의 민간협률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황, 『창극사연구』(백록출판사, 1976), 64쪽.

142) 1966년 12월 24일 전인삼 제보. 국립민속국악원, 『동편제 명창과 남원의 소리전통』(국립민속국악원, 2002), 4쪽.

마지막에 그 협률사를 대표하는 소리꾼이 나와 판소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¹⁴³⁾ 이동백이 나간 후 김정문이 등장한 것을 보면, 당시 대중들은 이동백의 소리보다 김정문의 소리를 더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판소리의 주요 청중이 양반이었던 것¹⁴⁴⁾과 달리 20세기 초 민간협률사에서 진행된 판소리 공연은 일반 민중에 의해 그 흐름이 주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연 환경 가운데 송만갑의 소리관에 영향을 받은 김정문과 같은 남원협률사 소속 창자들이 남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의 사설을 수용하여 <보렴>이라는 곡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송만갑의 남원협률사 창자들이 남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을 수용하여 <보렴>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보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송만갑의 남원협률사에서 활동한 창자들이 부른 《홍보가》 중 <중타령>의 사설과 현행 <보렴> 중모리 사설 일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표 10] 유파별¹⁴⁵⁾ 《홍보가》 중 <중타령>과 <보렴> 사설 비교 결과

현행 <보렴> 중 중모리장단 사설	<보렴>을 수용한 경우		<보렴>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이선유 창 ¹⁴⁶⁾ (오가전집)	강도근 창 ¹⁴⁷⁾ (송만갑- 김정문 바디)	김연수 창 ¹⁴⁸⁾ (송우룡- 유성준 바디)	김창환 창 ¹⁴⁹⁾ (박유전- 정창업 바디)
상래소수 공덕해요	염불을 허는구나 관세음보살~~ 상래소수 공덕해요	염불을 허는구나 관세음보살~~ 상래소수 공덕해요	중하나 들어온다 중하나 들어온다 저 중의 거동보소 행색을 알 수	

143) 최동현, 앞의 책(2001), 137쪽.

144) 이보형, 앞의 글(1995), 267쪽.

145) 유파별 《홍보가》 계보는 최동현, 『판소리 이야기』(작가, 2001), 89~91쪽을 참조하였다.

<u>회향삼처</u> <u>실월만</u> <u>봉위 주상전하</u> <u>수만세요</u> <u>왕비전하</u> <u>수제년을</u> <u>세자저하</u> <u>수천추요</u> <u>신왕선후</u> <u>원왕생</u> <u>제공종실</u> <u>각안령</u> <u>문무백료</u> <u>진충량</u> <u>도내방백위익고</u> <u>성주합하</u> <u>증일품</u> <u>국태민안</u> <u>법륜전이라</u> <u>나무천룡</u> <u>지신님네</u>	<u>회향삼처</u> <u>실월만</u> <u>봉위 주상전하</u> <u>수만세요</u> <u>왕비전하</u> <u>수제년을</u> <u>세자전하</u> <u>수천추요</u> <u>국태민안</u> <u>법륜전이라</u> <u>나무아미타불</u>	<u>회향삼처</u> <u>실월만</u> <u>봉위 주상전하</u> <u>수만세요</u> <u>왕비전하</u> <u>수제년을</u> <u>세자전하</u> <u>수천추요</u> <u>국태민안</u> <u>법륜전이라</u> <u>나무아미타불</u>	없네 연년 묵은 중 허기 현 양어수견 미부면 초의불선 부불선 다 떨어진 흘치 송낙 이리로 총총 저리로 총총 수박같은 대구리에다 흠뻑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	--	--	--

《홍보가》 중 <중타령>은 신재효본 판소리 6마당 사설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20세기 초에 삽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0]을 통해 송만갑의 민간협률사에서 활동한 이선유가 부른 《홍보가》 중 <중타령>이 현행 <보림>의 사설과 일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146) 최난경 역주, 『이선유오가전집』(박이정, 2008).

147) 김기형 역주, 『동편제 거장 강도근 5가전집』(박이정, 1998).

148) 최동현 역주, 『김연수 완창 판소리 다섯바탕 사설집』(민속원, 2016).

149) 김창환, <중타령(상,하)>, [Regal C132-AB], 1934년. (복각)[SYNCD-103], 한국의 위대한 판소리 명창들 VII - 판소리 5명창 <김창환>, 킹레코드, 1996.

이선유(1873~1949)는 1910년대 송만갑의 남원협률사에 소속되어 김정문, 장관개, 이동백과 함께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¹⁵⁰⁾ 이선유가 부른 《홍보가》 중 <중타령>의 경우 송만갑 계열의 사설로 밝혀진바 있으며¹⁵¹⁾ 『오가전집』¹⁵²⁾은 1930년대 이선유가 부른 창본을 김택수가 받아 적은 것이다. 따라서 『오가전집』에 기록된 《홍보가》 중 <중타령>은 1910년대 송만갑의 남원협률사 창자들과의 활동을 마친 후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도근(1918-1996)이 부른 《홍보가》 중 <중타령>이 현행 <보림>의 사설과 일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강도근은 송만갑-김정문의 바디를 가장 잘 이어받은 명창으로 평가된다. 강도근은 세습 예인 집안 출신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리에서 태어났다.¹⁵³⁾ 그는 17세 때 2년간 남원시 주천면 상주마을에 살던 김정문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홍보가》를 공부했으며, 김정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송만갑에게 마저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¹⁵⁴⁾ 강도근은 《홍보가》를 자작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바¹⁵⁵⁾ 있어 강도근이 구사한 《홍보가》 중 <중타령>은 송만갑과 김정문의 소리를 이어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 동편제 계보는 유성준 바디와 송만갑 바디로 분화되는데, 유성준의 바디를 이어받은 김연수가 부른 《홍보가》 중 <중타령>에는 <보림>과 유사한 사설이 발견되지 않았다. 송만갑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성준(1974-1949)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려 했던 송만갑과 달리 동편제의 전통적인 법제를 충실히 이은 명창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⁵⁶⁾ 민간협률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⁷⁾

서편제 계보로 광주협률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김창환

150) 최난경, 「이선유 명창론」, 『한국음악연구』 제30집(한국국악학회, 2001), 167쪽.

151) 최난경, 위의 글(2001), 169쪽.

152) 김택수, 『오가전집』(대동인쇄소, 1933).

153) 최동현, 앞의 책(1994), 230쪽.

154) 최동현, 위의 책(1994), 231~232쪽.

155) 최동현·유영대, 『관소리 동편제 연구』(태학사, 1998), 349~350쪽.

156) 노재명,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본 판소리의 참모습』(나라음악큰잔치추진위원회, 2006), 68쪽.

157) 성기련·이보형, 앞의 글(2003), 386쪽.

(1854-1927)이¹⁵⁸⁾ 부른 《홍보가》 중 <중타령>의 사설과 현행 <보림> 사설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과별 《홍보가》 중 <중타령> 사설과 <보림>의 사설을 비교해본 결과 남원협률사와 관련한 창자인 이선유와 강도근이 부른 《홍보가》 중 <중타령>에서 <보림>의 사설과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1910년대 송만갑의 남원협률사 활동을 기점으로 판소리 창자들이 남도 사당패소리 중 축원적 성격을 갖는 남도 지역의 <판염불> 사설을 수용하여 부르기 시작했으며, 김정문으로 대표되는 남원협률사 소속 창자들이 남도 지역의 <판염불> 사설을 수용한 후 <보림>으로 개작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대중매체에 나타난 <보림>의 남도 잡가화 과정

1910년대 송만갑이 이끈 남원협률사 창자들에 의해 남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이 판소리 명창에게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920년대에는 판소리 창자들이 <보림>이라는 명칭으로 남도 사당패소리의 <판염불>을 가창하기 시작하였다. 남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이 판소리 창자에게 수용된 1920~40년대 대중매체에 나타난 <보림>의 가창 양상을 『한국유성기음반』¹⁵⁹⁾과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¹⁶⁰⁾의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겠다.

1) 유성기음반 자료 목록을 통해 본 판소리 창자의 <보림> 취입 양상

현행 <보림>에 해당하는 곡을 최초로 부른 판소리 명창은 송만갑의 아들 송기덕 명창으로 확인된다. 송기덕은 현행 <보림>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유성기음반으로 추정되는¹⁶¹⁾ <전라도 판염불가>를 1921년에 녹음

158) 박황, 앞의 책(1976), 46쪽; 성기련·이보형, 위의 글(2003), 373쪽.

159)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 (한결음더, 2011).

16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2000).

161) <전라도 판염불가>는 현재 음원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음악적 특징을 알 수 없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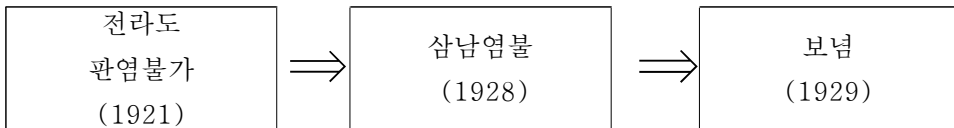
했다. 1920년대 유성기음반의 목록 중 현행 <보림>이 포함된 음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1920년대 <보림>의 유성기음반 목록

제작사 음반번호	발행 시기	분류	곡명	창자
넵보노홍 6226	1921	남도 잡가	전라도 관염불가	송기덕
넵보노홍 K126-A·B	1928	남도 소리	三南念佛	강남중·신진옥· 신연옥·신옥란
콜롬비아 40053-A	1929	제창	菩念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
빅타 KJ1340	1929	남도 잡가	보념(菩念) 上下	이화중선·이중선

위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보림>의 악곡 명이 정착되지 않았다. 1920년대에 남도 사당패소리 <관염불>의 명칭은 <전라도 관염불가> ⇒ <삼남염불(三南念佛)> ⇒ <보념(菩念)> 순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1920년대 <보림>의 악곡 명칭 변화 과정



송기덕의 <전라도 관염불가>는 ‘전라도’라는 지역 명칭을 악곡 명에 명시한 이유는 잡가집에 수록된 경기 사당패소리 <관염불>과 구분되는 ‘전라도’ 지역의 음악 어법으로 부른 <관염불>과 구분하기 위함일 것이다.

송기덕(1896-?)은 남원협률사 활동을 이끈 송만갑의 아들로 송 씨 집안 명창 출신이다. 송기덕은 1896년생이므로 송기덕이 유성기음반을 녹

<전라도 관염불가> 이후 백점봉에 의해 취입된 <삼남염불>의 사설이 현행 <보림>의 중모리 사설의 앞부분과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전라도 관염불가>와 <삼남염불> 모두 오늘날 <보림>의 전신으로 추정된다.

음하기 시작한 나이는 17세 경이다. 송기덕과 같이 어린 나이에 판소리 음원을 녹음한 전례는 없으므로, 송기덕이 해당 음원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인 송만갑의 주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⁶²⁾

1910년대 남원협률사 활동을 통해 <보렴>의 인기를 확인한 송만갑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따라 그의 아들 송기덕은 판소리 명창 중 최초로 <전라도 판염불가>를 유성기음반에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사회의 남도 지역에서는 명창들이 사당패소리를 잡가로 취급하며 부르지 않았고, 사당패와 판소리 명창이라는 두 집단 간의 구분이 분명했다. 이로 인해 당대 최고 명창 송만갑은 사당패소리에서 기원한 <판염불>까지 취급하지는 않았고, 그의 아들인 송기덕이 남도 사당패소리에 해당하는 <전라도 판염불가>를 판소리 명창 중에 최초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오래된 음원은 1928년 강남중 일행에 의해 취급된 <三南念佛(삼남염불)>¹⁶³⁾이다. 강남중(1900-?)은 명창 서편제 계보인 김창환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에서 활약한 명창이다. 그는 1928년 님보노홍 음반에 현행 <보렴>에 해당하는¹⁶⁴⁾ <삼남염불>을 녹음했다. 해당 음반은 송기덕이 부른 <전라도 판염불가>와 마찬가지로 '삼남'이라는 지역 명칭을 악곡 명 앞에 명시한 것으로 보아, 잡가집에 기록된 경서도 <판염불>과 구분되는 삼남 지역의 <판염불>을 따로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옥란·신진옥·신연옥은 님보노홍에서 강남중과 함께 유성기음반을 취급한 남도 명창이다.¹⁶⁵⁾

강남중·신옥란·신진옥·신연옥은 <삼남염불> 외에도 남도 지역의 음악 어법으로 부른 <삼남화초사거리>¹⁶⁶⁾, <삼남새타령>¹⁶⁷⁾등을 녹음하였다.

162) 이보형, 「송기덕 육자백이 음반 연구」, 『한국음반학』 제14호(한국고음반연구회, 2004), 4쪽.

163) 강남중·신진옥·신연옥, <삼남염불2(봉위주상전하수만세)>, 님보노홍 K126-A.
강남중·신진옥·신연옥, <삼남염불3(관음보살석가여래)>, 님보노홍 K126-B.

164) 강남중이 취급한 <삼남염불(2)>의 사설은 '봉위 주상전하만세'로 시작하여 현행 <보렴>의 앞부분과 일치한다.

165) 국사편찬위원회, 『기록과 유물로 본 우리음악의 역사』(두산동아, 2009), 299쪽.

166) 강남중·신진옥·신연옥, <삼남화초사거리(산천초목이속있)>, 님보노홍 K124-A.
강남중·신진옥·신연옥, <삼남화초사거리(선황당어리숨벽궁)>, 님보노홍 K124-B.

1920년대 유성기음반 시장은 자본주의적 체제하에서 상품성이 있는 음원들만 취입되었다는 점에서 계면조를 극대화한 음악 어법이 크게 인기를 얻음에 따라 악곡 명 앞에 ‘삼남’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성기음반의 녹음 기술은 3분 남짓이기 때문에 장가(長歌)를 녹음하기에는 불가능함에 따라 짧고 통속성이 강한 남도 잡가가 유성기음반 음원에 취입되기 적절했을 것이다.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은 1929년 콜롬비아 음반에 현행 <보림>과 악곡 명이 동일한 <보념(菩念)>을 녹음했다. 백점봉 일행이 부른 <보념>은 새타령과 함께 각각 A·B면에 취입되어 있다. 백점봉(1920-?)은 경기도 장호원에서 태어났으며, 백점봉의 소리제는 평조를 많이 쓰는 중고제라고 밝혀진바 있다.¹⁶⁷⁾ 백점봉과 함께 노래를 부른 김종기(1902-1940)는 거문고 명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야금산조와 해금도 연주하였으며 가야금병창과 판소리도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⁹⁾

서편제 계보인 강남중이 <삼남염불>을 취입하고, 중고제 계보인 백점봉이 <보념>을 녹음하게 됨으로써 1920년대 후반부터 <보념>은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 판소리 유파와 상관없이 판소리 명창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판소리 명창들이 사당패소리에서 기원한 <전라도 판염불가>, <삼남염불> 등 현행 <보림>에 해당하는 곡을 유성기음반에 취입한 사실은 사당패소리가 잡가로 취급되어 명창들이 즐겨 부르지 않았다는 증언¹⁷⁰⁾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20세기 초까지 <보림>의 악곡 명은 정착되지 않았지만, 음악은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민간협률사 활동에서 여자 명창들은 <보림> 가창에 적극적

167) 강남중·신진옥·신연옥, <삼남새타령1(삼월삼짓날)>, 님보노홍K139-B.
 강남중·신진옥·신연옥, <삼남새타령2(비일심상백성가)>, 님보노홍 K140-A.
 강남중·신진옥·신연옥, <삼남새타령3(저두견새울음운다)>, 님보노홍K140-B.
 강남중·신진옥·신연옥, <삼남새타령4(이산으로가면뻘쪽)>, 님보노홍 K147-A.
 168) 이보형, 「백점봉 소리제 소고」, 『한국음반학』 제12호(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3~4쪽.
 169)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보고사, 2012), ‘김종기’ 항목 참조.
 170) 장사훈에 의하면 “1950년대까지도 판소리 창자들에게 <보림>과 같은 소리의 방송을 청탁하면 <보림>은 저급한 사당패소리라는 이유로 기피했다.”고 한다. 장사훈, 『최신국악총론』(세광음악출판사, 1989), 516쪽.

으로 동원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자 명창이 <관염불>을 부르게 되면 사당패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⁷¹⁾ 1914년 9월 8일 덕수궁에서 개최된 고종 어탄신 기념 연주 기록에 의하면 당시 남도 출신 예기들은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흥타령>, <방애타령>, <자진방애타령>, <개구리타령>을 불렀으나¹⁷²⁾ <관염불>에 해당하는 <보렴>은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초 개화가 시작되면서 시대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류 명창들이 남도 사당패소리 <관염불>에서 기원한 <보렴>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여류 명창 중에서 최초로 <보렴>을 녹음한 창자는 송만갑과 김정문에게 사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중선과 그의 여동생 이중선이다.

1929년에 이화중선(1898-1943)과 이중선(1903-1935)이 부른 <보념>은 현행 <보렴>과 마찬가지로 중모리~자진모리의 장단 틀을 갖추고 있으며, 선율과 시김새의 측면에서도 현행 <보렴>과 동일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화중선과 이중선이 1929년에 <보념>을 취입한 이후에 1930년대부터는 여류 명창들이 <보렴>을 적극적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하 [표 13]은 1930년대 <보렴>의 유성기음반 목록이다.

[표 13] 1930년대 <보렴>의 유성기음반 목록

제작사 음반번호	발행 시기	분류	곡명	창자
오케 1567-A·B	1933	잡가	보념(菩提念)	하농주, 최소옥, 김금옥
밀리언 CM805-A	1936	남도 소리	보념(菩提念)	최계란, 조소옥
타이헤이 8198-B	1936	남도 합창	보렴 ¹⁷³⁾	이난향, 박도일

171) 이보형, 앞의 글(2007), 5쪽. 여사당은 하층 남성을 상대로 매춘을 하여 돈을 벌기도 하였기 때문에 여류 명창들이 사당패소리 <관염불>을 부르기 꺼려한 것 같다.

172)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9집(한국국악학회, 2001), 329쪽.

오케 12330-A·B	1940	남도 잡가	보념(普念)	조금옥, 조난옥
--------------	------	----------	--------	----------

위 [표 13]을 통해 현행 <보렴>의 악곡 명이 1930년대에 들어서 <보념>으로 정착했으며, 창자는 대부분 권번을 통해 배출된 기생임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이후 판소리 명창들이 권번에서 소리 선생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권번을 통하여 많은 여류 명창들이 배출되었는데, 남원협률사를 이끌었던 송만갑은 진주, 전주, 부산, 마산, 동래, 대구, 광주 등 10여 곳의 권번과 조선성악연구회에서 많은 제자를 배출했고¹⁷⁴⁾, 김정문은 남원 권번에서 기생에게 소리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⁵⁾

하농주는 남도 잡가를 즐겨 부른 명창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⁷⁶⁾, 삼남 지역 기생 출신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 기생을 주축으로 조직된 한남 권번에서 활동했다.¹⁷⁷⁾ 하농주는 조선 권번 출신 최소옥, 김금옥과 함께 남도 잡가 <화초사거리>¹⁷⁸⁾를 유성기음반에 녹음하였다.

최계란은 대구 달성 권번에 소속된 기생 출신으로 경성방송국에서 <보렴>을 방송했다.¹⁷⁹⁾ 최계란이 취입한 <보념>도 <새타령>과 함께 짝을 이루어 각각 A·B면에 취입되었다. 조소옥은 남원에서 출생한 여류 명창으로 김정문이 남원 권번의 소리 선생으로 있을 때 5년 동안 《홍보가》, 《춘향가》, 《심청가》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⁰⁾

이난향은 평양 출신 기생으로 삼남 지역 출신 기생은 아니다. 평양 출신 기생인 이난향이 남도 잡가를 불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보렴>이 대중성을 확보한 악곡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이난향이 취입한

173) <보렴>은 <보념>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추정된다.

174) 오호, 「송만갑 애도」, 『삼천리』(1939년 4월호, 삼천리사) 158쪽; 이보형, 「판소리 제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학논문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1~99쪽.

175) 박황, 앞의 책(2001), 188쪽.

176) 송방송, 앞의 책(2012), ‘하농주’ 항목 참조.

177) 송방송, 위의 책(2012), 917쪽.

178) 하농주·최소옥·김금옥, <화초 사거리>, [Okeh 1554-B], 1936.

179) 손태룡, 「최계란 명창과 대구 아리랑 고찰」, 『대구경북연구』 제13집(대구경북연구원, 2014), 67쪽.

180) 송방송, 위의 책(2012), ‘조소옥’ 항목 참조.

타이헤이 음원의 A면에는 <새타령>이 취입되어 있고 B면에 <보렴>이 녹음되어 있다. 이난향이 부른 남도 잡가로는 <보렴> 외에 <육자배기>¹⁸¹⁾, <자진육자배기>¹⁸²⁾, <성주풀이>¹⁸³⁾, <새타령>¹⁸⁴⁾이 있다.

조금옥과 조난옥도 조선 권번 소속 기생¹⁸⁵⁾인 점을 미루어 보아 1930년대 이후 <보렴>은 남도 잡가의 한 곡으로 여류 명창에게 수용되었으며, 이 시기 남도 잡가는 권번을 통해 배출된 기생의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¹⁸⁶⁾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유성기음반에 취입된 <보렴>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송만갑의 아들 송기덕이 현행 <보렴>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전라도 관염불가>를 남도 명창 중에 최초로 취입했다. 1920년대 <보렴>의 악곡명은 <전라도 관염불가>, <삼남염불>, <보렴>으로 불리며 악곡 명이 정착되지 않았으나, 음악은 크게 유행하였다. 현행 <보렴>의 악곡 명은 1930년대에 이르러 <보렴>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둘째, 송만갑을 사사한 이화중선이 1929년에 여류 명창 중에서 최초로 <보렴>을 취입하였다. 이후 <보렴>은 1930년대 이후 권번을 통해 배출된 여류 명창에 의해 병창으로 불리는 관행을 보이며, <보렴>은 <새타령>과 함께 짝을 이뤄 A·B면으로 수록되기도 하였다.

181) 이난향, <육자배기>, [Taihei 8201-A], 1937.

182) 이난향, <자진 육자배기>, [Taihei 8201-B], 1937.

183) 이난향, <성주풀이>, [Taihei 8192-A], 1937.

184) 이난향, <새타령>, [Taihei 8198-A], 1937.

185) 송방송, 앞의 책(2012), 826~827쪽.

186) 권도희, 앞의 글(2003), 125쪽.

2)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을 통해 본 <보렴>의 방송 양상

<판염불>로 불리는 악곡이 1933년 3월 8일에 방송되었다.¹⁸⁷⁾ 해당 곡은 <판염불>, <삼국지타령>, <방아타령>, <화초타령>, <도화타령> 순으로 부른 것으로 보아 잡가집에 기록된 <판염불>과 마찬가지로 경기 음악 어법으로 불렀을 것이다. 즉, 1933년 3월 8일에 방송된 <판염불>은 경서도 사당패소리를 이어받은 <판염불>로 판단된다. 이후 <판염불>은 점차 탈락한 채 경기입창이라는 갈래 명으로 <앞산타령>, <뒷산타령>, <개고리타령>, <자진산타령>의 순서로 가창되었다.

<보렴>은 <보념>이라는 이름으로 1927년 12월 13일 처음 방송되었다. 경서도 사당패소리 <판염불>보다 6년 일찍 방송되었으므로 경서도 사당패소리 <판염불>과 구분되는 남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에서 유래한 <보렴>이 따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1927년 12월~1932년 10월 경성방송국의 <보렴> 방송 양상

방송일	시간	갈래	곡명	가창자
1927.12.13	18:00	남도 단가 독창 급 합창	<u>보념</u> , 화초사거리, 농부가 외 잡가 수종	모추월 원채옥 이소향
1930.5.22	21:30	남도 단가	륙자백이, 흥타령, 우타령, 화초사거리, <u>보념</u>	고계선 고비연
1932.2.27	21:45	남도 잡가	단가, 육자가, <u>보념</u> , 화초사거리 외	고계선 고비연
1932.3.12	21:30	남도 입창	단가, <u>보념</u> , 화초사거리, 육자가	박녹주 이소향
1932.4.13	21:30	남도 입창	단가, <u>보념</u> , 화초사거리, 육자가	이소향 이금홍
1932.5.15	18:30	남도 입창	단가, 륝자배기, <u>보념</u> , 화초사거리	이금홍 이소향
1932.6.4	21:45	남도 단가	단가, <u>보념</u> , 화초사거리, 육자가	이소향 이금홍

187) 방영기, 「근대 시기의 선소리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59쪽.

1932.7.6	21:30	남도 입창	단가, 보녘,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고계선 고비연
1932.8.14	18:30	남도 입창	추월만정, 보녘,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임명옥 고비연
1932.10.14	21:30	단가와 민요	만고강산, 보녘,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고계선 고비연

위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보렴>은 <보념(報念)>이라는 명칭으로 1927년 12월 13일에 처음 방송되었다. 1930년대 초반까지 <보렴>의 갈래 명은 ‘남도 단가’, ‘남도 잡가’ ‘남도 입창’, ‘단가와 민요’ 등으로 정립되지 않았다.¹⁸⁸⁾ 이 시기의 남도 잡가는 <단가>를 먼저 부른 후 <보렴>, <화초사거리>, <육자백이>로 연창하는 레퍼토리로 가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렴>은 유성기음반의 취입 양상과 마찬가지로 독창으로 부르기보다 여류 명창이 병창으로 부른다.

이 시기 경성방송국에서 모추월, 원채옥, 이소향, 고계선, 고비연, 박녹주, 이금홍, 임명옥, 박명화 등 권번 출신 기생들이 <보념>을 불렀다.¹⁸⁹⁾ 이중 박녹주는 남원협률사 소속 창자인 김정문에게 《홍보가》를 사사한 명창인데¹⁹⁰⁾ 박녹주의 문하에서 공부한 박초선과 한농선이 해방 이후 1960년대에 <보렴>을 불렀음이 확인된다. 1933년 5월 11일에 <보렴>이 첫 곡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차차 <보렴>을 첫 곡으로 부르는 남도 잡가 레퍼토리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표 15] 1933년 5월~1936년 12월 경성방송국의 <보렴> 방송 양상

방송일	시간	갈래	곡명	가창자
1933.5.11	20:30	남도민요	보녘, 새타령,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하농주 김금옥
1934.3.28	20:30	남도잡가	보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매향 조소옥
1935.5.30	21:00	보념 기타	보녘, 육자백이, 흥타령,	조농옥

188) 이용식, 앞의 글(2013), 256쪽.

189)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보고사, 2012)을 참조하였다.

190) 박황, 앞의 책(2001), 261쪽.

			개고리타령	신숙
1936.1.29	12:05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조소옥 조농옥
1936.5.22	21:30	보념 외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김연수 신숙
1936.11.10	20:00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캐지나칭칭	오비취 신숙
1936.12.2	20:00	보념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소희 조소옥

현행 <보림>이 남도 잡가의 첫 곡으로 방송된 날짜는 1933년 5월 11일이다. 1930년대 중반 <보림>을 부른 창자 중 하농주, 김금옥, 조소옥은 1930년대 <보림>의 유성기음반을 취입했던 여류 명창이다. 이들 외에 이 시기 <보림>을 자주 방송한 창자로는 김소희, 김연수, 오비취, 신숙, 조농옥이 있다. 1930년대 <보림>을 부른 판소리 창자들은 대부분 삼남 출신 기생인데, 1910년대 남원협률사에서 활동한 명창에게 학습한 이력이 주목된다. 김소희는 송만갑에게 《홍보가》와 《심청가》를 사사하였으며 김연수도 송만갑을 사사한 여류 명창이다¹⁹¹⁾. 조농옥은 전라북도 남원에서 출생하여 남원 권번에서 김정문에게 판소리를 학습한 것으로 추정되며, 송만갑 밑에서도 판소리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²⁾ 오비취와 신숙은 1910년대 남원협률사에서 활동을 했던 이선유에게 소리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³⁾

1933년 5월 이후부터 <보림>을 남도 잡가의 첫 곡으로 부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1931년에 경성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1932년부터 경성방송국에 들어가 PD로 활동한 이해구는 경성방송국 시절 <보림>이 언제나 첫 곡으로 불렀다고 회고한바 있다. 해당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 <자료 13>과 같다.

191) 송방송, 앞의 책(2012), 172쪽.

192) 신은주, 「20세기 전반 여류명창 조농옥」, 『동양음악』 제39집(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6), 129쪽.

193) 최난경, 앞의 글(2001), 166쪽.

<자료 13> 이해구의 1930년대 국악방송

남도소리: 남도소리 육자배기는 여자 둘이 번갈아 불렀고, 보렴은 병창으로 불렀다. 지금처럼 아쟁 같은 악기 반주는 일체 없었다. 프로그램은 보렴, 육자배기, 흥타령, 개고리타령이다. 곡도 언제나 같았고, 부르는 순서도 언제나 같았었다. 나는 변화를 위하여 그 순서만이라도 바꾸어 보자고 의견을 냈지만, 그러면 소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¹⁹⁴⁾

위 <자료 13>을 살펴보면, 이해구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보렴>의 순서를 뒤로 뺄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해구가 회상한 시기는 <보렴>을 첫 곡으로 부르기 시작한 1933년 5월 이후일 것이다. 경성방송국의 남도민요는 <보렴>, <육자배기>, <흥타령>, <개고리타령>의 순으로 주로 불렀다는 증언과 <보렴>은 ‘병창’으로 부른다는 것도 1930년대 <보렴>의 가창 양상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37년부터 1939년까지의 <보렴>의 방송 양상을 살펴보겠다.

[표 16] 1937년 1월~1939년 11월 경성방송국의 <보렴> 방송 양상

방송날짜	시간	갈래	곡명	연행자
1937.1.3	13:15	보렴 외	보렴,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소희 조소옥 박종기(대금)
1937.1.22	12:05	새타령 외	보렴,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오비취 김연수
1937.4.3	21:00	보렴 외	보렴,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연수 오비취 박종기(대금)
1938.8.22	21:00	남도 가요	보렴,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난향 이옥희
1939.1.22	20:30	남도 가요	보렴,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오비취 허난수
1939.7.15	21:10	남도 가요	보렴, 육자백이,	고계선

194) 이해구, 「1930년대 국악방송」 『국악원논문집』 제9집(국립국악원,1997), 255쪽.

			홍타령	고비연
1939.11.30	20:00	남도 가요	<u>보넌</u> ,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조난옥 조금옥

1937년에서 1939년까지 현행 <보렘>의 가창 양상을 살펴보면, <보렘>이 1936년 이후 남도 잡가의 첫 곡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후반부터 대금 등의 가락악기로 반주하기도 하였으며, 병창으로 부르는 양상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갈래 명은 ‘남도 가요’로 정착하였다. 다음으로 1940년대 <보렘>의 방송 양상을 정리하면 이하 [표 17]과 같다.

[표 17] 1940년 1월~1942년 12월 경성방송국의 <보렘> 방송 양상

방송날짜	시간	갈래	곡명	연행자
1940.1.7	20:20	남도 가요	<u>보넌</u> ,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조난옥 조금옥
1940.1.24	21:00	남도 가요	<u>보넌</u> ,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오비취 김연수
1940.12.22	21:00	남도 가요	<u>보넌</u> , 육자백이, 홍타령	고계선 고비연
1941.9.8	20:30	남도 가요	<u>보넌</u> , 육자백이, 홍타령	이난향 김일선
1941.9.25	21:00	남도 가요	<u>보넌</u> , 육자백이, 홍타령	조금옥 이소향
1942.12.26	21:00	남도 민요	<u>보넌</u> , 육자가	김숙자 김일선

1940년대에 들어서 <보렘>은 <육자배기>와 같이 짝을 이뤄 방송되는 양상을 보인다. 갈래 명은 ‘남도 가요’로 정착되었다. 마찬가지로 <보렘>을 부른 창자들은 이난향과 같은 기생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난향은 유성기음반에 <보렘>을 녹음했던 평양 출신 기생이다. 1940년대 <보렘>은 삼남 지역 출신 기생이나 남도 명창뿐 아니라 평양 출신 기생에 의해 방송될 만큼 인기 있는 악곡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42년 12월 26일에 <보렘>과 <육자가>를 부른 김숙자는 하동 권번 출신 여류

명창으로 남원협률사에서 활동했던 이선유에게 소리를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¹⁹⁵⁾

이상으로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을 통하여 현행 남도 잡가 <보렴>의 가창 양상을 살펴보았다. 남도 지역의 <관염불>에서 기원한 <보렴>이 경서도 사당패의 <관염불>보다 이른 시기에 방송되었으며, <보렴>은 1926년 12월 31일 첫 방송 된 이후 1944년까지 2월 16일까지 총 247회 방송되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악곡이었다.

1927년부터 1933년까지 <보렴>은 첫 곡으로 부르지 않았고 <단가>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곡으로 불렸다. 이후 1933년 5월 이후부터 <보렴>이 남도 잡가의 첫 곡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경성방송국에서 현행 <보렴>에 해당하는 곡을 부른 창자들 중 송만갑, 이선유, 김정문 등 남원협률사에서 활동한 창자들에게 배운 여류 명창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남원협률사 출신 창자에게 배운 명창 중 경성방송국에서 <보렴>을 부른 창자들은 김소희, 김연수, 박녹주, 오비취, 신숙, 김숙자로 확인된다. 이중 송만갑을 사사한 여류 명창은 김소희, 김연수, 박녹주가 있고, 이선유에게 사사한 창자는 오비취, 신숙, 김숙자가 있으며, 김정문을 사사한 명창으로는 조농옥이 있다.

1930년대 이후 경성방송국에서 <보렴>은 남도 잡가의 첫 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여류 명창에 의해 병창으로 불렸다. 1920~30년대 대중매체 기록 중 <보렴>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유성기음반에 <보렴>을 취입하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보렴>을 부른 것으로 확인되는 창자는 하농주, 김금옥, 이난향, 조소옥, 조금옥으로 정리된다.

195) 최난경, 앞의 글(2001), 166쪽.

IV. <보림> 음원의 녹음 시기별 음악적 특징 분석

본 장에서는 남도 사당패소리였던 <관염불>을 판소리 창자들이 <보림>이라는 악곡 명으로 수용한 이후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보림>의 음악적 특징은 1920년대의 초기 음반, 1930년대 여류 명창에게 수용된 이후의 음반과 1960년대 이후의 음반으로 나누어 개관하겠다.

1. 1920년대 <보림> 음반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

1921년 송기덕에 의해 <전라도 관염불가>가 취입된 이후 현행 <보림>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갖춘 곡으로 이화중선·이중선이 취입한 <보님(1929)>이 확인된다. 또한, 현행 <보림>의 중중모리장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른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의 <보님(1929)>도 존재한다. 백점봉과 그의 일행이 부른 <보님>은 중중모리장단뿐이므로,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세기 초 취입된 <보림> 음원의 시김새는 중중모리장단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1) 이화중선·이중선이 취입한 <보님(1929)>

이화중선은 1899년 9월 16일 목포시 남교동 12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1944년 1월 1일 작고하였다.¹⁹⁶⁾ 이화중선은 이중선, 이화성, 이화봉의 네 자매 중 장녀로, 여동생 이중선과 함께 1929년 빅타 KJ1340-A·B 음반에 <보님>을 취입했다.

『매일신보』 기사에 의하면 13세 때 남원으로 이주하여 남원 권번 소

196) 전경옥, 『한국전통연희사전』(민속원, 2014), ‘이화중선’ 항목 참조.

속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¹⁹⁷⁾ 이화중선은 남원 권번에서 김정문에게 판 소리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¹⁹⁸⁾에서 이화중선은 김정문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다고 보는 근거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된바 있다. 첫째로 이화중선 창 《홍보가》 사설은 김정문 제로 부른다. 둘째로 송만 갑에게 전수된 제비노정기는 크게 장판개, 김창환, 김정문 제로 나뉘는데 이화중선은 김정문 제 <제비노정기>를 부른다. 이처럼 이화중선은 김정 문에게 《홍보가》를 직접 배웠을 것으로 추정되며, 김정문으로 부터 <보렴>도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송만갑-김정문 바디의 《홍보가》 중 <중타령>은 <보렴>과 사설이 일부 일치하고, 김정 문은 통속성을 반영하여 인기를 끈 잡가꾼으로 활동하였음을 미루어 보 아, 남원협률사에서 활동한 창자들이 남도 사당패소리 <관염불>을 수용 하여 <보렴>으로 개작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화중선의 소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으로 김정문에게 배우기 전 잠시 소리를 배웠던 무당 소리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화중 선이 장기로 삼은 <육자배기>가 무당으로부터 배웠다고 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¹⁹⁹⁾ 남도 사당패소리인 <관염불>을 계승한 <보렴>의 사설도 고사 소리 및 다양한 무의식과 관련한 사설이 조합돼있기 때문에 무당에게서 학습한 이력이 있는 이화중선이 <보렴>을 부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화중선과 그의 동생 이중선이 1929년에 부른 <보념>의 사설은 현행 <보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설 비교를 위해 이화중선·이중 선 창 <보념>의 사설과 현행 <보렴>의 사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념>과 현행 <보렴>의 사설

장단구분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념>	현행 <보렴>(200)
	제1단락 사설	
중모리 (23장단)	상래소수/공덕해요/회향삼처/ 실월만을/봉위주상전하/수만세요/ 왕비전하/수제년을/세자저하/	상래소수/공덕해요/회향삼처/ 실월만을/봉위주상전하/수만세요/ 왕비전하/수제년을/세자전하/

197) 최혜진, 「이화중선의 생애와 예술성」, 『관소리 연구』 제15권(관소리학회, 2003), 272쪽.

198) 최혜진, 위의 글(2003), 275쪽.

199) 최동현, 앞의 책(1994), 181쪽.



	수천추요/선왕선후/원왕생/ 제공종실/각안령/문무백료/ 진충량/도내방백/위익고/ 성주합하/증일품/국태민안/ 법륜전이라/나무천룡/지신님네	수천추요/선왕선후/원왕생/ 제공종실/각안령/문무백료/ 진충량/도내방백/위익고/ 성주합하/증일품/국태민안/ 법륜전이라/나무천룡/지신님네
중중모리 (50장단)	제2단락 사설	
	동방화류/서방화류/북방화류/ 남방화류야/오름이야 도름이야/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 무애대비보살/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관자재/법정진언의/ 옴바라요/대다라니/게청계수/ 관음보살/석가여래/문수보살/ 지장보살/옴바라니/옴바라요/ 옴바라니/옴바라요/앞도당산/ 뒤도주산/좌우천룡/수살맥이라 서낭님네/나무천룡/지신님네	동방화류/서방화류/북방화류/ 남방화류야/오름이야 두름이야/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 무애대비보살/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법정진언이라/ 옴바라요/대다라니/게청계수/ 관음보살/석가여래/문수보살/ 지장보살/옴바라니/옴바라요/ 옴바라니/옴바라요/앞도당산/ 뒤도주산/좌우천룡/수살맥이라 성황님네/나무천룡/지신님네
	제3단락 사설	
	동에는 청제지신/나무/남에는 적제 지신/나무천룡/서에는 백제지신/ 나무천룡/북에는 흑제지신/나무 천룡/중앙에는 황제지신/나무천룡/ 지신님네	동에는 청제지신/나무/남에는 적제 지신/나무천룡/서에는 백제지신/ 나무천룡/북에는 흑제지신/나무 천룡/중앙에는 황제지신/나무천룡/ 지신님네
	제4단락 사설	
	아미/일쇄동방/결도장/ 이쇄남방/득청량/나무/ 삼쇄서방/구정토로다/나무살바/ 사쇄북방 영안강이로다/ 나무천룡/지신님네	아미/일쇄동방/결도량이라/ 이쇄남방의/득청량이라/나무/ 삼쇄서방의/구정토로다/나무천룡/ 사쇄북방의/연안강이라/ 나무천룡/지신님네
자진모리 (20장단)	제5단락 사설	
	도량청정/무하예/삼보천/강차지/ 아금지송/묘진언/원사자비/밀가호/ 아석소조/지아개/종신구의/일수세/ 무상무사진지라/진지소지/어/아/아 미/타/불	도량청정/무하예/삼보천룡/강차지/ 아금지송/묘진언/원사자비/밀가호/ 아석소조/제악업/종신구의/지소생 이라/아맘무시/진지라/진지소지/불 여경이라/나무/아미타불

엇중모리 (11장단)	어노다/가네에/헤에나도/노다 가아/노라/○○○○/○/○○○ ○/○○○○○/내가 놀아간다	탈락한 부분
----------------	--	--------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렴>부터 중모리~자진모리장단으로 이루어진 현행 <보렴>의 장단 틀이 완성되었으며, 사실 또한 큰 변화 없이 전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당 곡은 현재는 탈락한 엇중모리장단까지 포함하여 총 103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제Ⅱ장에서 타 장르의 소리와 <보렴>이 사설을 공유한 양상이 발견됨에 따라 <보렴>의 사설을 다섯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였고, 이 경우 각 단락의 끝마다 ‘나무천룡 지신님네’ 또는 ‘나무아미타불’의 단락 어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음악 분석 결과 사실뿐 아니라 선율적인 측면에서도 각 단락의 끝마다 la-mi-la 또는 la-mi-la-(do')si-la로 진행되는 종지 선율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9]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렴>의 단락별 종지 선율

단락 구분	종지 선율
제1단락	제22장단~제23장단
	 <p>나 - 무 전 - - - - 룡 - - 지 - - 시 인 님 네</p>
제2단락	제51장단~제52장단
	 <p>나 무 천 - - 룡 지 - - 신 님 네 -</p>

200) <보렴>의 사설은 『뿌리깊은나무팔도소리』제3집(한국브리태니커, 1984)을 참조하였다.

제3단락	<p style="text-align: center;">제62장단~제63장단</p>  <p style="text-align: center;">나 - - - 무 - 천 - 룡 지 - - 신 님 아 미</p>
제4단락	<p style="text-align: center;">제72장단~제73장단</p>  <p style="text-align: center;">- 나 - 무 천 - - 룡 지 - - 신 님 네</p>
제5단락	<p style="text-align: center;">제92장단~제93장단</p>  <p style="text-align: center;">타 - - - 불 - - - -</p>

<보림>의 선율 분석을 통해 <보림>은 사설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섯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단락을 구분 짓는 중지 선율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의 시김새를 살펴보기 위해 이화중선·이중선이 부른 <보림>의 중중모리장단 제24장단부터 제31장단까지의 악보를 제시해보자면 이하와 같다.

<악보 1>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 제24장단~제31장단

24



동 방 화 류 - 서 방 화 화 - -

26



북 방 - - - 화 - 류 남 - - - - 방 화 류 야

28

오름 이 야 도름 이 야 천 - 수 천 - 만

30

관 자 재 - 보 살 - 광 - 대 원 - 만

위 <악보 1>을 통해 이화중선·이중선이 부른 <보념>의 출현음은 mi-la-(do')si-re'-mi'-sol임을 알 수 있다. 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인 (do')-si의 꺾는 목외에 중중모리장단 제1장단에서 '동방화류'에서 '서방화류'로 넘어갈 때, '다리 놓는 목'이 사용된다. 다리 놓는 목이란 선행음에서 다음 음으로 연결하기 직전에 다리를 놓듯이 다음 음이나 다음 음의 위 음을 짧은 시가로 먼저 쳐주는 목이다.

김정문은 단가 <홍문연가>에서 다리 놓는 목을 사용하여 통속적인 시김새를 구사한 바 있는데²⁰¹⁾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념>에서도 다리 놓는 목의 시김새가 확인된다. 이외에 (re')-(do')-si의 꾸며 꺾는 목도 20회나 등장한다. 이처럼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념>에 다양한 시김새가 나타나는 이유는 1910년대 민간협률사 활동에서 통속성을 추구한 송만갑의 소리관과 김정문의 창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화중선·이중선 창의 <보념>은 음원의 끝에 엇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타령>이라는 악곡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는 탈락하였다. <타령>의 악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 성기련, 앞의 책(2021), 208쪽.

<악보 2> 이화중선·이중선 창 <타령>

94 옛중모리 (♩ = 111-113)

어 노 다 가 네 - 에 해 에 나 도

97

노 다 가 - 아 노 라 ○ ○ ○ ○

100

○ - ○ ○ ○ - ○ ○ ○ ○ ○

103

네 가 - 놀 아 - 간 다

<타령>은 옛중모리장단이 1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령>의 출현음은 mi-sol-la-do ' -re ' -mi ' -sol ' 로 최종 종지음은 sol이다. 최저음인 mi는 1회 등장함으로, 해당 곡은 평조임을 알 수 있다. <타령>의 사설은 <보렴>과 무관하며 '어 노다 가네'로 풀어준다. (do ')-si의 꺾는 목은 등장하지 않고, 화평하게 부르며 뉘는 목은 sol ' 과 mi ' 에서 나타난다. 뉘는 목은 정악이나 산조 등 기악곡의 퇴성과 유사하게 제 음을 낸 후 살짝 아래로 흘러내는 목이다.

2)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이 취입한 <보렴(1929)>

백점봉은 1920년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하여²⁰²⁾ 1950년대까지 국극단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나, 작고 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백점봉은 경기도 장호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성악연구회에서 활동할 당시 정정렬에게 춘향가를 배웠다고 한다.²⁰³⁾ 고향인 이천

202) 송방송, 앞의 책(2012), 406쪽.

203) 이보형, 앞의 글(2002), 4쪽.

에서 판소리를 배우다가 일제강점기 때 상경하여 판소리 명창으로 활동하였다.²⁰⁴⁾ 백점봉은 거문고 명인 김종기(1902-1940)²⁰⁵⁾를 포함하여 남녀 합창으로 현행 <보림>에 해당하는 <보념>을 녹음했다. 백점봉 일행이 부른 <보념>의 음원은 중중모리장단만 취입되어 있다. 다만 백점봉보다 이른 시기인 1928년에 강남중·신연옥·신진옥·신옥란이 부른 <삼남염불>²⁰⁶⁾의 사설이 ‘봉위주상전하수만세’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중모리장단 부분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0]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 창 <보념>의 사설

장단구분	단락 구분
중중모리 (50장단)	제2단락 사설 동방화류/서방화류/북방화류/남방화류야/오름이야 도름이야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월만/무아대비보살/무상심심/미묘법/백천만겁/나아안자여/래법정진언의/옴바아라요/대다라니 계청지수/관음보살/석가여래 문수보살/지장보살/옴바라니/옴바아아라요/앞도당산/뒤도주산/좌우천룡/수살맥이라 성황님네/ <u>나무천룡/지신님네</u>
	제3단락 사설 동에는 청제지신/나아무/남에는 적제지신/나아무천룡/서에는 백제지신/나무천룡/북에는 흑제지신/나무천룡/중앙에 황제지신/ <u>나아무천룡/지신님네</u>
	제4단락 사설 아니/일/쇄동방/결도량이라/ 이쇄남방 득청량이라/나무아무철/삼쇄서방의 구정토로다/ 나무살마/사쇄북방 영안강이라/ <u>나무천룡/지신님네</u>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이 부른 <보림>은 중중모리장단이 50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단락에 해당하여 중모리장단으로 부르는 ‘상래

204) 이보형, 위의 글(2002), 3-4쪽.

205) 한국민족대백과사전(hencykorea.aks.ac.kr), ‘김종기’ 항목 참조.

206) 강남중·신연옥·신진옥·신옥란, <삼남염불(2)>, [넙보노홍K126-A·B], 1928.

소수' 부분부터 부르지 않고 제2단락에 해당하는 '동방화류'의 중중모리 장단부터 취입한 것이 주목된다. 현행 <보림>은 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장단으로 불러 장단이 정형화되어 있다. 반면 백점봉 일행이 부른 <보념>은 중모리장단은 생략한 채 중중모리장단부터 취입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1920년대 당시 <보림>의 장단 구성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제1단락부터 부르지 않은 이유는 당시 3분 남짓이던 유성기음반의 녹음 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기술상의 한계와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이 부른 <보념>도 매 단락별 종지 선율을 가지고 있는데, 선율을 제시하자면 이하와 같다.

[표 21]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 창 <보념>의 단락별 종지 선율

단락 구분	종지 선율
제2단락	제26장단~제27장단
	<p>나 - 무 - 천 - - 룡 - 지 - 신 님 네</p>
제3단락	제38장단~제39장단
	<p>나 - 아 - 무 - 천 - 룡 - - 지 - 신 님 네 아 니</p>
제4단락	제49장단~제50장단
	<p>나 - 무 - 천 - 룡 - - 지 - 신 님 네</p>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이 부른 <보념>의 제2단락은 la-mi-la의 종지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제3단락과 4단락도 la-mi-la로 종지함을 알 수 있다. 백점봉 일행이 부른 <보념>의 출현음을 살펴보기 위하여 악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3>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 창 <보냄> 제1장단~제8장단

중중모리

동 방 화 류 - 서 방 - 화 류

북 방 - - 화 류 남 - - 방 - 화 - 류 야

오 름 이 야 도 - 름 - 이 야 천 - 수 천 안 -

관 자 재 - 보 살 광 - 대 원 - - 만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이 부른 <보냄>의 출현음은 mi-la-(do')si-re' -mi' -sol' 이다. 최종 종지음은 단락별 종지 선율에서 확인했듯이 la 이고, (do')-si는 꺾는 목으로 처리하는 육자배기토리이다.

산타령 류의 악곡들은 sol-la-do' -re' -mi' 의 sol 선법으로 평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²⁰⁷⁾과 달리 <보림>의 초기 유성기음반 음원에 해당하는 곡들은 mi-la-(do')si-re' -mi' -sol' 의 계면조의 출현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른 산타령 류 악곡들과 구분되는 <보림>의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는 <보림>이 남도 지역에서 향유되던 남도 사당패의 <관염불>을 계승한 곡임을 시사해준다.

207) 한만영, 앞의 글(1991), 118쪽.

2. 1930년대의 여류 명창이 부른 <보림>의 음악적 특징

1930년대 이후 여류 명창들이 적극적으로 남도 잡가를 부르기 시작함에 따라 남도 기생 출신인 최계란과 조소옥이 평양 출신 기생인 이난향도 현행 <보림>에 해당하는 곡을 유성기음반에 녹음하였다. 해당 음원들은 <보림>의 중모리장단 전체 장단과 중중모리장단 일부를 취입하고 있어 1930년대에 <보림>의 장단이 중모리~중중모리장단으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최계란과 조소옥이 부른 <보림> 음원의 음악적 특징부터 살펴보겠다.

1) 최계란·조소옥이 취입한 <보림(1936)>

앞 장에서 최계란과 조소옥이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보림>을 부른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최계란은 1920년 대구시 동구 봉무동에서 출생하여 10세 때 대구의 달성 권번에 입학한 후 가야금 명인 강태홍에게 가야금병창을 지도받았다.²⁰⁸⁾ 1934년부터 서울 조선 권번에 기적을 등에 따라, 1930년대부터 경성방송국에서 가야금병창과 <보림>, <새타령> 등의 남도 잡가를 불렀다.

조소옥은 1913년 남원에서 출생하였으나 작고 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남원 권번에서 김정문에게 5년 동안 《홍보가》, 《춘향가》, 《심청가》를 배웠다.²⁰⁹⁾

[표 22] 최계란·조소옥 창 <보림>의 사설

장단구분	단락 구분
	제1단락 사설
중모리 (23장단)	상래소수/공덕해요/회향삼처/실원만을/봉위주상전하/수만세요/ 왕비전하/수제년을/세자저하/수천추요/선왕선후/원왕생/ 제공종실/각안령/문무백료/진충량/도내방백/위익고/

208) 송방송, 앞의 책(2012), 882쪽.

209) 송방송, 위의 책(2012), 838쪽.

	성주합하/증일품/국태민안/법륜전이라/나무천룡/지신님네
중중모리	제2단락 사설
(4장단)	동방화류/서방화류/북방화류/남방화류야

최계란·조소옥이 부른 <보냄>은 중모리장단에 이어 중중모리장단 4장단을 부른다.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냄>의 중모리장단 빠르기는 $\text{♩} = 98 \sim 100$ 인 반면,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은 $\text{♩} = 90 \sim 92$ 의 빠르기로 볼러 최계란·조소옥 창의 <보냄>이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냄>에 비해 한배가 더 느려졌음을 알 수 있다.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의 출현음 및 시김새를 살펴보기 위해 악보를 제시하자면 이하와 같다.

<악보 4>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 제1장단~제8장단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의 중모리장단 부분은 mi-la-(do')si-re' -mi' -sol' 이고 최종 종지음은 la인 육자배기토리이다. 위 <악보 4>를 보면 최계란·조소옥이 부른 <보냄>은 꺾는 목, 떠는 목뿐만 아니라 리듬 분할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시김새 중 주목되는 부분은 제4장단의 '실월만을'에서 '실'과 같이 re' 를 떠는 목으로 낸다는 점인데, 이화중선·이

중선 창 <보냄>에서도 re ' 음을 굵게 떨어준다. 김삼진은 선행연구에서 <보림>의 중요한 음악적 특징 중 re ' 의 빈번한 출현을 언급한바 있는데,²¹⁰⁾ 여류 명창들이 부른 <보림>에는 실제로 re ' 에 떠는 목의 시김새가 들어간다. 종지 선율은 마찬가지로 la-mi-la로 나타나고, 종지 선율에도 떠는 목과 리듬 분할이 추가되어 진계면의 느낌이 강하다. 제1단락의 종지 선율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표 23]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의 단락별 종지 선율

단락 구분	종지 선율
제1 단락	제22장단~제23장단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 제1단락의 종지 선율인 ‘지신님네’ 중 ‘지’는 굵은 목으로 떨어주며, ‘신’에는 리듬 분할이 나타나 앞서 이화중선·이중선이 부른 <보냄>과 백점봉 일행이 부른 <보냄>의 종지 선율보다 복잡한 시김새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단락인 중모리장단을 다 부른 후 이어서 중중모리장단을 부르며, 중중모리장단은 첫 4장단만 녹음되어 있다.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의 중중모리장단 출현음을 살펴보기 위해 악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0) 김삼진, 앞의 글(1996), 117쪽.

<악보 5>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 제24장단~제26장단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의 중중모리장단 출현음은 mi-la-(do')si-re ' -mi ' -sol '이고, 종지음은 la에 해당하므로 육자배기토리임을 알 수 있다. 최계란·조소옥 창 <보냄> 제26장단인 '북방화류'의 '북' 부분에는 끊는 목이 등장하여 선율 중간에 소리 끝을 잘라내서 특 끊듯이 부른다.

2) 이난향 박도일이 취입한 <보렴(1936)>

이난향은 1900년 출생한 평양 출신 기생이다. 평양 출신 기생들은 대개 서도 잡가를 불렀는데 1920년대부터 기생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평양 기생들은 서도 잡가 외에 남도 잡가도 학습하고 상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¹⁾ 1928년 기성 권번에서 편찬한 음악 교과서인 『가곡보감』²¹²⁾에는 서도 잡가와 남도 잡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문헌에는 <보렴>에 해당하는 곡은 없다. 1910년대 남원협률사에 소속된 판소리 창자들이 남도 사당패소리 <관염불>을 <보렴>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수용하였고, 1920년대에 이르러 판소리 명창들이 <보렴>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1929년에 이화중선과 그의 동생인 이중선이 현행 <보렴>에 해당하는 곡을 여류 명창 중에서 최초로 불렀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류 명창들이 <보렴>을 포함한 남도 잡가 레퍼토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211) 권도희, 앞의 글(2003), 112쪽.

212) 김구희, 『가곡보감』(1928), 『한국잡가전집』(계명문화사, 1984).

이에 따라 평양 출신 기생 이난향도 유성기음반에 <보렴>, <새타령> 등의 남도 잡가를 취입하였고, 경성방송국에서도 <보렴>을 포함한 남도 잡가를 불렀다. 이난향과 함께 <보렴>을 부른 박도일은 남도 출신 판소리 창자로 추정되나 그의 생몰연대나 사사 계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난향과 박도일이 부른 <보렴>은 중모리장단 23장단과 중중모리장단 1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원의 길이는 3분이다.

[표 24] 이난향·박도일 창 <보렴>의 사설

장단구분	단락 구분
중모리 (23장단)	제1단락 사설
	상래소수/공덕해요/회향삼처/실원만을/봉위주상전하/수만세요/ 왕비전하/수제년을/세자저하/수천추요/선왕선후/원왕생/제궁 종실/각안령/문무백료/진충량/도내방백/위익고/성주합하/증일 품/국태민안/법륜전이라/나무천룡/지신님네
중중모리 (11장단)	제2단락 사설
	동방화류/서방화류/북방화류/남방화류야/오름이야도름이야/천 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보살/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여래법정진언이/옴바라요

이난향·박도일이 부른 <보렴>은 장단의 틀이 중모리~중중모리장단으로 고정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류 명창이 <보렴>을 부르기 시작한 1930년대 이후부터 <보렴>이 한배에 따른 형식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난향·박도일 창 <보렴>의 출현음 및 시김새를 살펴보기 위해 악보를 제시하자면 이하와 같다.

<악보 6> 이난향·박도일 창 <보냄> 제1장단~제8장단

이난향·박도일 창 <보냄>의 중모리장단 부분은 mi-la-(do ')-si-re '-mi ' -sol '인 육자배기토리이다. 제1장단인 '상래소수'의 '수' 부분에 (do ')-si의 꺾는 음은 20회 이상 등장하고 제2장단인 '공덕해요'의 '덕'에 (mi ')-(do ')-si의 꾸며 꺾는 목은 3회 이상 등장한다. 제3장단인 '회향삼천' 부분에서 '향'에 해당하는 최저음 mi음을 굽게 떠는 목으로 내준다. la는 평으로 낸다. 이로써 여류 명창이 부른 <보냄>도 육자배기토리에 해당하는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의 시김새가 분명히 드러나게 부름을 알 수 있다. 제1단락 종지의 선율형은 la-mi-la로, (do ')-si의 꺾는 목의 시김새가 추가되어 있다.

[표 25] 이난향·박도일 창 <보냄>의 단락별 종지 선율

단락 구분	종지 선율
----------	-------

제1 단락	제22장단~제23장단
	<p>나 - 무 천 - - - - - 룡 - 지 - - - 신 - - - - - 님 네 -</p>

다음으로 이난향·박도일 창 <보냄>의 중중모리장단을 살펴보겠다. 중중모리장단은 중모리장단에 이어 총15장단이 취입되어 있으며, 출현음을 살펴보기 위해 악보를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악보 7> 이난향·박도일 창 <보냄> 제24장단~제38장단

24 중중모리

26

28

30

32

34

미 - - - - - 묘 범 백 천 - 만 - - - - - 접

36

난 조 - - - - - 우 - - - - - 겨 - - - - - 례 범 정 - - - - - 진 언 - 이

38

음 바 - - - - - - - - - - - 례 요

중중모리장단의 출현음은 mi-la-(do ')-si-re '-mi '-sol '이고 시김새를 통해 육자배기토리임을 알 수 있다. (do ')-si의 꺾는 목이 출현하고, 제 26장단인 '북방화류'의 '북'에 끊는 목이 등장하며, 전반적으로 리듬 분할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상으로 1930년대 여류 명창들이 부른 <보렴>의 음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mi-la-(do ')-si-re '-mi '-sol '의 출현음으로 부르는 육자배기토리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여류 명창에 의해 불린 <보렴>은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념>의 선율이 고착화한 양상을 보이며, 중모리~중중모리장단의 틀이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1960년대 이후 녹음된 <보렴>의 음악적 특징

20세기 후반기 남도 잡가 <보렴>의 음원 자료²¹³⁾ 목록을 살펴보면, <보렴>의 창자는 모두 판소리 창자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까지는 병창이나 합창으로 부르는 양상이 나타나, 1990년대 이후에는 독창으로 부르는 음원도 발매되었다. 20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보렴>의 음악적 변화를 판소리 창자의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13) 부록2(20세기 후반기 남도 잡가 <보렴> 음원 자료 목록) 참조.

1) 박초선·한농선이 취입한 <보림(1960년대)>

박초선은 1931년생으로 2013년 8월 31일 타계하였다. 박초선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군에서 출생했으나, 유아기 이후에는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생활했다.²¹⁴⁾

한농선은 1933년 9월 14일 출생하여 2022년 4월 8일 타계하였다. 한농선은 가야금 명인 한성기의 딸로, 한농선의 집안은 전라남도 영암 일대의 무계에 종사하는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다.²¹⁵⁾

『경성방송국국악곡방송목록』²¹⁶⁾을 통해 <보림>은 1940년대까지 병창으로 불렀음이 확인하였는데, 1960년대에 <보림>을 취입한 박초선·한농선도 <보림>을 병창으로 불렀다.

박초선과 한농선은 모두 박녹주(1906~1979)의 제자²¹⁷⁾라는 공통점이 있다. 박초선과 한농선의 스승인 박녹주는 1905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출생하여 1979년 타계하였다. 박녹주는 스물일곱 살이 되던 해인 1931년에 남원시 주천면에 거주하던 김정문에게 《홍보가》를 배웠고²¹⁸⁾ 앞장에서 박녹주가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보림>을 불렀음을 확인하였다.

해방이후 1960년대 음원인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도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과 비교하여 중모리~자진모리장단 틀을 갖추고 선율의 큰 변동 없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박초선과 한농선이 부른 <보림>의 사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4) 전경옥, 앞의 책(2014), ‘박초선’ 항목 참조.

215) 전경옥, 위의 책(2014), ‘한농선’ 항목 참조.

2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2000).

217) 박녹주의 《홍보가》는 박귀희, 김소희, 박송희, 조상현, 성우향, 한애순, 한농선, 이옥천, 지순애, 박초선, 성장순 등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김기형, 『남원동편소리의세계』, 『음반으로 보는 남원 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국립민속국악원, 2002), 41쪽.

218) 동편제 《홍보가》는 송홍록-송우룡-송만갑-김정문-박녹주로 이어지며 박송희와 한농선이 《홍보가》 보유자로 인간문화재가 되었다. 김기형, 위의 글(2002), 40쪽.

[표 26]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의 사설

장단구분	단락 구분
중모리 (23장단)	제1단락 사설 상래소수/공덕해요/회향삼치/실원만을/봉위 주상전하/수만 세요/왕비전하/수제년을/세자저하/수천추요/선왕선후/원왕 생/제공종실/각안령/문무백료/진충량/도내방백/액후있고/성 주합하/제일품/국태민안/법륜전이라/나무천룡/지신님네
	제2단락 사설 동방화류/서방화류/북방화류/남방화류야/오름이야도름이야/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보살/무상심심/ 미묘법/백천만겁/난조우겨/래법정진언이/옴바라요/대다 라니/계청계수/관음보살/석가여래/문수보살/지장보살/옴 바라니/옴바라요/옴바라니/옴바라요/앞도당산/뒤도주산/ 좌우천룡/수살맥이라 성황님네/나무천룡/지신님네
중중모리 (50장단)	제3단락 사설 동에는 청제지신/나무/남에는 적제지신/나천룡/서에는 백제지신/ 나철용/북에는 흑제지신/나무천룡/중앙에는 황제지신/나무천 룡/지신님네
	제4단락 사설 아미/동방/결도장이라/이쇄남방 득청객이는/나무/삼쇄서 방 구정토로다/나무천룡/사쇄북방 영양강개이라/나무천 룡/지신님네
	제5단락 사설 도량청전/무하예/삼보천룡/강차지/아금지송/묘진언/원사자비/밀 가호/아석소로/제약업/중신구의/지소생이라/암암무사진지라/진지 소시/불여경이라/아/아/미/미/타/불
자진모리 (21장단)	제5단락 사설 도량청전/무하예/삼보천룡/강차지/아금지송/묘진언/원사자비/밀 가호/아석소로/제약업/중신구의/지소생이라/암암무사진지라/진지 소시/불여경이라/아/아/미/미/타/불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의 장단 틀인 중모리 23장단, 중중모리 50장단구성이 20세기 후반까지 그대로 전승되었으며, 자진모리는 한 장단이 추가되어 21장단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부분은 제5단락 사설 중 ‘불여경이라’이다.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의 끝에 붙어 있던 옛중모리장단으로 부르

는 <타령>은 탈락했다. <타령>이 탈락한 이유는 남도 잡가가 연창으로 불리기 때문일 것이다. 1930년대 이후 <보림>은 단독으로 부르기보다 <보림>, <육자배기> 등 남도 잡가 레퍼토리로 연창하는데, 평조로 부르는 <타령>은 육자배기토리로 부르는 남도 잡가 레퍼토리에서 돌장의 기능을 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까지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의 사설과 선율이 그대로 전승됨에 따라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도 각 단락이 ‘나무천룡 지신님네’ 또는 ‘나무아미타불’의 중지어구로 구분되며 매 단락은 la-mi-la로 중지한다.

[표 27]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의 단락별 중지 선율

단락 구분	중지 선율
제1 단락	제22장단~제23장단
	<p>나 - 무 천 - - - 룡 - 지 - 신 - - - - - 님 네</p>
제2 단락	제51장단~제52장단
	<p>나 - 무 - 천 - - - 룡 지 - - 신 님 네</p>
제3 단락	제62장단~제63장단
	<p>나 - - - - 무 - - - 천 - - 룡 - - - 지 - - 신 님 네 아 미</p>
제4 단락	제72장단~제73장단
	<p>나 - 무 - 천 - - - 룡 지 - - 신 님 네 -</p>

제 5 단락	제93장단~제94장단

위 [표 27]과 같이 매 단락 la-mi-la의 선율구조를 가지나, 제1단락의 종지선율은 떠는 목과 꺾는 목의 시김새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의 <보림>은 다양한 시김새가 추가됨에 따라 악곡의 길이는 늘어났다.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의 악곡 길이는 총 7분 19초로 이화중선·이중선이 부른 <보념>에 비해 45초 정도 늘어났다.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의 출현음과 시김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중모리장단의 악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8>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 제1장단~제8장단

위 <악보 8>을 살펴보면, 제1장단인 ‘상래소수’의 ‘상’부터 계면조의 시김새인 떠는 목과 꺾는 목이 등장한다. 출현음은 mi-la-(do')si-re'-mi'-sol' 이고, 최종 종지음은 la인 육자배기토리로 부른다. 중중모리

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의 출현음도 중모리와 동일하며, 리듬 분할과 시김새가 늘어남에 따라 애원성이 강조된 창법으로 부른다.

2) 안숙선이 취입한 <보림(1992)>

안숙선은 1949년 남원에서 출생하여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판소리 창자이다.²¹⁹⁾ 안숙선은 강도근, 김소희, 정광수, 박봉술, 성우향, 정권진에게 사사했다. 안숙선은 강순영에게 가야금 풍류를 배우면서 국악에 입문한 후 10대 시절에 김정문의 제자 강도근에게 판소리와 남도민요를 배웠다고 한다. 20세 무렵이 되자 김소희 명창에게 발탁되어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소희 문하에서 《춘향가》와 《홍보가》를 배우고 <보림>, <화초사거리>와 같은 남도민요를 익혔다고 한다.²²⁰⁾ 안숙선 창 <보림>은 앨범 가장 첫 번째 곡으로 수록되어 있고, <보림>에 이어 <육자배기>, <홍타령>,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새타령>이 차례대로 취입되어 있다. 안숙선 창 <보림>의 사설을 장단과 함께 단락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 안숙선 창 <보림>의 사설

장단구분	단락 구분
중모리 (23장단)	제1단락 사설 상래소수/공덕해요/회향삼천/시일월만을/봉위주상전하/수만세요/왕비전하/수제년을/세자전하/수천추요/선왕선위/원왕생/제궁종실/각안녕/문무백위/진충량/도내방백/위여있고/성주합하/세일품국태/민안에법률전이라/나무천룡/지신님네
	제2단락 사설 동방화류/서방화류/북방화류/남방화류야/오름이야도름이/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보살/무상심심/미묘법/백천만겁/난조우/겨/레법정진언이/옴바라요/대다라니/계계청계수/관음보살/석가여래문수보살/지장보살/옴바라
중중모리 (50장단)	

219) 박황, 앞의 책(2001), 346쪽.

220) 이보형 글, 안숙선 남도민요[Z-T100-15445](예음, 1992) 음반 해설서 참조.

	니/옴바라요/옴바라니/옴바라요/앞도당산/뒤도주산/좌우천 룡/수살맥이라성황님네/나무천룡/지신님네
	제3단락 사설
	동에는 청제지신/나무/남에는적제지신/나무천룡/서에는 백 제지신/나무/북에는 흑제지신/나무천룡/중앙에는 황제지신/ 나무천룡/지신님네
	제4단락 사설
	아미/쇄동방/결도량이라/이쇄남방의득청량이라/나무/삼쇄서 방의구정토로다/나무천룡/사쇄북방의연양강이라/나무천룡/ 지신님네
자진모리 (22장단)	제5단락 사설 도량청정/무하예/상보천룡/강차지/아곰지송/묘진언/원사자 비/밀가호/아석소조/제악업/종신구의/지소생이라/암양무사 진지라/진지소지/불여/경이라/아/아/아미/미/타/불

안숙선 창 <보림>의 중모리~중중모리장단의 틀은 각각 23장단, 50장단으로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의 장단 수가 그대로 전승되었으나, 자진모리장단은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에 비해 한 장단이 늘어난 22장단이다. 늘어난 부분은 제5단락 사설 중 ‘경이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5단락의 끝부분의 ‘불여경이라’를 길게 늘여 부르면서 ‘경이라’의 한 마디가 추가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 단락은 ‘나무천룡 지신님네’ 또는 ‘나무아미타불’의 종지 어구를 가지며, 해당 어구의 선율의 골격음은 la-mi-la이나 다양한 시김새가 추가된 모습을 보인다.

[표 29] 안숙선 창 <보림>의 단락별 종지 선율

단락 구분	종지 선율
제1 단락	제22장단~제23장단  <p>나 - 무 천 - - - - 룡 - 지 - - 신 - - - - - 님 - 네</p>

	제51장단~제52장단
제2 단락	<p>나 - 무 - 천 - - - 룡 지 - 신 - 님 네</p>
	제62장단~제63장단
제3 단락	<p>나 - - - - 무 - - - 천 - 룡 - - 지 - 신 - 님 네</p>
	제72장단~제73장단
제4 단락	<p>나 - 무 - 천 - - - 룡 지 - 신 - 님 네</p>
	제94장단~제95장단
제5 단락	<p>타 - - - - 불 - - - -</p>

제1단락의 종지 선율은 ‘지신님네’의 ‘신’에 리듬 분할이 나타나며, ‘님’은 꺾는 목으로 낸다. 제2~4단락의 종지 선율은 la-mi-la로 단순하게 진행된다. 제5단락은 꺾는 목이 추가되어 mi-la-(do')-si-la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안숙선 창 <보림>의 중모리장단의 출현음을 살펴보기 위해 악보를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악보 9> 안숙선 창 <보렴> 제1장단~제8장단

끼는 목 꾸며 끼는 목

상 - 래 - 소 - 수 - 공 - 덕 - 해 - 요

떠는 목 떠는 목

회 - 향 - 삼 - 천 - 시 - 일 - 원 - 만 - 을

리듬 분할

불 - 위 - 주 - 상 - 전 - 하 - 수 - 만 - 세 - 요

왕 - 비 - 전 - 하 - 수 - 계 - 년 - 을

안숙선 창 <보렴> 중모리장단의 출현음은 mi-la-(do')si-re'-mi'-sol' 이고, 최종 종지음은 la인 육자배기토리이다. 제1장단의 '상래소수'에서 '수'에 나타나는 (do')-si의 끼는 목은 19회 등장한다. 제2장단의 '공덕해요'의 '덕'과 같이 (mi')-(do')-si의 꾸며 끼는 목은 2회 등장한다. 제4장단의 '회향삼천'의 '향'처럼 mi는 항상 떠는 목으로 낸다. re'도 여류 명창들이 부르는 것처럼 떠는 목으로 요성한다.

위 <악보 9>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숙선 창 <보렴> 중모리장단의 선율에는 리듬 분할이 많고 시김새가 추가되어 선율이 복잡한 편이다. <보렴>의 초기 음원인 이화중선·이중선이 1929년에 부른 <보렴>의 중모리장단 음원 길이는 2분 44초였다. 박초선·한농선이 1960년대에 부른 <보렴>의 음원 길이는 3분 20초이고, 1992년에 취입된 안숙선 창 <보렴>의 중모리장단은 음원의 길이가 3분 35초이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음원의 길이가 15초 이상 길어졌음이 확인된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 <보렴>의 가창에 다양한 시김새가 추가됨에 따라 곡의 길이도 늘어난 것이다. 안숙선 창 <보렴>의 중중모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의 출현음도

mi-la-(do ')si-re ' -mi ' -sol ' 이고, la로 종지 하는 육자배기토리이며, mi의 떠는 목과 (do ')-si의 꺾는 목이 등장하였고, 다양한 시김새가 추가된 애원성으로 부른다.

본 장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보렴>의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행 <보렴>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보이는 음원은 이화중선과 이중선이 1929년에 부른 <보렴>부터이다. 해당 음원은 현행 <보렴>과 동일한 중모리~자진모리장단의 틀로 고정되었다. 그러나 옛중모리장단에 평조로 부르는 <타령>은 남도 잡가 레퍼토리에서 돌장의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탈락하여 전승되지 않는다.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렴>부터 현행 <보렴>의 선율이 정형화되어 전승되었으며, mi-la-(do ')si-re ' -mi ' -sol ' 의 출현음을 가진 육자배기토리로 부른다. 둘째, <보렴>은 사설과 마찬가지로 선율적인 측면에서도 5개의 단락으로 구분되며 매 단락은 la-mi-la의 골격음을 갖는 종지 선율로 맺는다. 셋째, 본래 사당패 소리에서 기원한 <보렴>은 축원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축원의 의미는 사라지고 감상 곡으로 기능이 변경되었다. 20세기 전반기까지 <보렴>은 여류 명창에 의해 병창으로 불렸으나, 20세기 후반부터 독창으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창자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 시김새가 추가됨에 따라 계면조화 현상이 심화되어 음원의 길이가 늘어났다.

V. 결 론

사당패집단은 20세기 초에 소멸하였으나, 사당패의 소리는 여러 민속악 장르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남도 지역에서 향유되던 <판염불>이 현행 <보렴>이라는 악곡으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보렴>이 경서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에서 유래하였다고 보기도 하였으나, 19세기 말 남도 사당패의 활발한 활동 정황이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보렴>의 음악적인 특징도 남도 지역 고유의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사당패의 <판염불>에 기원을 둔 것으로 알려진 <보렴>의 기원에 대해 알아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서도 사당패의 <판염불>에서 <보렴>이 파생한 것으로 보았고, 19세기 말 신방초의 개작으로 인해 <보렴>이 오늘날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경서도 사당패 <판염불> 기원설과 신방초 창작설 모두 <보렴>의 기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남도 사당패의 <판염불>에서 <보렴>이 기원했다는 가설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남도 사당패의 활동을 살펴본 후 사설 분석을 통해 <보렴>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설 분석 결과 <보렴>은 불경뿐 아니라 삼남 지역에 존재했던 무의식과 관련한 축원 사설들이 결합한 것임을 밝혀내었다. 다양한 축원 사설이 결합한 <보렴>의 사설적 특징을 통해 <보렴>이 가지고 있는 잡가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렴>의 기원은 경서도 사당패소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삼남 지역의 무가와 남도 지역에서 축원을 위해 부르던 <고사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남도 사당패소리 <판염불>이 <보렴>으로 판소리 명창에게 수용된 직접적인 배경을 조명하였다. 1910년대 남도 명창들은 서울의 경제적 후원 층을 잃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민간협률사를 통해 공연 활동을 펼쳤다. 여러 민간협률사 가운데서도 송만갑의 남원협률사 창자들의 활동과 <보렴>의 연관성이 주목되어 1910년대 남원협률사 소속 창자들

의 음악 활동을 살펴보았다. 송만갑의 남원협률사 창자 중 김정문으로 대표되는 잡가꾼으로 명명되던 명창들이 <보렴>을 포함한 남도 잡가를 즐겨 불러 인기를 끌었으며, 송만갑의 남원협률사에서 소속되어 활동한 이선유가 부른 《홍보가》 중 <중타령> 사설과 <보렴>의 중모리 장단 사설 일부가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보렴>은 남도 지역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던 남도 사당패의 <관염불>이 창우집단의 고사소리로 넘어간 후 1910년대 송만갑의 남원협률사 소속 창자들에 의해 <보렴>으로 개작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1920년대 이후 판소리 창자들을 <보렴>을 수용하여 부르기 시작함에 따라 대중매체에 나타난 판소리 창자의 <보렴> 가창 양상을 경성방송국 국악 방송곡 목록과 유성기음반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1950년대까지 <보렴>은 사당패소리에서 유래하여 잡가로 취급돼 판소리 명창들이 부르기 꺼렸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1920년대 이후 유파와 성별에 관계없이 판소리 창자가 수용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였다. 1930년대에는 남도 잡가가 유행함에 따라 <보렴>은 여류 명창이 부르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전반기까지 <보렴>은 여류 명창에 의해 병창으로 불렸으며, <보렴>의 갈래 명이 정립되지 않았다. 경성방송국 국악 방송곡 목록을 조사한 결과 <보렴>은 1933년 5월 이후 남도 잡가의 첫 곡으로 고착화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였고, 남도 기생들에 의해 병창으로 불렸음이 확인되었다.

제IV장에서는 20세기 이후 <보렴>의 음악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20세기 초부터 <보렴>은 mi-la-(do')si-re'-mi'-sol'의 육자배기토리로 불렸다. 산타령 류의 악곡이 평조적인 특성을 갖는 것과 달리 <보렴>은 육자배기토리로 부른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보렴>은 남도 지역에서 향유되던 <관염불>에서 유래한 악곡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렴>은 선율적으로도 사설 분석과 동일하게 5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매 단락에 la-mi-la의 종지 선율이 존재하였다. 1920년대 취임된 <보렴>의 초기 음원 중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렴>부터 현행과 같은 장단 틀과 선율로 불렸음이 확인된다.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이 1929년에 부른 <보렴>은 중중모리장단만 취임돼있기 때문에 1920년대 후반까지 <보렴>

의 장단 틀은 고정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 여류 명창에 의해 <보렴>이 가창된 시기부터 <보렴>의 중모리~중중모리장단 틀이 고정되었다. 해방 이후 1960년대에는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렴>의 선율과 사설이 전승되었으나, 옛중모리장단은 탈락하였다. 특히 20세기 후반기에 <보렴>은 축원적 기능이 탈락하고 감상곡으로 기능이 바뀜에 따라 판소리 창자들이 독창으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창자의 예술적 기량을 뽐내기 위해 시김새가 추가되어 초기의 <보렴> 음원보다 악곡의 길이가 늘어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참고 자료

1) 대담 자료

류종목·신창환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남도 울주군 강동면, 김봉금의 제보(1984.07.23.).

박경신·김구한·김옥숙·정아용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안영시의 제보(2010.02.26.).

임재해·강금희·김명자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이춘옥의 제보(1982.12.20.).

2) 신문 자료

『독립신문』, 1898년 10월 22일자 기사.

『매일신보』 1914년 3월 16일 기사.

3) 음원 자료

김창환, <중타령(상,하)>, [Regal C132-AB], 1934년. (복각)[SYNCD-103], 한국의 위대한 판소리 명창들 VII - 판소리 5명창 <김창환>, 킹레코드, 1996.

박초선·한농선, <보림>, [SEL-13-37], 남도민요 제2집, 에비씨레코드, 1960년대 녹음.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 <보림>, [Columbia 40053-A], <보념>, 1929. (복각) [SBCD-13911], 민속음악자료집 제4집-유성기음반으로 보는 경기충청의 소리 (부록 CD), 국립민속국악원, 2006.

안숙선, <보림>, [Z-T100-15445], 안숙선 남도민요, 예음, 1992.

이난향·박도일, <보념>, [Taihei 8198-B], <보령>, 1936. (복각)[HKYCD-14],

이보형 소장 논문과 함께 듣는 유성기 음반 17 남도민요 <보렴>.
이화중선·이중선, <보렴>, [Victor KJ1340-A,B], 1929. (복각)[SRCD-1158]
빅터유성기원반시리즈 7 자매명창 이화중선·이중선, 서울음반,
1994.
최계란·조소옥, <보렴>, [Million CM805], <보렴>, 1936. [KAA 0000], 이
보형 소장 자료.

4) 인터넷 사이트

국악음반박물관(hearkorea.com)
국악음반세계(gugakcd.kr)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nl.go.kr/newspaper)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lib.snu.ac.kr)
판소리학회(pansori.or.kr)
한국민족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sparchive.co.kr)

2. 참고논저

1) 단행본

국립국악원, 「진도씻김굿」, 『한국음악』 제34집, 국립국악원, 2003.
국립민속국악원, 『동편제 명창과 남원의 소리전통』, 국립민속국악원, 2002.
국사편찬위원회, 『기록과 유물로 본 우리음악의 역사』, 두산동아, 2009.
김기형 역주, 『동편제 거장 강도근 5가전집』, 박이정, 1998.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김영희,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 민속원, 2006.
김택수, 『오가전집』, 대동인쇄소, 1933.
김학성, 『잡가 사실 특성에 나타난 구비성과 기록성』, 태학사, 1999.
노재명, 『한국민요음반사전』, 국악음반박물관, 2003.

- _____,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본 판소리의 참모습』, 나라음악
큰잔치추진위원회, 2006.
- 문명대 외, 『조선시대 기록문화재 자료집I』, 한국미술사연구소 출
판부, 2011.
- 박헌봉, 『창악대강』, 국악예술학교 출판부, 1966.
- 박황, 『창극사연구』, 백록출판사, 1976.
- _____, 『판소리 이백년사』, 사사연, 2001.
- 불교성전편찬회, 『불교용어사전』, 문예마당, 2007.
- 백현미, 『한국창극사연구』, 태학사, 1997.
- 성경린·장사훈, 『조선의 민요』, 국제음악문화사, 1949.
- _____. _____,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30호 선소리 산타령,
문화재관리국, 1966.
- 성기련, 『1930년대의 판소리 음악문화』, 민속원, 2021.
-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 신재효 저, 김태준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4: 흥부전/변강쇠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신현남, 『산타령 연구』, 민속원, 2017.
-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 동문선, 1974.
- _____, 『전통문화를 찾아서』, 동문선, 2004.
- 이균옥, 『동해안 별신굿의 전승양상』, 국립민속박물관, 2009.
- 이능화 저,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창비, 2008.
- 이보형, 『브리테니커 팔도소리(전라도 소리)』, 한국브리테니커,
1984.
-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흥인문화사, 1976.
- 장사훈, 『국악개요』, 정연사, 1961.
- _____, 『최신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9.
- _____,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1.
- 적송지성(赤松智城) 외, 『조선무속의 연구下』, 동문선, 1991.
- 전경욱,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정각, 『천수경 연구』, 운주사, 1996.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정재호 편주, 『한국잡가전집』, 계명문화사, 1984.

_____, 『한국속가전집2』, 다운샘, 2014.

정현석, 『교방가요』, 1872.

조영규, 『바로 잡는 헝틀사와 원각사』, 민속원, 2008.

최난경, 『동편제와 서편제 연구』, 집문당, 2006.

_____, 『이선유오가전집』, 박이정, 2008.

최동현·유영대, 『판소리 동편제 연구』, 태학사, 1998.

최동현, 『판소리란 무엇인가』, 에디터, 1994.

_____, 『판소리 이야기』, 작가, 2001.

_____, 『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 민속원, 2010.

_____, 『김연수 완창 판소리 다섯바탕 사설집』, 민속원, 2016.

최혜진 교수, 『계우사, 이춘풍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21.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 한결음더, 20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민속원, 2000.

한만영, 『불교음악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2) 연구논문

강관식, 「용주사 <삼세불회도>의 축원문 해석과 제작시기 추정」, 『미술자료』 제9집, 국립중앙박물관, 2019.

강한나, 「남도 잡가 보림 지도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김기형, 「남원동편소리의세계」, 『음반으로 보는 남원 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 국립민속국악원, 2002.

김삼진, 「보림과 예불문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24집, 한국국악학회, 1996.

김종진, 「잡가의 종교성과 세속성」, 『불교학보』 제57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 김종철, 「무속이타령(왈자타령) 연구」, 『한국학보』 18권 3호, 일지사, 1992.
- 김혜정, 「민요에 나타난 새로운 음악의 수용과 변용-한국 서남해 도서지역의 남사당노래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29집, 한국국악학회, 2001.
- _____, 「경기와 남도의 음악 문화적 접변 양상과 의미」, 『유성기 음반으로 보는 경기 충청의 소리』, 국립남도국악원, 2006.
-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9집, 한국국악학회, 2001.
- _____,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38집, 한국국악학회, 2005.
- 박기현, 「수영지신밟기의 연행적 특징과 명인들」, 『영남춤학회지』 8권, 영남춤학회, 2020.
- 반혜성, 「진도 마당놀이요에 관한 연구-남사당패와의 관련성 여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방영기, 「근대 시기의 선소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서정매, 「동해안 오구굿 중 판염불에 나타난 불교음악의 영향 : 김장길의 소리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34권, 한국공연문화학회, 2017.
- 서치상,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5권,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
- 성기련·이보형, 「한승호 명창 대담」, 『판소리 연구』 제16권, 판소리학회, 2003.
- 손인애, 「사당패소리 방아타령 연구-서남해 도서 지역의 사당패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5집, 한국민요학회, 2004.

- _____, 「토속민요 배꽃타령 계통 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제17집, 한국민요학회, 2005.
- _____,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손태도, 「경기 명창 박춘재론」, 『한국음반학』 제7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7.
- _____, 「광대 고사 소리에 대하여」, 『한국음반학』 제11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1.
- 손태룡, 「최계란 명창과 대구 아리랑 고찰」, 『대구경북연구』 제13집, 대구경북연구원, 2014.
- 송석하, 「사당고」, 『조선민속』 제3호, 조선민속학회, 1940, 110쪽.
- 신은주, 「20세기 전반 여류명창 조농옥」, 『동양음악』 제39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6.
- 신지대, 「박춘재 재담소리의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엄국현, 「보림의 양식과 삶의 자리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47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 오호, 「송만갑 애도」, 『삼천리』 1939년 4월호, 삼천리사.
- 윤량석, 「남도민요 보림 가락의 이디엄」, 『동서문화』 제3권,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9.
- 이보형, 「판소리 제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학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_____, 「무형문화재조사전수실태조사(9)」, 『월간문화예술』 통권 100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
- _____, 「창우집단의 광대소리연구」, 『한국전통음악논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_____, 「판소리 공연문화의 변동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 _____, 「백점봉 소리제 소고」, 『한국음반학』 제12호, 한국고음반

- 연구회, 2002.
- _____, 「창우 집단의 광대소리 형성에 관한 고찰」, 판소리학회 제42차 학술발표대회, 2003.
- _____, 「송기덕 육자백이 음반 연구」, 『한국음반학』 제14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4.
- _____, 「조선말기 사찰 밖의 불교 음악개관」, 『한국전통음악학』 제6집, 한국전통음악학회, 2005.
- 이보형, 「남도 잡가 생성 변화와 음악특성 변화」, 『추계 국악학 전국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국악학회, 2006a.
- _____, 「보림 장단 리듬 통사구조 연구」, 『한국음반학』 제16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6b.
- _____, 「화초사거리 연구」, 『한국음반학』 제17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7.
- 이수정, 「1960년대 국악계 동향」, 『음악학』, 한국음악학회편, 2003.
- 이용식, 「일제강점기 대중매체에 의한 남도 잡가의 공연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26권, 공연문화학회, 2013.
- 이태화, 「20세기 초 협률사 관련 명칭과 그 개념」, 『판소리연구』 제24권, 판소리학회, 2007.
- 이혜구, 「1930년대 국악방송」, 『국악원논문집』 제9집, 국립국악원, 1997, 255쪽.
- 임이나, 「무기에서 천수경의 기능과 음악적 특징」, 『국악원논문집』 제32호, 국립국악원, 2015.
- 성경린, 「서울의 속가」, 『향토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8.
- 장휘주, 「사당패소리와 경기입창」, 『경기전통예술연구 시리즈 경기잡가』, 경기도 국악당, 2006a.
- _____, 「사당패 관련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 『공연문화연구』 제13권, 한국공연문화학회, 2006b.
- 정충권, 「1900-1910년대 극장무대 전통 공연물의 공연양상 연구」,

- 『판소리연구』 제16권, 판소리학회, 2003.
- _____, 「20세기 초 극장무대 전통공연물의 향유방식」, 『고전문학과 교육』 제38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 조유미, 「놀량의 악곡 구조 연구」, 『한국음반학』 제5호, 한국고음반 연구회, 1995.
- 진회숙, 「진도 들노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최난경, 「이선유 명창론」, 『한국음악연구』 제30집, 한국국악학회, 2001.
- 최혜진, 「이화중선의 생애와 예술성」, 『판소리 연구』 제15권, 판소리학회, 2003.
- 한만영, 「산타령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음악연구』, 풍남, 1991.

3) 기타

- 이보형 글, 안숙선 남도민요[Z-T100-15445], 예음, 1992, 음반 해설서.

Abstract

The origin of Namdo Japga <Boryeom> and Pansori singers in the 20th-century Acceptance and Performance of <Boryeom>

LEE EUNBEE

Major in Korean Musicology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he origin <Boryeom> and the acceptance pattern of pansori singer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Boryeom> originated from the sound of Sadangpae in Gyeongseo-do, <Panyeombul>, and it had the same musical characteristics as it is today by Sinbangcho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preceding study on the origin of <Boryeom> was reviewed by dividing it into the theory of the origin of <Panyeombul> in Sadangpae, Gyeonggi-do, and the theory of renovation of Sinbangcho. As a result of the review, all the hypotheses of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clearly explain the origin of <Boryeom> so I

tried to explain the origin of <Boryeom> from a new perspective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Chapter II, through the editorial analysis of <Boryeom>, it was found that <Boryeom> shares various auspicious prayers such as <Sound of Gosa>, which was sung by shamanic songs in the Jeolla Province. Therefore, it could be found that <Boryeom> originated not from the Sadangpaesori <Panyeombul> in Gyeongseo-do, but from a combination of Gosa-sori with a prayer function that existed independently in Namdo from before the 20th century.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combination of various editorial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vention of the Changwoo group.

Chapter III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acceptance of pansori singers in the early 20th century.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Sadangpae sound was treated as Japga in traditional society, and Pansori singers did not enjoy singing it, but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Pansori singers began to sing <Panyumbul> in Jeolla-do. The background of Pansori singers' acceptance of the Sadangpae sound <Panyeombul> and call it <Boryeom> was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activities of the singers of Namwon Hyeopryulsa led by Song Man-gap in the 1910s. It was confirmed that the Namwon Hyeopryulsa, led by Song Man-gap, belonged to Kim Jung-moon, who used to sing <Boryeom>, and that some of the <Jungtaryeong> and lyrics of <Boryeom> were shared among Song Man-gap and Kim Jung-moon's «Heungboga». Through the research in this chapter, it was found that as the pansori performance culture chan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ingers of Namwon Hyeopryulsa, who pursued popularity, accepted the Sadangpae's <Panyeombul> and adapted it into <Boryeom>. From the 1920s, <Boryeom> was accepted by Pansori singers. The singing patterns of Pansori singers' <Boryeom> in the mass

media were examined through the 『List of Gyeongseong Broadcasting Station Korean Traditional Music Broadcasting』 and the phonetic record. Until the 1940s, the classification name of <Boryeom> was not decided, and it could be seen that two Namdo gisaengs sang mainly.

In Chapter IV, the musical changes of <Boryeom> in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were examined mainly. <Boryeom> sung by Lee Hwa-jung-sun, the younger brother of Lee Hwa-jung-sun, who learned the sound from Kim Jung-moon in Namwon Gwonbeon, and it has music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e current <Boryeom>. In the 1930s, Namdo gisaengs sang <Boryeom>, and the rhythm frame was fixed to Jungmori-Jungjungmori rhythm. After the 1960s, the interfacial harmonization phenomenon accelerated, resulting in a longer length of the sound source, and a variety of sounds were used through the sound source analysis of Park Cho-sun and Han Nong-seon Chang <Boryeom> and Ahn Sook-sun.

Key Words: Sadangpae, Panyeombul, Namdo Japga, Boryum, Namdo Sadangpae.

Student Number: 2021-26026

부록 1. 『경성방송국국악곡방송목록』221) 중 <보림>

방송날짜	시간	갈래 명	곡명	연행자
1927.12.13.(화)	18:00	남도단가 독창 급 합창	보림, 화초사거리, 농부가 외 잡가 수중	모추월 원채옥 이소향
1930.5.22.(목)	21:30	남도단가	륙자백이, 흥타령, 우타령, 화초사거리, 보림	고계선 고비연
1932.2.27.(토)	21:45	남도잡가	단가, 육자가, 보림, 화초사거리 외	고계선 고비연
1932.3.12.(토)	21:30	남도입창	단가, 보림, 화초사거리, 육자가	박녹주 이소향
1932.4.13.(수)	21:30	남도입창	단가, 보림, 화초사거리, 육자가	이소향 이금홍
1932.5.15.(일)	18:30	남도입창	단가, 륜자배기, 보림, 화초사거리	이금홍 이소향
1932.6.4.(토)	21:45	남도단가	단가, 보림, 화초사거리, 육자가	이소향 이금홍
1932.7.6.(수)	21:30	남도입창	단가, 보림,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고계선 고비연
1932.8.14.(일)	18:30	남도입창	추월만정, 보림,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임명옥 고비연
1932.10.14.(금)	21:30	단가와 민요	만고강산, 보림,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고계선 고비연
1933.1.31.(화)	21:30	단가와 민요	단가, 보림, 화초사거리, 륜자배기	고계선 박명화
1933.5.11.(목)	20:30	남도민요	보림, 새타령,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하농주 김금옥
1933.5.29.(월)	12:05	남도단가	새타령, 보림, 화초사거리,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금옥 김남수
1933.6.5.(월)	21:00	잡가	보림,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흥타령	한송선 김경란
1933.6.10.(토)	12:05	잡가	새타령, 보림, 화초사거리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금옥 이소향
1933.6.24.(토)	12:05	잡가	보림,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한송죽 김경란
1933.7.5.(수)	20:30	단가와 속요	단가, 이별가, ○사거리, 육자백이, 사거리	이금홍 윤옥향
1933.7.21.(금)	20:00	남도잡가	보림, 새타령,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흥타령, 날개타령	김여란 박향초

2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성방송국국악곡방송목록』(민속원, 2000).

1933.7.27.(목)	20:00	잡가	1.보님 2.새타령 3.육자백이 4.자진육자백이 5.홍타령 6.개고리타령	김남수 김채련
1933.8.10.(목)	12:05	남도잡가	보님, 육자백이, 자진잡가, 삼정가, 홍타령, 개고리타령	송난향 김매향
1933.9.13.(수)	12:05	잡가	1.보님 2.새타령 3.육자백이 4.자진육자백이 5.홍타령 6.개고리타령	이취향 주난향
1933.9.25.(월)	20:00	남도잡가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김여란 박향초
1933.10.10.(화)	21:00	남도잡가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홍타령, 날개타령	김여란 박향초
1933.10.18.(수)	21:00	남도잡가	1.보님 2.새타령 3.육자백이 4.자진육자백이 5.홍타령 6.개고리타령	이취향 주난향
1933.10.24.(화)	12:05	남도잡가	1.보님 2.새타령 3.육자백이 4.자진육자백이 5.홍타령 6.개고리타령	김남수 김채련
1933.10.28.(토)	12:05	남도잡가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홍타령, 날개타령	김여란
1933.11.11.(토)	20:00	남도잡가	새타령, 보님, 화초사거리, 홍타령, 개고리타령	이취향 이금옥
1933.11.20.(월)	21:00	남도잡가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타령, 날개타령	조소옥 김남수
1933.12.05.(화)	20:00	남도잡가	화초사거리, 보님, 새타령, ○타령, 개고리타령	김금옥 김남수
1933.12.28.(목)	20:30	남도잡가	보님, 육자백이, 삼산반탁, 개고리타령, ○타령	임명월 한농선

1934.1.12.(금)	20:30	남도잡가	1.보님 2.새타령 3.육자백이 4.자진육자백이 5.홍타령 6.개고리타령	이취향 주난향
1934.1.18.(목)	20:40	남도잡가	화초사거리, 보님, 새타령, 홍타령, 개고리타령	김남수 김금옥
1934.1.31.(수)	12:05	남도잡가	보님,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윤옥향 이금홍
1934.2.6.(화)	20:00	남도잡가	1.보님 2.새타령 3.육자박이 4.자진육자박이 5.개고리타령 6.홍타령	주난향 이취향
1934.3.3.(토)	20:00	속곡	1.보님 2.타령 3.방아타령 4.양산도 5.한강수타령 6.산염불 7.경아리랑 8.닐리리야	최수성 (양금) 지용구 (해금) 고재덕 (세적)
1934.3.10.(토)	12:05	남도잡가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김소옥 김매향
1934.3.28.(수)	20:30	남도잡가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김매향 조소옥
1934.4.24.(화)	12:05	남도잡가	보님, 육자백이와 자진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이금홍 이월향
1934.5.9.(수)	20:00	남도잡가와 창극조	1.남도잡가 가)보님 나)육자백이 다)홍타령	김남수 염계화
1934.5.15.(화)	12:05	남도잡가	보님,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이금홍 이월향
1934.5.19.(토)	20:00	남도잡가	보님, 육자백이, 신타령, 홍타령	김종기 김소희
1934.5.26.(토)	20:00	남도잡가	보님, 새타령, 홍타령	조소옥 김매향

1934.5.30.(수)	12:05	남도잡가	1.보님 2.육자백이와 자진육자백이 3.새타령 4.홍타령 5.개고리타령	김금옥 홍소월
1934.6.4.(월)	12:05	남도잡가	1.보님 2.육자백이와 자진육자백이 3.새타령 4.홍타령 5.개고리타령	김남수 홍소월
1934.6.12.(화)	20:00	남도속요	1.보님 2.육자백이와 자진육자백이 3.새타령 4.홍타령 5.개고리타령	이취향 주난향
1934.6.19.(화)	12:05	남도속요	보님, 육자백이와 자진육자백이, 새타령, 홍타령	김매향 조소옥
1934.7.10.(화)	12:05	남도잡가	단가, 보님, 육자백이, 새타령, 홍타령	이금홍 윤옥향
1934.7.16.(월)	21:31	남도속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홍타령	김남수 염계화
1934.7.25.(수)	20:25	남도잡가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타령	조소옥 박산월
1934.8.1.(수)	12:05	남도속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와 자진육자백이, 홍타령	김남수 염계화
1934.8.11.(토)	20:30	남도속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이금홍 김해선
1934.9.23.(일)	20:00	속요와 농부가	보님,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농부가	오태석 김종기 조상선 주난향 김연수
1934.10.5.(금)	21:00	남도속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김남수 조소옥
1934.10.23.(화)	20:00	○경조년용	보님, 육자백이, 농부가	홍소월 변진홍 오태석 김종기 조상선

1934.11.1.(목)	21:1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이금홍 김금옥 박종기 (대금)
1934.11.8.(목)	20:00	남도가요	1.보님 2.성주풀이 3.남도아리랑	-
1934.11.12.(월)	12:05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변진홍 홍소월
1934.11.6.(금)	20:00	남도가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금옥 박산월
1934.11.21.(수)	12:05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경란 한송죽
1934.12.4.(화)	20:30	남도가요	보님, 성주푸리, 길군악, 방아타령, 아리랑	오태석 김중기 김유앵 방용현 (대금) 이일선 (세적) 김봉업 (해금) 임중성 (장고)
1934.12.10.(월)	12:05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와 자진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금홍 김금옥
1934.12.17.(월)	21:00	남도가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미상
1934.12.24.(월)	12:05	남도가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금옥 이금홍 박종기 (대금)
1934.12.30.(일)	21:00	남도가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고비봉 변진홍
1935.3.10.(일)	12:50	남도가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변진홍 김유앵
1935.3.14.(목)	20:00	남도가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타령, 개고리타령	김금옥 박산월 박종기 (대금)

1935.3.20.(수)	12:05	남도가요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금홍 김금옥 박종기 (대금)
1935.3.30.(토)	12:05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소옥 성농선 박종기 (대금)
1935.4.4.(목)	20:30	남도가요	보념, 화초사거리, 새타령	조진영 정유색 박종기 (대금)
1935.4.9.(화)	12:05	남도가요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고비연 박산월 박종기 (대금)
1935.5.1.(수)	12:05	보념 외 4곡	보념, 화초사거리,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고계선 고비연 박종기 (대금)
1935.5.7.(화)	20:30	보념 외 4곡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금옥 박산월
1935.5.30.(목)	21:00	보념 기타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옥 신숙
1935.6.6.(목)	21:00	화초사거리 외	화초사거리,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고계선 고비연
1935.6.17.(월)	12:05	남도가요와 대금 독주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대금독주 산조	조진영 박종기 (대금)
1935.6.20.(목)	21:00	보념 외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신금홍 김소희
1935.6.25.(화)	20:30	새타령 기타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오비취 신숙
1935.7.3.(수)	12:05	보념 외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진영 박종기 (대금)
1935.7.9.(화)	20:30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소옥 조농옥
1935.7.26.(금)	12:05	화초사거리 외	화초사거리,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고계선 고비연

1935.8.1.(목)	21:30	보넴 외	보넴,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오비취 김소희
1935.8.7.(수)	21:30	새타령 외	새타령, 보넴,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여란 이기화
1935.8.21(수)	21:30	보넴 외	보넴,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추월 조농선 박종기 (대금)
1935.8.27.(화)	20:30	화초사거리 외	보넴,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고계선 고비연
1935.9.2(월)	12:05	보넴 외	보넴,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정유색 김옥화
1935.9.12.(목)	21:00	○○와 농부가	보넴, 육자백이, 흥타령	정원섭 오태석 김세준 조상선 김연수 김소희
1935.9.22(일)	21:00	보넴 외	보넴,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변진홍 박산월
1935.10.4.(금)	12:05	화초사거리 외	화초사거리, 보넴,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고계선 고비연
1935.10.11.(금)	21:00	보넴 외	보넴,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오비취 신숙
1935.10.18.(금)	20:00	보넴 외	보넴,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소옥 조농선 박종기 (대금)
1935.10.29.(화)	20:00	화초사거리 외	화초사거리, 보넴,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정유색 박국화
1935.11.4.(월)	20:30	성주পুর이 외	보넴, 새타령, 육자백이, 성주पुर이	정남희 김세준 조금옥 조소옥 방용현 (대금) 방성준 (세적) 지용구 (해금)

1935.11.14.(목)	20:00	새타령 외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오비취 신숙 박종기 (대금)
1935.11.17.(일)	20:30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변진홍 홍소월 박종기 (대금)
1935.11.24.(일)	12:05	새타령 외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정유색 김유앵 박종기 (대금)
1935.11.29.(금)	12:05	보님 외	화초사거리,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고계선 고비연
1935.12.8.(일)	12:05	새타령 외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오비취 김연수
1935.12.14.(토)	20:20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변진홍 홍소월 박종기 (대금)
1935.12.23.(월)	20:00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소옥 조농선
1935.12.30.(월)	13:20	새타령 외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정유색 김유앵 박종기 (대금)
1936.1.7.(화)	12:05	화초사거리 외	보님,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고계선 고비연
1936.1.16.(목)	12:05	새타령 외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장유색 김유앵
1936.1.21.(화)	12:05	속곡	보님, 타령, 신아위, 굿거리	김덕진 (해금) 정원섭 (대금) 한성준 (세적) 지용구 (고수)
1936.1.22.(수)	20:00	새타령 외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오비취 신숙

1936.1.29.(수)	12:05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조소옥 조농옥
1936.2.29.(토)	12:05	미상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타령	이소향 변진향
1936.3.5.(목)	20:00	새타령 외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오비취 신숙 박종식 (대금)
1936.3.17.(화)	21:00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변진홍 홍소월 박종기 (대금)
1936.3.24.(화)	12:05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조소옥 박종기 (대금)
1936.3.28.(토)	21:06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유앵 정유색
1936.4.8.(수)	20:00	새타령 외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흥타령	김난향 박녹주 박종기 (대금) 영목미좌보 222) 이흥렬 (피아노 반주)
1936.4.18.(토)	20:30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흥타령	정유색 조유앵
1936.4.28.(화)	20:30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흥타령	김연수 김남수
1936.5.2.(토)	12:05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흥타령	신숙 조소옥
1936.5.10.(일)	22:00	남도가요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김소희 조소옥 정남희 (가야금) 박종기 (대금)
1936.5.15.(금)	20:30	화초사거리	보념,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고계선

		외	개고리타령	고비연
1936.5.22.(금)	21:30	보님 외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김연수 신숙
1936.5.28.(목)	12:05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홍타령	홍소월 최소옥
1936.6.7.(일)	21:00	보님 외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홍타령	신숙 김유앵 박종기 (대금)
1936.7.7.(화)	12:05	새타령 외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홍타령	김소희 조소옥
1936.7.15.(수)	12:05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변진홍 오비취
1936.7.20.(월)	12:05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최소옥 홍소월
1936.7.25.(토)	21:00	화초사거리 외	화초사거리,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고계선 고비연
1936.8.5.(수)	21:40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김소희 조소옥
1936.8.12.(수)	20:30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신숙 오비취
1936.8.17.(월)	20:30	화초사거리 외	보님,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홍타령	고계선 고비연
1936.8.25.(화)	12:05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최소옥 홍소월
1936.8.28.(금)	21:00	보님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변진홍 조농옥
1936.9.20.(일)	12:05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김금옥 김남수
1936.9.24.(목)	20:30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최소옥 홍소월
1936.10.7.(수)	12:05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조소옥 김소희
1936.10.12.(월)	20:00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변진홍 김유앵
1936.10.15.(목)	21:00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신숙 오비취
1936.10.20.(화)	20:00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김남수 김금옥
1936.11.2.(월)	20:45	보님 외	보님,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조소옥 김소희

1936.11.5.(목)	12:05	보넝 외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난옥 조금옥
1936.11.10.(화)	20:00	보넝 외	보넝, 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캐지나칭칭	오비취 신숙
1936.11.25.(수)	20:00	보넝 외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유앵 변진홍
1936.12.2.(수)	20:00	보넝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소희 조소옥
1936.12.8.(화)	12:05	보넝 외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난옥 조금옥
1936.12.13.(일)	20:30	보넝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조농옥
1937.1.3.(일)	13:15	보넝 외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소희 조소옥 박종기 (대금)
1937.1.12.(화)	12:05	보넝 외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난옥 조금옥
1937.1.16.(토)	20:30	보넝 외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조농옥 박종기 (고수)
1937.1.22.(금)	12:05	새타령 외	보넝,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오비취 김연수
1937.1.30.(토)	12:05	보넝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옥화 정유색
1937.2.5.(금)	21:00	보넝 외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조농옥 박종기 (대금)
1937.2.9.(화)	12:05	보넝 외	보넝,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난수 이소향
1937.2.13.(토)	21:00	남도민요	1.보넝 2.육자백이 3.캐지나칭칭나네 4.방아타령 5.보리타작소리 6.진도아리랑	정유색 김연수 오비취 박종기 (대금)
1937.2.18.(목)	12:05	보넝 외	보넝,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난옥 조금옥

1937.2.22.(월)	20:30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소희 조○옥
1937.3.29.(월)	20:00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소옥 조농선
1937.4.3.(토)	21:00	보념 외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연수 오비취 박종기 (대금)
1937.4.14.(수)	20:25	보념 외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소희 조소옥
1937.5.14.(금)	20:30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소희 조소옥
1937.5.17.(월)	20:00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남수 김소향
1937.5.24.(월)	20:25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소향 조농옥
1937.9.3.(금)	20:15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초월 박옥화
1937.10.2.(토)	21:00	-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오비취 김연수
1937.10.19.(화)	20:45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박소향 성추월
1937.11.1.(월)	20:25	-	보념, 새타령, 성주পুর이, 농부가	김연수 오비취 신쾌동 (현금) 박종기 (대금)
1937.11.11.(목)	12:05	-	보념, 새타령, 농부가	신쾌동 정남희 조소학
1937.12.3.(금)	19:40	-	보념, 육자백이, 농부가	박종성 강남○ 정남희 신쾌동 조소옥 성추월
1937.12.29.(수)	12:05	가야금과 대금	보념, 새타령, 군노사령	오태석 (가야금) 박종기

				(대금) 조상선 (장고)
1938.1.4.(화)	21:00	-	화초사거리, 보념, 농부가	오태석 정남희 김○○ 신쾌동 조영근 이소향 김○○
1938.1.16.(일)	19:35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성농운 성추월 신쾌동 (현금) 박종기 (대금)
1938.3.5.(토)	20:30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박소향
1938.3.12.(토)	20:10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날개타령	박옥화 강계향
1938.3.30.(수)	21:10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김유앵 조농선
1938.4.9.(토)	20:30	-	보념, 육자백이, 새타령	김연수 오비취
1938.5.22.(일)	20:00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소옥 김소희
1938.6.30.(목)	20:30	-	보념,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진도아리랑	박소향 고계선
1938.7.24.(일)	13:20	경성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최계란 신금향
1938.8.9.(화)	20:45	미상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신채봉
1938.8.22.(월)	21:00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신금향 최계란
1938.8.28.(일)	12:00	-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연옥 조금향
1938.11.5.(토)	21: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진도아리랑	박소향 성추월
1938.11.12.(토)	20:30	남도가요	보념,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허란엽 오비취

1938.11.27.(일)	19:3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소옥 조농선
1938.12.7.(수)	20: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날개타령, 흥타령	박옥화 강계향
1938.12.17.(토)	20:30	남도가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연수 오비취 허난수
1939.1.22.(일)	20:30	남도가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오비취 허난수
1939.2.20.(월)	21: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조농옥
1939.3.8.(수)	21: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타령	조농선 조농옥
1939.3.17.(금)	20:35	남도가요	보님, 새타령, 육자백이, 흥타령	오비취 허난수
1939.4.2.(일)	12: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소향 정석연
1939.4.6.(목)	21: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날개타령, 흥타령	박옥화 박추월
1939.4.20.(목)	20: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유앵 이난향
1939.6.26.(월)	20:3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오비취 허난수
1939.7.15.(토)	21:1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고계선 고비연
1939.7.23.(일)	13: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초월 임유앵
1939.7.27.(목)	20: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모향화 강유앵
1939.8.22.(화)	21: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난향 이옥희
1939.9.11.(월)	20:3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농선 신채란 박종기 (대금)
1939.9.16.(토)	21:00	남도민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오비취 허난수
1939.9.24.(일)	20: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초선 박초월
1939.10.23.(월)	21: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농선 신채란 박종기

				(대금)
1939.10.31.(화)	21: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초월 박초선
1939.11.30.(목)	20: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난옥 조금옥
1939.12.13.(수)	21: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취향 조금옥
1939.12.26.(화)	20: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강유앵 정채란 박향초
1940.1.3.(수)	21: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초선 박초월
1940.1.7.(일)	20:2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난옥 조금옥
1940.1.18.(목)	20:4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최숙자 신채란
1940.1.24.(수)	21: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오비취 김연수
1940.2.15.(목)	20:2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김매향 이기화
1940.3.8.(금)	20:4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채숙자 신채란 박종기 (대금)
1940.3.14.(목)	19:5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채숙자 신채란 박종기 (대금)
1940.3.29.(수)	20:3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기화
1940.4.10.(수)	20:3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신금향 조농선 박해옥
1940.4.12.(금)	20:25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김봉선 정근화
1940.4.30.(화)	20: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기화 이난향
1940.5.5.(일)	20:35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박추월 김금화
1940.5.11.(토)	20:3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봉란 신명화

				방백도
1940.5.17.(금)	20:2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박옥화 박추월
1940.6.2.(일)	20:45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기화
1940.6.10.(월)	20:5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채숙자 박농선
1940.6.29.(토)	20:4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날개타령	백운 박금
1940.7.28.(일)	20:2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장숙자 신채란
1940.8.4.(일)	20: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기화 이난향
1940.8.13.(화)	20:2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조채옥 채숙자
1940.8.19.(월)	20:3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임유앵 유향앵
1940.11.6.(수)	20:3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이기화 이난향
1940.11.30.(토)	20:4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신채란 채숙자 평산쾌동 (현금) 신혁종기 (대금) 박상근 (가야금)
1940.12.7.(토)	20: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새타령	이기화 이난향
1940.12.22.(일)	21:0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고계선 고비연
1941.1.6.(일)	21:1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신채란 채숙자
1941.2.2.(일)	20:5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이기화 이난상
1941.2.8.(토)	20:35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신채란 조농옥
1941.3.7.(금)	20:15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 흥타령	신채란 박봉선
1941.4.6.(일)	20:40	남도가요	보님, 육자백이, 흥타령	고계선 고비연

1941.5.15.(목)	20:1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일선 김주 박종기 (대금)
1941.5.31.(토)	20: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조금옥 조연옥
1941.7.11.(금)	20: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고계선 고비연
1941.7.20.(일)	20:2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박○월 중조선 한갑득 (현금)
1941.9.4.(목)	20: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이난향 김일선 조영학 (가야금)
1941.9.8.(월)	20:3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이난향 김일선
1941.9.25.(목)	21:0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조금옥 이소향
1941.10.23.(목)	20:30	남도가요	보념,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김순희 조소옥 한○환 (대금)
1942.8.27.(목)	20:00	남도민요	보념, 육자가	이정조선 이정초월
1942.9.9.(수)	20:00	남도민요	보념, ○타령, 남도수○○가	미상
1942.12.26.(토)	21:00	남도민요	보념, 육자가	김숙자 김일선
1943.2.2.(화)	21:00	남도민요	보념, 사○패	김일선 김○자
1943.9.5.(일)	21:00	남선가요	보념, 육자가	김덕자 이정엽 (장고)
1943.11.2.(화)	21:00	남선민요	보념, 육자가	○○옥 ○춘○
1944.2.16.(수)	20:00	남선민요	보념, 육자가	김○자 ○○○

222) 영목미(鈴木美佐保, 일본어로 스즈키 마사오)는 성악가로 아악전문가이자 군인인 이종태의 부인으로 추정된다. 영목미에 관한 정보는 나운영의 『한국양악근대음악연주목록1(1907-1930)』

부록 2. 20세기 후반기 남도 잡가 <보림> 음원 자료 목록²²³⁾

번호	제작사·음반번호	분류	갈래명	곡명	창자	시기
1	킹스타레코드	릴 테이프 ²²⁴⁾	남도민요	보림	성우향	1960
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채록 음반집3	릴 테이프 ²²⁵⁾	남도민요	보림	성우향·김효순· 신유경	1965
3	에이비씨 레코드회사 (SEL-13-37)	LP	남도민요	보림	박초선·한농선	1960년대
4	신세계음반주식 (회사 S민-4010)	LP	남도민요	보림	성창순·오정숙	1976
5	대한음반제작소 (SLD-1019)	LP	남도민요	보림	취입자 성명 미상 ²²⁶⁾	1972
6	대도레코드사 (DS-00-7231)	LP	남도민요	보림	박송희·조순애	1977
7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릴 테이프	릴 테이프 ²²⁷⁾	남도입창	보림	김소희·신유경· 안숙선 일행	1970년대 추정
8	현대음향주식회 사 (HSJ-민022)	LP	남도민요	보림	오정숙·성우향· 남해성	1970년대 후반
9	현대음향주식회사 (HOCD-013) ²²⁸⁾	LP	남도민요	보림	김소희·박귀희· 안향련·오정숙· 남해성	1970년대 후반
10	지구레코드공사 (JSL-1201866~ 12018176) ²²⁹⁾	LP	전라도 소리	보림	성창순·오정숙	1983
11	국립국악원 (JCD-9311/3)	CD	민요	보림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²³⁰⁾	1993
12	신세계음향공업 주식회사 (SICD-016)	CD	남도민요	보림	성창순·오정숙	1980년대 추정 ²³¹⁾
13	킹레코드 (SYNCD-076)	CD ²³²⁾	민요	보림	김소희	1990년대 발매 ²³³⁾
14	아름음반 (SKC T100-15445)	CD	남도민요	보림	안숙선	1991
15	서울음반 (SRCD-1388)	CD	불교음악	보림	이광수 ²³⁴⁾	1997

을 참조했다.

223) 20세기 후반기의 <보림> 음원 자료는 노재명의 국악음반박물관(hearkorea.com), 배연형의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parchive.co.kr), 정창관의 국악음반세계(gugakcd.kr)의 사이트와 노재명의 『한국민요음반 사전』(국악음반박물관, 2000)을 참고했다.

224) (원반 정보 없음) 카세트릴테이프(예음사 YS-0117)으로 발매되었으며, 킹스타레코드에

16	김수연관소리 연구소 (KSYCD-011)	CD	-	보림	김수연	1999
17	대원레코드 (SRCR-7788)	CD	남도민요	보림	박양덕	1999

- 서 녹음, 제작된 여러 음반에서 발췌, 재편집 한 것이다. 녹음 시기는 1959-1960년으로 추정된다.
- 225) (원반 정보 없음) 카세트 릴 테입 형태였으나, 디지털화 사업이 진행되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snu.ac.kr)에서 들을 수 있다.
- 226) 카세트 릴 테입(오아시스레코드사 OL-2383)으로 재발매 되었다. 해당 음반에는 취입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박초선과 박봉선 이중창임을 알 수 있다. 기악 반주자들 역시 성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녹음을 들어보면 연주 기량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한다. 노재명, 『한국민요음반사전』(국악음반박물관, 2003), 114쪽.
- 227) 해당 음원은 2007년 12월 1일 국악학자 한명희가 국악음반박물관에 기증한 카세트 릴 테입으로 1970년대 녹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림>의 중모리~중중모리장단이 녹음이 되어 있고, 자진모리장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 228) 같은 시기 현대음향주식회사 카세트 릴테입(HDOC-013(1MC))으로도 발매되었다.
- 229) 『뿌리깊은나무팔도소리』(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4), 11장의 LP 중 <보림>은 제3권 전라도 소리 Side-A 1번 트랙이다.
- 230) 황용주·박상옥·염창순·백애진·홍영순·성창순·이은하.
- 231) 제작 시기는 1988년이다.
- 232) 해당 음반은 카세트 릴 테입(킹레코드 SYNT-076)으로도 동시 발매되었다.
- 233) 제작 시기는 1994년이다.
- 234) 이광수가 부른 <보림>은 현행 남도 잡가 <보림>과 거리가 먼 비나리 중심의 음원이다. 이광수는 남사당패 출신의 타악기 연주자다. 1952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남사당패를 이끌던 부친 이점식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 남사당패 행중으로 활동하였다. 1978년에는 김용배, 김덕수, 최종실과 함께 사물놀이를 창시했다. 이광수의 음반에는 <회심곡>, <반야심경>, <축원>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림>은 쇠가락과 비나리 중심의 음원이다. 이광수가 부른 <보림>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 돌아 백팔 번을 돌아 나무아미타불 백팔 번을 도세 일년 하고도 열두 달아 한 달하고도 열두 달아 한 달하고도 하면은 삼십 일인데 반달 하면은 열 닷 세라 정칠월 이팔월 삼 구월 사 시월 오동지 육선달 드는 액은 하루 하면 열두시 주야하면 스물 네시 시시 때때 드는 액은 달걸이로 풀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월하고 드는 액 이월 영동에 막아내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삼짓에 막아내고 삼월 한 달 드는 액은 갑인 사월에 막아내고 사월 한 달 드는 액은 오월 단오에 막고 오월 한 달 드는 액 유월 유두에 막고 유월 한 달 드는 액 칠월칠석에 막고 칠월 한 달 드는 먹은 팔월 한 달 막고 팔월 한 달 드는 액 구월 구월에 막고 구월 한 달 드는 액 시월상달에 막고 시월 한 달에 드는 액 동지 동지에 막고 동지 한 달 드는 액은 선달그믐에 막고 선달 한 달 드는 액은 내년 정월에 막고 도세 돌고 도세 백팔번뇌를 도세.”

참고 악보

<참고 악보1> 이화중선·이중선 창 <보림>

<참고 악보2> 백점봉·김종기 외 남녀합창단 창 <보림>

<참고 악보3> 최계란·조소옥 창 <보림>

<참고 악보4> 이난향·박도일 창 <보림>

<참고 악보5> 박초선·한농선 창 <보림>

<참고 악보6> 안숙선 창 <보림>

보림

빅타 KJ1340-A,B

녹음: 1929

소리: 이화중선, 이증선

(장구 반주)

채보: 이은비

실음: 장3도 아래

1 중모리 (♩ = 98~100)

상 - 래 소 수 - - 공 덕 - - - - 해 - 요

호 오 하 앙 삼 - - 천 - - 세 - 이 워 - - 을 - - 만 - 을

봉 - 위 - - - 주 상 전 - - 하 - 수 - 만 - - - 세 - 요


왕 - 비 - - - 전 - - - - 하 - - 수 오 - - 계 - - - 히 - - - 년 - 을

세 - 자 전 하 - - - - - 수 우 천 - - - - - 추 요

선 왕 - - 선 - - - - - 위 원 - - - - - 왕 생

제 궁 - - 종 - - - - - 실 각 - - - - - 안 량

문 무 - - 백 - - - - - 위 제 - - - - - 총 량

17

 도 내 - - 방 - - - - 백 - - 우 우 - - - - - 있 고

19

 성 주 - - 합 - - - - 하 - 제 - - - - - 일 풍 국 태 *Cum*

21

 - 애 민 - - 안 - - 범 - - 료 전 이 라 나 - 무 전 - - - - - 룡 - -

23

 지 - *Cum* 시 인 님 네

24 *중중모리* (♩. = 76~78)


 동 방 화 류 - 시 방 화 화 - -


26

 북 방 - - - 화 - 류 남 - - - - - 방 화 류 야

28


 오 름 이 야 도 름 이 야 천 - 수 천 - 안

30

 관 자 재 - 보 살 - 광 - 대 원 - 만

32

 무 애 - 대 비 - 보 살 - 무 상 - - 심 - - - - 심

34

 미 - - - - - 묘 범 - 백 천 - - 만 - - - - - 겁


36

 관 자 - - - - - 재 - - 이 범 정 - 진 언 이

38

 음 바 - - - - - 라 요 대 다 라 니 계 청 계 수 *Cummm*

40

 관 - - - - - 음 보 살 - 석 가 여 래 문 - 수 보 살 *Cummm*

42

 지 - 장 - - 보 살 - 음 - 바 - - - - - 라 니 - *Cummm*

44

 음 - 바 - 래 요 - 음 - 바 라 - - - - - 라 니

46

 음 바 - - - - - 라 요 앞 소 당 산 -

48

 뒤 도 - 주 산 - 좌 우 - 천 - - - - - 룡

50

 수 살 맥 이 라 성 황 님 - 네 나 무 천 - - - - - 룡

52 지 - - 신 남 네 - 동 에 는 청 체 지 신

54 나 - - - - - 무 - 남 에 는 적 제 지 신

56 나 - - - - - 천 룡 북 에 는 백 제 지 신

58 - 나 무 - 천 룡 - 북 에 는 흑 제 지 신

60 나 무 - - - - - 천 룡 - 증 앙 엔 황 - 제 지 신

62 나 - - - - 무 - 천 - 룡 지 - - 신 남 아 미

64 - - - - 일 - 세 동 방 - - -

66 절 - - 도 - - 이 쇄 남 방 의 득 청 객 이 라

68 나 - - - - - 무 - 삼 쇄 서 방 구 정 - 토 로 다

70



- 나 - - 무 살 바 사 췌 북 방 의 영 안 강 이 라 -

72



- 나 - 무 천 - - 룡 지 - - 신 님 네

74 자진모리 (♩. = 115~117)




도 랑 청 정 무 하 예 - -

76



상 - 보 천 - 강 - 차 지 -

78



아 금 지 송 묘 진 언 - -

80



원 사 자 - 비 밀 가 호

82



아 석 소 - 조 지 아 - 개 -

84



종 신 - 의 구 - - 의 - 일 - 수 세 -

86



무 상 무 사 진 - 지 라 진 지 소 - 지

88

어 - - - 아 - - -

90

- - - 아 미 - - -

92

타 - - - 불 - - -

94 엇중모리 (♩ = 111~113)

어 노 다 가 네 - 에 헤 에 나 도

97

노 다 가 - 아 노 라 ○ ○ ○ ○

100

○ - ○ ○ ○ - ○ ○ ○ ○ ○

103

내 가 - 놀 아 - 간 다

보림

콜롬비아 40053-A

녹음: 1929

소리: 백점봉, 김종기 외 남녀합창단

(대금, 장구 반주)

채보: 이은비

실음: 단6도 아래

1 중중모리 (♩. = 75~77)

동 방 화 류 - 서 방 - 화 류

북 방 - - - 화 류 남 - - - 방 - 화 - 류 야

오 름 이 야 도 - 름 - 이 야 천 - 수 천 안 -

관 자 재 - 보 살 광 - 대 원 - - 만

무 아 - 대 비 - 보 살 무 상 - - 심 - - - 심

미 - - - - 묘 범 백 천 - - 만 - - - 겁

나 아 - - 안 - - 자 여 - - 래 범 정 - 진 언 이

음 바 - - - 아 - - 라 요 대 다 라 - 니 계 청 지 수

17




- 관 - - 음 보 살 석 가 여 래 문 수 - 보 살

19



- 지 - - 장 보 살 음 - - 바 - - 라 - - 니

21



음 바 - 아 - - 아 - - 라 요 음 - 바 - - 라 라 니

23



음 바 - 아 - - 아 - - 라 요 앞 도 당 산

25



뒤 도 - - 주 산 좌 - 우 천 - 룡

27



수 살 백 이 라 - 성 - 황 - - 님 네 나 - 무 - 천 - - 룡 -

29



지 - 신 님 네 동 에 는 청 제 지 신

31



나 - - 아 - - 무 - 남 에 는 적 제 지 신

33



나 - - 아 - - 무 천 룡 서 에 는 백 제 지 신

35



나 아 - - - 무 천 룡 북 에 는 흑 제 지 신

37




나 아 - - - 무 천 룡 중 앙 에 황 - 제 지 신

39




나 - 아 - 무 - 천 - 룡 - - 지 - 신 님 네 아 니

41



- - - 일 - - - - - - - - 쇠 - - 동 - 방 - -

43




결 도 - 량 이 라 이 쇠 남 방 - 득 청 량 이 라

45



나 아 - 아 - - 무 철 - 삼 세 서 방 의 구 정 - - 토 로 다

47



나 아 - 무 살 방 사 쇠 북 방 의 영 안 - - 강 이 라 -

49



나 - 무 - 천 - 룡 - - 지 - 신 님 네

보름

밀리언 CM805

녹음: 1936

소리: 최계란, 조소옥

(대금, 가야금, 장구 반주)

채보: 이은비

실음: 장2도 아래
중모리 (♩ = 90~92)

1 상 - 래 소 수 - - 공 덕 - - - 해 - - - 요

3 회 - 향 - - - - - 삼 - - 천 - - 실 - 원 - - - - - 만 - - - - - 을

5 봉 - - 위 - - - - - 주 상 - - 전 - - - - 하 - 수 - 만 - - - - - 세 - - 요

7 왕 - 비 - - - - - 전 - - 하 - - 수 - 제 - - - - - 년 - - 을

9 세 - 자 전 - 하 - - - - - 수 - 천 - - - - - 추 요

11 선 왕 - - - - - 선 - - - - - 위 원 - - - - - -왕 생

13 제 궁 - - - - - 종 - - - - - 실 각 - - - - - -안 량

15 문 무 - - - - - 백 - - - - - 위 진 - - - - - -충 량

17

도 내 - - - 방 - - - 백 - - - 무 - - - -있 고

19

성 주 - - - - - 일 품 국 태

21

- - 민 안 - 에 범 - - 료 - - 전 이라 - - 나 - - 무 천 - - - - 룡 -

23

지 - 신 - - - - - 님 네

24 중중모리 (♩. = 98~100)

동 방 화 류 - 서 방 - - - 화 화 - 류

26

북 방 - - - 화 - 류 남 - - - - - 화 - 류 야

보림

타이헤이 8198-B

녹음: 1936

소리 : 이난향, 박도일

(대금 반주)

채보: 이은비

실음: 완전5도 아래

1 중모리 (♩ = 92~94)

1

사 앙 래 소 수 우 우 공 터 - - - 억 해 - 요

3

호 호 하 - - - - 앙 사 - 암 천 - - - - - 시 일 얼 - - - - - 을

5

봉 - - 위 - - - - 주 상 - - 전 - - - - 하 - 수 - 우 만 - - - - - 세 - 요

7

왕 - 비 - - - - - 전 - - 하 - - - - - 수 - 제 - - - - - 년 - 을

9

세 - 자 천 - - - - 하 - 아 - - - - 수 - 천 - - - - - 추 요

11


선 왕 - - - - - 선 - - - - - 위 - 위 - - - - - 언양 - - - - - 왕 생

13

제 궁 - - - - - 종 - - - - - 실 - - 각 - - - - - 안 량

15

문 무 - - - - - 백 - - - - - 위 - - - - - 진 - - - - - 총 량

17

 도 내 - - - - 방 - - - - 배 - - - - 맥 후 - - - - - 있 고 - - -

19

 성 주 - - - - - 합 - - - - 하 - 제 - - - - - 일 품 국 태

21

 에 에 민 안 - - - - - 뱀 - - - - - 룰 전 이 라 나 - 무 천 - - - - - 룡 -

23

 지 - - - 신 - - - - - 님 네 -

24 **중중모리** (♩. = 96~98)


 동 방 화 류 - 서 방 - 화 화 - 류


26

 북 방 - - - - 화 류 - 남 - - - - - 방 화 - 류 야

28

 오 름 이 야 도 름 - 이 야 천 - 수 천 안 -

30

 관 자 재 - 보 살 광 - 대 원 - - - - 만


32

 무 애 대 비 - 보 살 무 상 - 심 - - - - 심 -

34




미 - - - - - 묘 범 백 천 - 만 - - - - - 겁

36



난 조 - - - - - 우 - - - - - 겨 - - - - - 레 범 정 - - - - - 진 언 - 이

38



음 바 - - - - - - - - - - - 래 요

보림

녹음: 1960년대
 소리: 박초선, 한농선
 (가야금, 해금, 대금, 장구 반주)
 채보: 이은비

실음: 장3도 아래
 1] 중모리 (♩ = 82~84)

1] *Cmm*
 사 앙 래 소 수 - - 공 덕 - - - 해 - 요

3] *Cmm*
 회 - 향----- 사 - 암 천 ----- 시 일 얼 - -을----- 만 - 을

5] *Cmm* *Cmm* *Cmm*
 봉 - -위----- 주 상 - - 전 -----하 - 수 - - 만 ----- 세 - 요

7] *Cm* *Cmm*
 왕 - 비----- 전 - - 하 - - 수 - 제----- 년 - 을

9]
 세 - 자 전 - - 하 ----- 수 - 천 ----- 추 요

11] *Cmm*
 선 왕 ----- 선 - - 위 위 ----- 언 왕 생

13] *Cmm*
 제 궁 ----- 종 - ----- 실 각 - ----- 안 량

15] *Cmm*
 문 무 ----- 백 - ----- 위 - - 진 ----- 총 람

17

도 내 - - - - 방 - - - - 배 - - 액 후 - - - - -있 고

19

성 주 - - - - 합 - - - - 하 - - 제 - - - - -일 품 국 태

21

- - 민 안 - - 범 룬 전 이 라 나 - - 무 천 - - - - - 룡 -

23

지 - - 신 - - - - -님 네

24 중중모리 (♩. = 63~65)

동 방 화 류 - 서 방 - - - 화 화 - 류

26

북 방 - - - 화 류 남 - - - - 방 화 류 야

28

오 름 이 야 도 - 름 이 야 천 - 수 천 - 안 - - -

30

관 - 자 재 - 보 살 광 - 대 원 - - - 만

32

무 에 - 대 - 비 - 보 살 무 상 - 심 - - - 심

34



미 - - - - - 묘 범 백 - 천 - - - 만 - - - - - 겁

36



난 조 - - - - - 우 - - - - - 겨 - - 레 범 정 - 진 언 이

38




움 바 - - - - - 라 요 대 다 라 - 니 계 청 계 수

40




- 관 음 보 살 석 가 여 래 문 - 수 보 살 *Cum*

42



- 지 장 보 살 음 - 바 - - - - - 라 - - - - -

44



음 - 바 라 요 - 음 - 바 - - - - - 라 니

46



음 바 - - - - - 라 요 앞 도 당 산 - - -

48



뒤 도 - 주 산 좌 우 - 천 - - - 룡 *Cum*

50



수 살 맥 이 - 라 - 성 황 - 님 - 네 나 - 무 - 천 - - - 룡 *Cum*

52 지 - - 신 남 네 동 에 는 청 - 제 지 신

54 나 - - - - - 무 - 남 에 는 적 - 제 - 지 신

56 나 - - - 천 룡 서 에 는 - 제 - 지 신

58 - 나 - - - - - 청 용 북 에 는 흑 제 - 지 신

60 나 - - - - 천 룡 증 양 에 는 황 - 제 지 신

62 나 - - - - 무 - - - 천 - 룡 - - - 지 - 신 남 네 아 미

64 - - - - - 동 방 - - -

66 절 - - - 도 량 이 라 - 이 쇄 남 방 의 득 천 객 이 는

68 나 - - - - - 무 삼 쇄 서 방 의 구 정 토 로 - 다

70




나 - - - - 무 천 룡 사 쉐 북 방 의 영 양 갱 이 - 라 -

72



나 - 무 - 천 - - - 룡 지 - - 신 님 네 -

74 자진모리 (♩. = 94~96)




도 량 청 전 무 하 예

76



삼 - 보 천 - 룡 강 차 지

78



아 금 지 송 묘 자 언 -

80



원 사 자 - 비 밀 가 호 -

82



아 석 소 - 로 제 약 업

84



종 신 구 의 지 소 생 이 라

86



암 양 무 사 진 - 지 라 진 지 소 시

88

불 여 경 이 라 아 - -

90

- - - - - 미 - -

92

- - - - - 타 - -

94

- - - -

보림

녹음: 1992

소리: 안숙선

(거문고,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 아쟁 반주)

채보: 이은비

실음: 단2도 아래
중모리 (♩ = 63~65)

1 상 - 래 소 수 - - 공 덕 - - - 해 - 요

3 회 - 향----- 삼 - - 천 ----- 시 일 원----- 만 - 을

5 봉 - - 위----- 주 상 - - 전 ----- 하- 수 - - 만 ----- 세 - 요

7 왕 - 비----- 전 - - 하 ----- 수 - 제----- 년 - 을


9 세 - 자 전 - - 하 ----- 수 - 천 ----- 추 요 -

11 선 왕 ----- 선 - - 위 - 원 ----- 왕 생 -

13 제 궁 ----- 종 - - 실 - 각 ----- 안 녕 -

15 문 무 ----- 백 - - 위 - 진 ----- 흥 량 -

17



도 내 - - - 방 - - - 백 - - - 위 여 - - - 있 고 -

19



성 주 - - - 합 - - - 하 - 세 - - - 일 품 국 태

21



- - 민 안 - 에 범 료 전 이 라 나 - 무 천 - - - 룡 -

23



지 - - 신 - - - - - 님 - 네

24 중중모리 (♩. = 60~62)



동 방 화 류 - - - 서 방 - - - 화 - - - 화 - 류

26




북 방 - - - 화 - 류 남 - - - 방 화 - 류 야

28




오 름 이 야 도 - 름 이 천 - 수 천 - 안 - - -

30





관 - 자 재 - 보 살 광 - 대 원 - - - 만

32



무 에 - 대 - - - 비 보 살 무 상 - - - 심 - - - 심

34

 미 - - - - - 요 범 백 천 - - - - - 만 - - - - - 겹


36

 난 조 우 - - - - - 에 - - 레 범 정 - 진 언 이
 (겨)


38

 음 바 - - - - - 라 요 대 다 라 니 계 청 - 계 수

40

 - 관 음 - 보 살 서 가 여 래 문 수 보 살

42

 - 지 장 - 보 살 음 - 바 - - - - - 라 - - - - - 니

44

 음 - 바 라 요 음 - 바 - - - - - 라 니

46

 음 바 - - - - - 라 요 앞 도 당 산 - - -

48

 뒤 도 - - - - - 주 산 좌 우 - 천 - - - - - 룡

50

 수 살 맥 이 - 라 - 성 - 황 - - - - - 님 - 네 나 - 무 - 천 - - - - - 룡

52



지 - 신 - 님 네 동 에 는 청 제 지 신

54



나 - - - - - 무 남 에 는 적 제 지 신

56



나 - - - 무 천 룡 서 에 는 백 제 지 신

58



나 - - - - - 무 북 에 는 흑 제 지 신

60



나 - - - 무 천 룡 증 앙 에 는 황 - 제 지 신

62



나 - - - - - 무 - - - 천 - 룡 - - 지 - 신 - 님 네

64



아 미 - - - - - 쇠 - - - 동 방 - - -

66



절 - - 도 - 량 이 라 - 이 쇠 남 방 의 득 청 량 이 라

68



나 - - - - - 무 삼 쇠 서 방 의 구 정 토 로 - 다

70



나 - - - - 무 천 룡 사 췌 북 방 의 영 안 강 이 - 라 -

72



나 - 무 - 천 - - - 룡 지 - 신 - 님 네

74 자진모리 (♩. = 82~84)




도 량 청 정 무 하 예

76



상 - 보 천 - 룡 강 차 지

78



아 금 지 - - 송 묘 - - 진언 - -

80



원 사 자 - 비 밀 가 호

82



아 석 소 - 조 제 악 업

84



종 신 구 의 - 지 소 생 이 라

86



암 양 무 사 진 - 지 라 진 지 소 지

88

불 여 - - - 경 이 라 - - -

90 *rit.*

아 - - - - - - - - -

92

아 미 - - - - - - - - -

94

타 - - - - - 불 - - - -